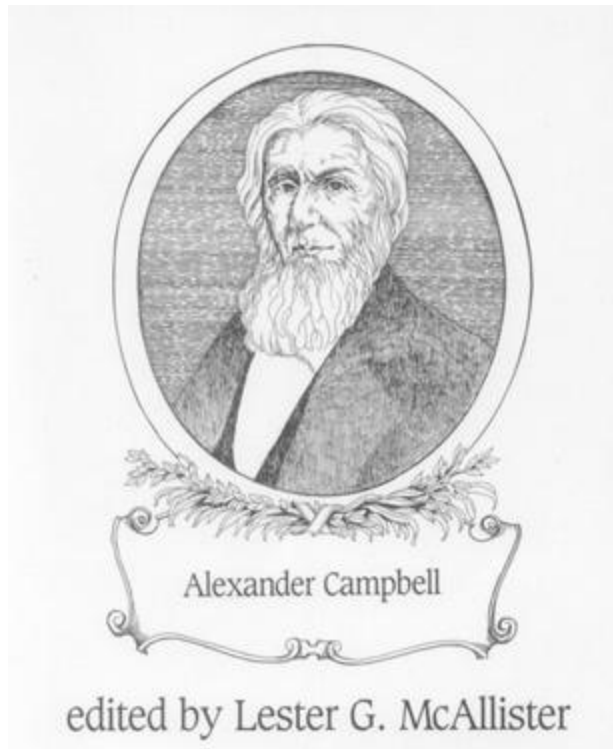


Alexander Campbell Reader

알렉산더 캠벨 독본

조 동 호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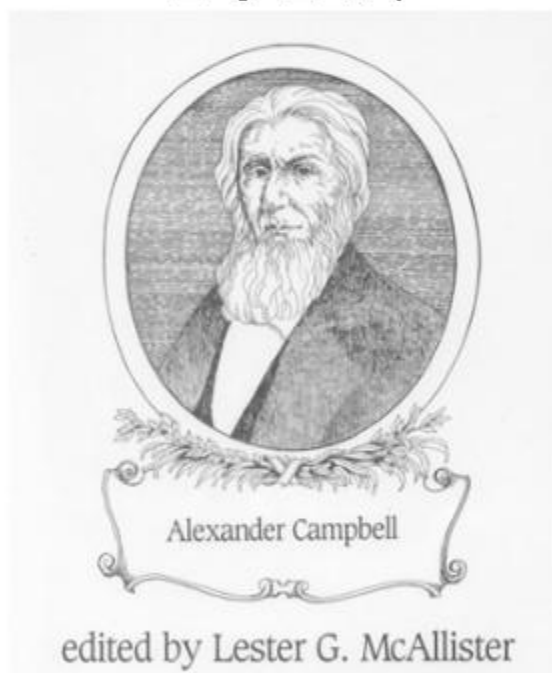


그리스도교회연구소

Alexander Campbell Reader

알렉산더 캠벨 독본

조 동 호 번역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An Alexander Campbell Reader

McAllister, Lester G. Ed.
St. Louis, Missouri: CBP Press, 1988.
Dong Ho Cho, Trans.

Christian Church Studies, 2000, 2009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차례

들어가는 말	5
행동의 사람 알렉산더 캠벨	7
1810 :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서약	35
1816 : 율법에 관한 설교	39
1823 : 『크리스천 뱃티스트』지 머리말	47
1823 : 근대 선교사 조직들에 관하여	51
1823 : 성경공회들에 관하여	55
1824 : 사례비를 받는 성직자들에 관하여	57
1826 : 새 번역 성경에 대한 변호	59
1827 : 여행에서 느낀 점	63
1827 : 연약한 반대어의 유력한 대답	67
1829 : 폐간 소감, 편집자 역사의 일부	69
1830 : 독립기념일 연설	73
1836 : 가르침과 도덕에 관하여	77
1838 : 과학과 신앙에 관하여	81
1839 : 우리의 이름	85
1839 : 크리스천 시스템	91
1842 : 협력에 관하여	105
1845 : 미국 노예제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07
1846 : 공립학교 후원에 관하여	113
1848 : 전쟁에 관한 연설	115
1849 : 총회 소집에 관하여	127
1849 : 여성의 권리에 관하여	131
1850 : 사형제도에 관하여	137
1852 : 우리나라의 운명에 관하여	145

1853 : 선교의 필요성에 관하여	149
1854 : 대학들에 관한 연설	155
1854 :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	159
1858 : 서문, 『밀레니얼 하빈저』	163
결어	167
역자후기	169

들어가는 말

Introduction

미국헌법이 채택되던 해에 미국과 세계인의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칠 한 아이가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은 1809년 이 나라에 왔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로 다양하게 알려진 19세기 종교개혁운동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다.

1988년 9월 12일은 캠벨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이며, 널리 기념될 것이다. 기념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사회와 몇몇 교육기관들의 후원으로 특별 강연들과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로 진행될 것이다.

캠벨의 중요한 공헌들을 정리하고, 그의 저술들에서 선별하여 편집한 『알렉산더 캠벨의 독본』(*Alexander Campbell Reader*)의 출판이 기념 사업에 추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같은 독본(*Reader*)의 출판은 우리들의 전통을 좀더 잘 이해시켜줄 뿐 아니라, 우리가 캠벨의 많은 업적들을 감상하는데 또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특성의 작업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필자는 특별히 그 프로젝트를 제안한 허버트 H. 램버트(Herbert H. Lambert)씨와 편집에 도움을 준 해롤드 E. 페이(Harold E. Fey), 그리고 내쉬빌(Nashville) 소재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사회'의 사서이자 기록 보관자인 데이비드 I. 맥휠터(David I. McWhirter)와 클레어몬트 소재 제자들 대학원 재단의 디시플리어나 컬렉션(the Discipliana Collection of the Disciples Seminary Foundation) 관장인 메리 앤 패로트(Mary Anne Parrott)에게, 자료제공에 대한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레스터 G. 맥알리스터(Lester G. McAllister)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Claremont, California)
1987년 12월 1일

행동의 사람 알렉산더 캠벨

Alexander Campbell As a Man of Action

돌이켜 볼 때,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은 행동의 사람이었다. 캠벨은 장수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래서 캠벨은 기독교 안에서 뿐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도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설교가로서, 개혁가로서, 출판가로서 혹은 교육가로서, 캠벨은 미국 개척지대에서 기독교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필요한 정력과 재능을 가졌고, 자력사업과 자발행동을 결합하여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 토마스 캠벨(1763-1854)은 젊은 시절을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보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대륙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했다. 캠벨은 미국에서 태어나 개척지에서 자란 발튼 W. 스톤(1772-1844)과 같지 않았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인격과 개성이 굳어지기 전인 젊은 시절에 북아일랜드에서 서부 펜실베이니아 주 개척지로 옮겨왔다. 그는 영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의 가장 좋은 점들을 결합할 수 있었다.

캠벨은 1811년 3월 12일 마가렛 브라운(Margaret Brown/1791-1827)과 결혼한 이후, 그의 부인과 함께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군(郡)에서 그리 멀지 아니한 북서 버지니아 주(지금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있는 장인의 농장에 보금자리를 정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캠벨은 개척지의 기독교 문제에 관심하였고, 그의 넘치는 에너지를 수없이 많은 일들에 쏟아 부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사회와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다.

캠벨의 농장개발은 그 자체가 하나의 화젯거리이다. 그가 살던 지역이름이 원래 하 버펄로(Lower Buffalo)였는데, 캠벨은 이름을 베다 니로 바꾸었다. 그의 부동산은 300에이커(약 367,264평)와 작은 집 한

채에서 시작하여 1,500에이커(약 1,836,318평) 이상과 방 20개짜리 저택으로 불어났다.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많았다. 따라서 그 수입금으로 목회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가 있었고, 후에는 자신의 자금으로 출판사를 발전시켰고, 대학을 세웠으며, 마을을 세웠다.

감정주의와 부흥이 기독교인의 경험을 지배하던 때에 알렉산더 캠벨은 상식과 이성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칼뱅주의의 예정론이 불필요하며, 구원으로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특별경험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믿음은 성경말씀의 "합리성"(reasonableness)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고, 구원은 복음을 듣는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믿고, 회개하고, 복종하는 것이었다. 구원은 그처럼 단순하고 분명하였다. 그의 강조는 개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었고, 그 생각은 개척지의 자립정신과 일치하였다.

새 출발 Beginnings

발톤 W. 스톤에도 불구하고¹⁾ 1909년에 100주년을 기념한 것은 논리적이고 고무적인 일이었다. 1809년에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이 나왔고, 같은 해에 알렉산더와 그와 가족이 아버지 토마스와 만난 해였기 때문에 기념할만한 이유가 충분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2년 이상을 떨어져 살았으나, 그들은 피차 독립적으로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전통과의 관계를 끊고 있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탐구, 그것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는, 새로운 탐구 중에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1809년 미국은 헌법제정이후²⁾ 두 번째 10년을 막 끝낸 해였다. 해안지역의 과밀한 인구,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한정된 토지 때문에 많

1) 역자 주: 「스프링필드 장로회 유언서」가 1804년 6월 28일에 나옴.

2) 역자 주: 1788년에 발효하여 1789년에 개최된 제1회 연방의회에서 헌법 수정안이 심의·가결되었고 수정 1조에서 수정 10조까지의 권리장전의 여러 조항은, 1791년에 발효되었다.

은 가족들이 콰버랜드(Cumberland) 도로를 따라 피츠버그(Pittsburgh)의 앨리게이니(Allegheny)와 모농가헬라(Monongahela) 강이 합류하는 서쪽을 향해 콰버랜드 협곡을 따라 켄터키 주 중부 블루그래스(bluegrass) 지대로 옮겨갔다.

유럽의 전통들과 선입견들에 기초하여 동부해안에 세워진 도시들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에서 이주민들은 새 출발의 꿈을 꾸었다. 교회생활의 새로운 형태들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 바람직한 것 같았다. 공공업무에서는 물론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결정과 관리에 있어서 큰 몫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캠벨 가족이 서 펜실베이니아 주의 개척지에 도착했을 때에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신 서부 개척지에서는 전도, 혁신, 종교적 실험에 대한 무제한의 기회가 있었다. 종교의 자유가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남서부 펜실베이니아 주의 레드스톤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서는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 감리교회가 가장 늦게(1780년) 그 지역에 들어갔고, 레드스톤 순회구역에서 의사록이 처음 나온 것은 1784년이였다. 최초의 침례교회는 1780년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장로교회는 1766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레드스톤 장로회가 1781년에 만들어졌고 서 펜실베이니아 주를 섬기는 교단들 가운데 가장 규모도 컸다.

불행하게도 장로교회는 이민 오기 전 옛 대륙에서 다뤘던 쟁점들을 신대륙으로 옮겨왔다. 예외 없이 레드스톤 지역도 대부분의 장로교 분파 교회들이 세워졌다. 분파들은 탈퇴회(Seceder), 반탈퇴회(Anti-Seceder), 개혁주의(Reformed) 그리고 1812년 이후에는 스코틀랜드 교회인 "보통" 장로교회와 준 개혁주의(Associate Reformed)가 있었다. 이 복잡한 교회분열의 문제가 바로 토마스 캠벨이 교회분열을 막고 연합할 방법을 찾게 된 주된 이유였다.³⁾

3) 역사 주: 탈퇴회와 반탈퇴회는 각각 옛빛과 새빛회로 다시 나뉘어져 있었다.

이것이 토마스와 후에 알렉산더가 기독교인 연합에 필요한 몇 가지 방법들을 주창하게 한 정황이었다. 캠벨 부자는 연합의 기초를 성경말씀이라고 믿었으며, 그 위에서 하나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당시 이 제안은 넓고 자유롭고 상식적인 관점을 나타낸 것이었다.

성경말씀에서 발견되는 믿음에의 본질들이 넓게 수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캠벨 부자는 그들이 모든 사람이 수용하게 될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제안이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서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었다. 확실히 연합은 개척지의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전도를 도울 것이었다.

칼뱅주의 교리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거의 필연적인 것이었다. 저항의 토대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발전되었고, 그 저항은 많은 복음주의 그룹들이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의 전통을 재발견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자유로 인해서 얻어진 한 가지 큰 결과는 종교에 입문하는 신선한 통찰의 원천이 신약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운동들의 탄생이었다.

알렉산더 캠벨이 서 펜실베이니아 주에 왔을 즈음에 그와 같은 운동들이 뉴잉글랜드 주에서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 1769-1846)와 아브너 존스(Abner Jones, 1772-1841)의 지도력아래 나타났고, 남버지니아 주와 북 캐롤라이나 주에서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 1735?-1826)의 가르침아래 나타났고, 중앙 켄터키 주에서는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 1772-1844)의 설교아래 나타났다. 이들 지도자들은 거의 동일한 생각들을 했고, 그 생각들은 “신약성경에 기초한 단순한 믿음”이 성서적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채택하는 것이 기독교인 연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다.

1809년 토마스와 알렉산더 캠벨이 그들의 새로운 고국의 문제를 숙고하면서 미국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으로 결론지은 것은 분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 개의 큰 교단들이 있었고, 많은 군소 교단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의 임무는 대단히 컸다. 기독교의 영향력의 분열은 교단이 교단과 경쟁하는 곳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헌법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처럼 국가 교회의 강제적인 연합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기독교인 연합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경연구, 교리논의, 설득 그리고 자발적 행동에 의해서 그들 자신들 사이에서 풀어야 할 분명한 문제였다. 캠벨 부자가 신약성경 기독교 회복(a restoration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의 기초 위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연합운동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들에서 비롯되었다. 가능하다면, 그들은 16세기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개혁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 바뀐 말하면, 그들은 19세기 교회개혁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떠오르는 지도자로서

As Emerging Leader

미국에 도착한 후, 알렉산더 캠벨은 목회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기독교인 연합을 진작하는 목적에 투신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토마스의 지도아래 즉시 학업을 시작하였고, 글래스고우 대학교에서 겨울학기 동안에 배운 지식을 불려나갔다. 착실하게 학업을 마친 후에 캠벨은 그의 22번째 생일을 두 달 앞둔 1810년 7월 15일 매주 모이는 이웃 사람들의 집회에서 그의 첫 설교를 하였다.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은 신자들의 친교를 도모하고 설교나 다른 기독교인의 일을 할 목적으로 워싱턴 군(郡) 기독교인 협의회로 조직되었는데 널리 수용되지를 않았다. 1810년 가을까지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가 주창했던 원칙들 위에서 교회들의 개혁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졌다.⁴⁾

다음 해인 1811년 초에 장로 캠벨은 협의회가 그리스도인 친교의 기능들과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결

4) 역자 주: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교단의 벽을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하였다. 그러므로 1811년 5월 4일에 열린 협의회에서 그 다음 모임에서 구성원들은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로 알려진 교회를 조직하였다.

이 모임에서 토마스 캠벨은 장로로 선출되었고, 알렉산더는 복음을 설교할 자격을 얻었다. 독립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중요한 단계를 밟았는데, 그것은, 만일 이전 교회와의 관계들에 긴장이 초래된다면, 지금 그 모임을 해체해 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립자들의 염원과는 반대로 그들은 하나의 별개의 운동이 되었다.

교회로 조직한 후 첫 주일에 구성원들은 처음으로 주의 만찬을 축하하였다. 그로부터 매주일 성도들은 떡과 잔에 참여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침례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끝에 토마스 캠벨은 침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침수라고 선포함으로써 교회를 이끌었고, 그로부터 침수는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되었다.

1812년 1월 3일 브러시 런 교회는 알렉산더 캠벨을 목사로 안수하였다. 이때가 23세 때였다. 그와 마가렛(Margaret)의 첫 아이 제인(Jane)이 1812년 3월 13일에 태어났다. 그녀의 출생으로 알렉산더는 침례에 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 결과 1812년 6월 12일 캠벨과 그의 부인 마가렛, 토마스과 그의 부인 제인(Jane), 그리고 장로 캠벨의 딸 도로티아(Dorothea)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버펄로 개울(Buffalo Creek)에서 침례교 목사에 의해 침수세례를 받았다. 출발한 지 일 년밖에 되지 아니한 이 운동은 이제 *침수에 의한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 by immersion)*에 헌신하였다.

침수문제에 있어서 젊은 알렉산더는 선도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환원운동의 지도력은 어느 사이에 토마스 캠벨에서 알렉산더 캠벨의 손으로 넘어갔다. 수년이 흐른 후 알렉산더는 기독교 사상과 실천에 있어서 분명한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제자들을 이끌었다. 이 행동의 사람이 1866년 죽을 때까지 참여했던 수많은 활동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는 알렉산더 캠벨이 왜 그리고 어떻게 것처럼 위대한 영향력을 미국의 종교생활에 강력히 발휘할 수 있었는가를 살피게 될 것이다.

교회 개혁가로서 As Church Reformer

“개혁가들”이 - 그들은 곧 이렇게 불리어졌다. - 침수세례를 채택하자 그들과 다른 교회들 사이에 장애물이 생겼다. 그들과 이웃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장로교인들이었다. 특히 목사들은 유아세례와 교권에 대한 도전을 받자 바짝 긴장하였다.

1812-13년 겨울 내내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는 정규적으로 집회를 가졌다. 침수세례의 채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침례교회들과 더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모논가헬라(Monongahela) 강과 앨리게이니(Allegheny)의 산기슭에 다수의 침례교회들이 있었다. 그들은 1776년 친교를 목적으로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를 만들었다. 1812년 당시 협의회에 소속된 교회가 33개, 목회자가 20명, 그리고 교인이 1300명이었다.

그 지방 이곳저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설교하면서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은 곧바로 여러 침례교회들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침례교회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레드스톤 협의회에 가입할 것을 계속해서 권하였다. 캠벨 부자는 망설였다. 협의회가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의회가 사용하는 칼뱅주의 신앙고백서(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비슷함)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치명적인 결점은 신앙고백서가 친교의 시금석으로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신앙고백서를 받아드리지 아니하면 교인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침례교인들이 신약성경 기독교로 환원하려하는 그들의 계획에 전적으로 찬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캠벨 부자는 기존의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걱정스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15년 9월에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권을 받아드렸다. 그러나 그들은 가입권을 받아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것만을 가르치고 설교하겠다는 그들의 목적을 명시한

진술서를 마련하였다.

1816년 8월에 열린 협의회 모임이 베다니(Bethany)에서 멀지 아닌 한 크로스 개울(Cross Creek)에서 열렸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 모임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아마도 침례교 목회자들이 알렉산더에 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알렉산더는 로마서 8장 3절을 근거로 제목을 “율법에 관한 설교”로 정하였고, 그 설교에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들을 강조하였다. 당시 레드스톤 침례교 목회자들은 신구약 구별 없이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캠벨 부자가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한 해에 그들의 가입을 막는 반대자들이 몇 있었는데, 율법에 관한 알렉산더의 설교가 있고 난 후부터는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후 15년 동안 알렉산더 캠벨과 그의 아버지는 침례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긴장만 쌓여갔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완전히 침례교단에 합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선교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 캠벨 부자와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개혁가들”이었을 뿐 아니라, “침례교회를 개혁하는 자들”이었으며, 나중에는 “제자들”(Disciples)로 떨어져 나왔다.

알렉산더는 전에도 펜실베이니아 주, 오하이오 주, 버지니아 주, 켄터키 주에 산재한 많은 침례교 협의회들에서 설교를 하였고, 그때마다 개혁을 촉구하였으나 개혁은 고사하고 거의 언제나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 협의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알렉산더의 견해를 단죄하였고, 그 결과 침례교인들과 제자들 사이에 분열만 커져갔다. 1830년대 초까지 침례교인들은 알렉산더 캠벨에게 철저하게 환멸을 느꼈다. 그러나 환멸은 두 가지로 작용하였다. 분열의 과정에서 침례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들과 더불어 많은 교회들을 잃었다.

인습타파자로서

As Iconoclast

1820년대 초 많은 침례교회들과 협의회들이 알렉산더 캠벨을 받아 드리고 있을 무렵, 알렉산더는 “개혁”에 관한 자기 생각을 더 널리 유포하기 위해서 월간지를 발행할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크리스천 뱍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지가 1823년부터 1830년 사이에 발행되었고, 알렉산더는 이 월간지에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연합과 교회의 정화와 왕국의 승리를 가능케 하였다.

불행히도, 이것은 추정된 교회의 권력찬탈과 비성경적 관행들의 제거를 요구하였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전통들”(accretions of the centuries)을 제거해야할 필요는 만약 새롭게 세워야 할 기초가 있다면 피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알렉산더 캠벨은 인습타파자가 되었다. 그는 열정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의 열정은 일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조차 괴로움을 끼쳤고, 더 성숙해진 자신의 판단으로도 좀 지나치다싶을 정도에까지 그를 끌고 갔다(carried him to lengths of which his own maturer judgment did not even approve.).

“옛 질서들(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의 회복”(Restoration of the ancient of order of things)은 궁극적 목적(ideal)이 되었고,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초대교회에 없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목사들은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하고 설교는 자원해서 해야 한다. 성경을 공급하는 단체들도 존재해야 할지 의심스러웠다. 성경의 권위가 인가하지 아니한 것을 교회가 실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멈춰야 한다. 후에 그가 교회들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어, 그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할 때에 그는 이들 문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

토론가로서

As Debater

알렉산더 캠벨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몇 차례에 걸친 그의 토론

들 즉 그가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공개적인 발표형태에 대한 검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론은 개척지대(frontier)에서 인기가 있었다. 토론이 어느 정도 지적인 자극과 재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캠벨은 토론이 자신의 견해를 알리고 개혁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매체를 알았다.

그의 첫 토론은 1820년 6월에 있었다. 토론의 대상자는 오하이오주 마운트 프레전트(Mt. Pleasant)에 거주하는 탈퇴파 장로교(Seceder Presbyterian) 목사, 존 워커(John Walker)였다. 침례의 문제가 그 날의 쟁점이었다. 이 날의 토론내용이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제목은 『인위적 전통임이 입증된 유아 약식세례: 기독교 침례에 관한 토론내용이 되다』(<*Infant Sprinkling Proved to Be A Human Tradition: Being The Substance of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Steubenville, Ohio: printed by James Wilson, 1820)>)이었다.

캠벨의 두 번째 토론의 대상자는 “보통” 장로교인 윌리엄 L. 맥칼라(William L. Maccalla/1788-1859)였다. 그들은 1823년 10월에 켄터키주 메이스빌(Maysville)에서 가까운 워싱턴에서 토론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토론의 결과는 1824년 책으로 출판되었고, 제목은 『침례에 관한 토론』(<*A Debate on Christian Baptism*(Buffalo, Va., Campbell and Sala)>)이었다. 이 책은 널리 배포되었다.

세 번째 토론의 대상자는 스코틀랜드 뉴 래나르크(New Lanark)와 미국 인디애나주 뉴 하모니(New Harmony)의 유명한 19세기 사회개혁가 로버트 오웬(Robert Owen/1771-1858)이었다. 토론은 1829년 4월에 신시내티(Cincinnati)에서 열렸고, 동년 베다니(Bethany)에서 알렉산더 캠벨에 의해 『기독교 증거들에 관한 토론』(<*A Debate on the Evidences of Christianity*>)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토론에서의 이슈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오웬의 “사회 체제”(Social System)에 관한 것이었다. 캠벨은 이 토론을 기독교 신앙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를 변호할 기회로 삼았다.

1930년대까지 오하이오 벨리(Ohio Valley)에 산재한 개신교 교인들은 천주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 천주교인들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많은 이주자들 때문이었다. 캠

벨의 네 번째 토론의 대상자는 신시내티 로마 가톨릭 주교인 존 B. 퍼셀(John B. Purcell/1800-1883)이었다. 토론은 1837년에 있었다. 캠벨은 가톨릭주의에 대항해서 개신교의 유산을 확고하게 방어하였다. 토론의 내용은 신시내티의 J. A. 제임스 앤 주식회사(J. A. James and Company)에 의해서 『천주교에 관한 토론』(*A Debate on The Roman Religion*)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의 대상자는 켄터키 주 파리스(Paris) 지방의 장로교 목사 나단 L. 라이스(Nathan L. Rice/1807-1877)였고, 토론내용은 침례의 끝없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토론은 1843년 11월 켄터키 주 렉싱턴(Lexington)에서 개최되었다. 헨리 클레이(Henry Clay)가 의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갔다. 토마스 카터(Thomas Carter)가 1844년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양자의 주장을 모두 실어 『기독교 침례의 행위, 대상, 목적과 관리자에 관한 ... 토론』(*A Debate ...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침수와 약식에 관한 문제로 장로교인들과 벌린 토론들은 단순히 시대적인 특징으로 보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 토론들은 더 이상 지속적인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오웬과 벌린 토론에서 캠벨의 기독교변호와 퍼셀 주교와 벌린 토론에서 개신교 입장변화는 개척지대에서 알렉산더 캠벨을 개신교의 위대한 챔피언으로 위치를 굳혔다. 이들 토론들로 인해서 캠벨은 유명세를 탔고, 그의 명성은 가까운 추종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전국적인 것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일상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다. 교회연합의 목표를 좀더 진행시켜 가는 한편, 이 토론들은 신약성경의 실천으로 교회들이 환원할 것을 부르짖었던 캠벨의 입장을 널리 유포시켜 주었다.

정치가로서

As Politician

알렉산더 캠벨은 1829년 버지니아 주 헌법을 새로 쓰기 위해서 대

표자를 뽑는 선거 때에 브룩크 군(Brooke county)의 대표로 출마하여 주(州) 대표자들 96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알렉산더는 주(州) 수도 리치몬드(Richmond)에서 3개월 간 속개(續開)된 의사일정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대표단 가운데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과 제임스 몬로(James Monroe), 그리고 미합중국 최고재판소의 부장판사를 지낸 존 마셜(John Marshall)도 포함되어 있었다.

캠벨은 버지니아 주에서 노예제도를 종식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 동부 저지대를 소유한 많은 유력한 인사들이 캠벨의 안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캠벨은 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이끌었다.

인쇄된 의사록에는 캠벨의 제안 설명들이나 연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대표의 근거 위에서 참정권과 군(郡)재판소제도에 관한 캠벨의 연설들은 그의 분석적 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사록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캠벨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동의안들은 통과되지 못했고, 부유한 토지소유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편집자와 출판가로서

As Editor and Publisher

1820년에 열린 캠벨과 워커와의 토론이 책으로 출판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자, 캠벨은 출판의 위력에 눈이 뜨였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월간지 『크리스천 뱅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지가 1823년에 시작되었고, 편집자는 캠벨이었다.

잡지발행을 추진시키고 가능하다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알렉산더 캠벨은 농장으로 이어지는 다리 가까운 버펄로 개울(Buffalo Creek) 방죽 위에 작은 인쇄소를 짓고, 자기 소유의 인쇄기들을 설치하였으며, 인쇄공을 채용하였다. 이 새로운 사업은 환원운동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결코 이익이 나지는 않았다. 캠벨은 일 년에 1,000불

정도의 손실액을 보상해야 했다.

『크리스천 뱍티스트』지의 발행은 환원운동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었고, 알렉산더는 인습타파를 위한 기사들을 실을 수 있었다.

인구가 적고 우편업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월간지의 발행부수가 상당했다. 발행된 잡지는 거의 미국 전역과 캐나다, 심지어는 영국에까지 보내어졌다. 비판자가 되는 것에서 조직된 기독교의 주창자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캠벨로 하여금 일곱 권을 찍어낸 후 즉 칠 년 만에 『크리스천 뱍티스트』지를 폐간토록 하였다.

이제 제자들(Disciples)로 불리어지는 개혁가들이 침례교인들로부터 어쩔 수 없이 분리해야 되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또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란 이름으로 그들의 운동이 불릴 것을 우려하면서, 1830년 1월 4일, 알렉산더 캠벨은 새로운 잡지, 『밀레니얼 하빈저』(*The Millennial Harbinger*)를 시작하였다. 이 월간지는 캠벨이 1866년 죽고 난 다음에도 1870년 12월까지 계속 발행되었다. 이 잡지는 폐간되기 전 몇 년 동안만을 제외하고는 40여년 줄곧 환원운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월간지였음을 증명하였다.

잡지의 쪽수를 늘리고 다른 인쇄 작업을 겸할 수 있도록, 베다니 마을에 새로운 인쇄소를 짓고, 인쇄기들을 더 주문하여 시설하였다. 『밀레니얼 하빈저』는 48쪽에서 60쪽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일 년치를 모으면 두터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었다. “엑스트라즈”(Extras)라는 이름의 특별부록은 정기 구독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었는데, 최근의 관심을 단독 주제로 다룬 것이었다.

캠벨의 편집지시 아래 잡지는 다른 신문잡지가 할 수 없는 환원운동이 신약성경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연합하는 것임을 대변하였다. 거의 이익을 보지 못했고, 종종 캠벨이 손실액을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는 환원운동의 안정과 형성에 기여하였다. 책장에 『밀레니언 하빈저』 전집을 갖고 살았던 제자들 목회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에게 신약성경을 읽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의미였다. 캠벨은 킹 제임스 신약성경에 수정

보완될 곳들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개역판을 출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같은 새 번역성경을 만드는 토대로써 캠벨은 이미 50년 전에 출판된 번역본들을 사용하였는데, 세 명의 스코틀랜드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것들이었다. 조지 캠벨(George Campbell)이 복음서들을, 제임스 맥나이트(James MacKnight)가 서신들을, 그리고 필립 닷드릿지(Philip Doddridge)가 사도행전과 계시록을 번역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들의 번역본들을 다른 번역본들과 그리고 헬라이어 본문과 비교하였다. 한 구절씩 모든 가능한 의미들을 찾아본 다음에 캠벨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택하였다.

번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거룩한 글들, 평이한 형식의 신약성경』(*The Sacred Writings of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of Jesus Christ, Commonly Styled New Testament*(Bethany, Brooke Co., Va.: A. Campbell, 1826)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알렉산더 역시 초기 작업에서 “여러 가지 교정”을 하였고, 때 부분마다 머리말과 많은 비평 각주와 부록을 첨부하였다. 캠벨이 새 번역 성경을 만든 주된 이유들은 근대 본문비평학자들이 더 나은 성경본문을 만들어냈고, 고대 언어에 대한 지식이 17세기 때보다 지금이 더 철저하였고, “살아 있는 언어는 지속적으로 변천하기” 때문이었다.

캠벨은 모든 헬라이어 단어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어떤 단어도 단순히 음역(音譯)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 개역성경들에서 헬라이어 단어를 단순히 음역하여 "baptize"(침례하다)로 한 것을 "immerse"(침수하다)로 고쳤고, 따라서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을 "침례 요한"(John the Immerser)으로 고쳤다.

캠벨의 새 번역 성경은 종종 “살아있는 말씀”(The Living Oracles)이란 호평을 들으면서 추종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따라서 여러 쉐를 거듭하여 출판되었다. 그러나 캠벨의 신약성경이 약식 세례를 베푸는 교단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은 예상된 것이었다. 놀랍게도 침례교인들조차도 화를 냈고, 여러 장소에서 화난 군중들이 캠벨의 새 번역을 불태웠다.⁵⁾

침례교회와 분리된 후 1830년대까지, 환원운동은 성장하였고, 자체

찬송가의 필요성이 커졌다. 1835년 캠벨은 『제자들 찬송가』(*The Disciples Hymn Book*)란 제목으로 찬송가를 편집 출판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찬송가는 아마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과 다른 지도자들과도 협동으로 마련된 것 같다. 그러나 스톤은 단지 간접적으로 내용에 관해서만 문의를 받았고, 제목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결국 스톤의 항의에 부딪쳐 제목이 『그리스도인 찬송가』(*The Christian Hymn Book*)로 바꿨다.

해가 거듭되면서 찬송가는 실질적인 이익을 냈다. 캠벨은 이익금을 찬송가를 구입해준 미국교회들을 돕는데 사용하였다. 캠벨은 말년에 저작권을 미국 크리스천 선교사협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 넘겼다. 그때부터 19세기 말엽 절판될 때까지 찬송가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협회의 선교 사업에 쓰였다.

캠벨은 시시 때때로 다른 책들도 인쇄하였다. 그 가운데는 『크리스천 시스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초대 기독교에로의 환원에 관해서, 현대개혁에서 간청된 것으로써』(*The Christian System, in Reference to the Union of Christians and a Restoration of Primitive Christianity, as Plead in the Current Reformation*(Bethany Va.: Printed by A. Campbell, 1839)>와 『크리스천 뱍티즘, 그 전례와 결과』(*Christian Baptism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Bethany Va.: Printed by A. Campbell, 1851)>가 있다. 『크리스천 시스템』은 이전에 발행된 것의 수정판이었고, 『크리스천 시스템』과 『크리스천 뱍티즘』 모두는 이전에 출판된 기사들로 만들어졌다.

설교가로서

As Preacher

알렉산더 캠벨이 1810년 7월 주일에 행한 첫 설교 때에 메시지 전달을 아주 잘해서 많은 교인들이 “왜 그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낫은 설교가 인가”라고 말하게 되어 있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캠벨은 훌륭한

5) 역자 주: 새 번역은 캠벨이 침례교단에서 분리되기 4년 전에 출판되었다.

설교가였다. 첫 해에 캠벨은 106번을 설교했는데, 많은 주제와 본문들이 그의 일기에서 발견되어지고 있고, 그의 『여러 주제들에 관한 소년 소녀를 위한 에세이』<*Juvenile Essays on Various Subjects*(Alexander Campbell at Glasgow University, Nashvill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71)에 실려 있다.

캠벨의 설교들은 본문해설도 아니고, 엄격한 주제설교들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형태에 있어서 논리적이었고, 잘 요약된 것들이었다. 캠벨의 전기를 써서 유명해진 리차드슨(Richardson)은 캠벨의 능력이 상당부분 주제선택과 성경의 권위와 큰 인기를 모으는 호소력(appeal)을 잘 결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캠벨은 논쟁적인 스타일로 말씀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제스처는 거의 쓰지 않았다. 캠벨의 설교는 단순성이 특징이었고, 대체적으로 청중들은 그런 인상을 받았다.

캠벨의 설교의 효과는 전달을 강조한데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는 개념들을 하나로 엮음과 사고의 논리적 전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알렉산더 캠벨은 설교가라기보다는 설교가의 설교가였다고 전해져 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기를 원하는 모델이었다.

그랜빌 T. 워커(Granville T. Walker)는 그의 훌륭한 저술, 『알렉산더 캠벨의 사상에서 본 설교』<*Preaching in the Thought of Alexander Campbell*(Bethany Press, St. Louis, 1954)>에서 급격히 팽창하는 미국의 개척지에서 제자들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 설교의 모범을 환원운동에 제공한 것은 캠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복음을 설교할 때에 논증한 신약성경 믿음에 대한 분명하고 간결한 진술과 기독교의 합리적 개념을 환원운동에 제공하였다. 그것은 단번에 또 동시에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어서 그것의 내포된 뜻들이 무진장하였고, 그러면서도 매우 단순해서 가장 비천한 청중이라도 큰 감화를 받게 될 것이었다.

캠벨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제시하되 이성과 상식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은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었다. 성경은 보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고, 그러므로, 그것이 적절하게만 제시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더 이상의 것은 필요치 않았다. 이런 형식의 설교는 감정에 호소하던 부흥시대에는 흔치 않았던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었다.

교육가로서

As Educator

교육에 대한 알렉산더 캠벨의 초기 관심은 목회를 시작한지 채 십년도 안 된 1818년에 버펄로 신학교(Buffalo Seminary)를 개교한데서 입증되었다. 그의 특별한 목적은 젊은이들을 찾아내서 교육시켜 출범한 운동의 설교가들과 지도자들로 키워내는 것이었다. 알렉산더가 부인 마가렛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컸다. 그는 학생들을 그의 집에 기숙시키면서 개인적으로 가르쳤고, 때로는 아버지 토마스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 기숙사비는 일주일에 1불 50센트였고, 학비는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강습비를 포함해서 3개월 한 쿼터에 5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펄로 신학교는 의도된 목적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1823년에 폐교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설교보다는 사업을 더 선호하였다. 그러나 짧은 존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육에 대한 캠벨의 초기 관심을 입증하는 증표로 남게 된다.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캠벨의 집 지하실 방들에는 아주 오래된 벽지가 붙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벽지가 183년(2000년 기준으로) 이상 그곳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다. 캠벨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지하실 방으로 옮겼던 것이다.

1823년과 1840년 사이에 캠벨은 교육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공립학교들에 대한 국가체계가 그때 형성과정에 있었다. 캠벨은 종종 나라 여러 곳의 교사들 협의회들이나 다른 교육단체들 앞에서 그 주제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캠벨은 1839년 『밀레니얼 하빙저』(*Millennial Harbinger*)에 “하나의 새로운 교육기관”(A New Institution)

이란 제목의 중요한 기사들을 시리즈 형태로 실었는데, 이 때 캠벨은 그의 교육철학을 좀더 충분히 발전시켰다.

드디어 1840년 알렉산더 캠벨은 4년제 베다니(Bethany)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버지니아 주 의회로부터 인가를 획득하였다. 샬로츠빌(Charlottesville)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버지니아 대학교를 보고 크게 감탄한 캠벨은 커리큘럼과 학생생활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베다니를 그 교육기관처럼 만들기를 원했다. 그는 첫 건물들이 들어설 자리로 자기 농장의 땅을 내놓았고, 작지만 능력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여 대학을 만들었다. 그는 1841년 실질적인 대학교 개교 후 20년 이상을 학장으로 봉직하였다.

베다니는 빠르게 제자들 운동의 설교가들과 전도자들을 위한 최고의 장소로, 평신도를 위한 교육센터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자들을 위한 “대학들의 모체”(mother of colleges)가 되었다. 오늘날 몇몇 유명한 최고 교육기관들이 그들의 시작을 베다니에서 찾고 있다.

캠벨은 기독교 사회를 위한 대학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베다니 대학은 문명사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에 기초한 유일한 대학이다. 이 대학은 인위적 신학에 기초한 신학교(a theological school)가 아니며, 성경에 기초한 신학교(a school of divinity)도 아니며, 모든 참된 학문과 참된 학업의 기초가 되는 성경 위에 세워진 인문과학 교육 기관이다.

.....

우리는 진실로 성경을 대학에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교단이며 백성이다. 그리고 기독교계의 모든 교파가 무시하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소중히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가르친다(*The Millennial Harbinger*, 1850, p. 291ff).

설립자의 기독교 연합에 대한 관심은 대학 강당(College Hall)이 주일마다 “여러 교단의 훌륭한 목회자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신앙 강좌와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였다.

베다니 대학은 개교초기부터 제자들 목회자들과 평신도 교육을 위

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급속히 부각되었다. 많은 가정들이 그들의 아들들을 베다니에 보내 존경하는 알렉산더 캠벨 밑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십에서 베다니 졸업생들의 영향력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상당하였고,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경 학자로서

As Biblical Scholar

대학에서 학장으로 봉직하는 것 말고도 캠벨은 교수로써 정기적으로 일련의 아침 성경강좌와 다른 과목들의 강좌를 맡아 가르쳤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명성이 높았다. 그의 학식은 성경연구와 역사 그리고 기독교사상 분야에서 완벽하였다. 캠벨이 미국에서는 물론 영국에서 출판된 관련 과목들에 관한 근간서적들을 대부분 읽었고 또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역사비평의 적용을 통한 성경해석에의 알렉산더 캠벨의 공헌은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서 1816년에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설교에서 캠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법칙으로써 신약성경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였고,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된 권위들이어야 함을 진술하였다.

캠벨은 그리스도인의 주된 교과서로써 항상 신약성경을 생각하였고, 열린 마음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성경말씀을 해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성경책의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에 독자는 저자, 연대, 장소와 기록시기, 수신자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알렉산더 캠벨이 이렇게 젊은 시기에 그와 같은 방법들을 성경해석에 기꺼이 적용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캠벨은 성경을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더 큰 지식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이 가득한 책으로 보았다.

캠벨은 국내의 성경공회(American and Foreign Bible Society)에서 활동적이었으나 1850년 한 단체가 떨어져 나와 미국 성경연합(American Bible Union)을 만들었을 때에 캠벨은 이 성경연합에 가입하였다. 캠벨은 1854년 겨울과 1855년 초까지 성경연합이 그에게 맡겨준 사도행전의 개역작업에 참여하였다. 그것은 새 번역 성경의 일부로써 1855년에 출판되었다.

대중연설가로서

As Public Speaker

종교운동의 지도자로서 또 대학의 학장으로서 캠벨은 그의 남다른 능력 때문에 다른 대학들과 종합대학교들, 그리고 학식 있는 단체들로부터 강연요청을 많이 받았다. 그는 다양한 주제들로 연설하였다. 한 가지는 “앵글로색슨 언어, 그것의 기원과 특성 그리고 운명”(The Anglo-Saxon Language: Its Origin, Character, and Destiny)이었다. (이 강연은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1960년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다른 주제들은 “사형제도에 관한 연설,” “사회 상태 개선에 관한 연설,” 그리고 “천재의 책임들”이었다. 언젠가 이들 강연들은 조심스럽게 준비된 사고체계들이었다. 그가 행한 많은 강연들과 연설들이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제목은 『인기 있는 강연들과 연설들』<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Philadelphia: James Challen and Son, 1863)>이었다.

조직가로서

As Organizer

1840년대 초기에 알렉산더의 추종자들은 전국대회와 선교사협회와 같은 조직들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쏟아냈다. 그와 같은 조직들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1842년 알렉산더는 『밀렌니얼 하빈저』에 전국규모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된 논리적 근거

를 제시하였다.

1849년 10월 22-27일 신시내티에서 드디어 전국대회가 소집되었을 때, 알렉산더 캠벨은 참석할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 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멀리서 보고 싶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어느 행사에서든 그는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정기적으로 회장에 재 선출되었다.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1866년 캠벨이 사망할 때까지, 전국대회가 만들어낸 미국 크리스천 선교사협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국대회들과 선교사협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꾸준히 조직들을 옹호하였다. 실제로 그는 주(州)대회와 전국대회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긴 기사들을 『밀렌니얼 하빈저』에 실었다. 그는 전국대회들이 친교와 영감에 필요할 뿐 아니라, 더 큰 교회의 업무취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사회개혁가로서

As Social Reformer

알렉산더 캠벨은 사회개혁을 교회개혁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으로 신약성경의 기초 위에서 교회들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사회 불의의 뿌리를 뽑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 일의 성공은 연합된 교회를 이루기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믿었다. 요약하면, 연합된 교회는 신약성경 기독교에로 환원할 때 가능할 것이고, 연합된 교회는 사회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그러나 캠벨은 그러한 변화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연합된 교회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당시의 이슈들 가운데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금주, 사형, 공립학교, 노예 제도와 전쟁에 관해서 피력할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당대에 가장 첨예한 이슈들이었던 노예제도의 불의와 전쟁의 사악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을 피력

하였다.

캠벨은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선택이 침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주단체들의 문제와 술 판매금지에 관해서 처음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캠벨은 입장을 바꿔 술 판매금지를 적극 후원하였다. 그는 오직 살인자에 한해서만 사형시키는 것이 주(州)에게 맡겨진 신성한 권위라고 믿었다. 그는 공립학교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후원자였다. 공립학교는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고, 도덕적으로 강하고, 배움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민을 키워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1840년대까지 많은 미국사람들은 노예제도에 관한 이슈가 국민의 삶에서 점점 더 불화를 일으키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주제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뉘어졌고, 교회들이 찢어졌으며, 주요 교단들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 이런 긴장들과 더불어 무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위협이 있었다. 캠벨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들을 용감히 선포하였다.

캠벨은 그가 참석했던 1829년과 1849년 버지니아 주 헌법제정의회 때에 그리고 켄터키 주에 넓게 배포된 소책자에서 점진적인 노예해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밀레니얼 하빈저』지에서도 캠벨은 노예제도에 관한 주제로 여러 차례 사설과 평론을 실었다.

그의 저술들로 볼 때, 캠벨은 신약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도덕성을 동일시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는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을 철저히 연구한 끝에 구약에서나 신약성경에서도 노예제도를 직접적으로 단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캠벨 부자는 노예제도는 부도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비록 그가 개인적으로 노예제도를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캠벨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도를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선언할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믿었다. 동시에 캠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노예들을 소유물이 아닌 동료 인간들로 다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실행된 노예제도가 심한 인권침해라고 선포하였다.

캠벨은 또한 노예제도가 미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게다가 그의 의견에 따르면 노예노동은 남부의 경제에도 이롭지 못한 것이었다. 캠벨은 자신의 금전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했거나 다루었던 모든 노예들을 풀어줌으로써 노예제도에 관한 확신들을 자신의 사생활에서 실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자신의 모범적인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점진적 노예해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독교 공동체가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캠벨은 노예들을 소유하는 것이 교회징계의 문제나 친교의 시금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확고히 지켰다. 결국 캠벨은 그 유명한 사설에서 “노예제도는 견해의 문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노예를 소유하고 안하고는 믿음의 본질이 아님을 밝혔다.

노예제도 문제로 긴장들이 고조되면서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은 남과 북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예측불허의 사태를 내다보면서 알렉산더 캠벨은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였다. 그는 멕시코 전쟁에 반대했었고, 『밀레니얼 하빈저』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다.

캠벨이 전쟁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힌 것은 멕시코 전쟁이 끝난 지 3개월이 된 1848년 5월 버지니아 주(현재 웨스트버지니아 주) 라이시엄(=문화회관), 휠링(Wheeling) 앞에서였다. 반전에 대한 그의 논쟁이 매우 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몇 지도자들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이킬 수 없이 말려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미주리 주 출신 하원의원 조셉 B. 샤논(Joseph B. Shannon)은 1937년 11월 22일자 하원 의사록에 캠벨의 이 연설문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이 연설에서 캠벨은 전쟁은 비록 구약성경에서 허락되었고 또 실시되었지만, 신약성경의 문자와 정신 모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금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양심적으로 전쟁을 허락하거나 종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방어전쟁과 공격전쟁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한다면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을 캠벨은 궤변가들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는 전

쟁이 정의를 세우는 수단일 수 없으며, 전쟁은 논쟁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결국 전쟁이 종식되는 것은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평화회담장에서 이므로, 평화회담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비극적으로 잃고 나서 열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열려야한다고 믿었다. 캠벨은 오늘날의 국제연합이나 세계재판소가 하는 것과 비슷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국제연맹과 세계재판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진실로 타협을 모르는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 앉아 그들의 난제들을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과 모든 설득력을 사용해야 한다.

기독교 복음을 오늘날의 사회이슈들에 적용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그들이 알렉산더 캠벨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신약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자기 시대의 도덕과 정의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과감히 적용하였다.

신학자로서

As Theologian

캠벨은 신학이 수세기에 걸쳐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체계로써 교회를 망쳤다고 믿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신약성경의 실천으로 교회를 환원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그 말씀들 속에서 배워지는 것을 교리와 실천으로 수용하는 것이 본질적이었다. 소위 신학은 성경말씀의 근거 위에서 캠벨의 연합의 계획 속에 어떠한 직접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캠벨은 자기 자신을 신학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성경말씀의 연구 위에 근거해서 교리 질문들에 관한 개인적인 판단을 강하게 믿었다. 캠벨은 신학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술이

나 사역의 성격으로 봐서 신학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알렉산더 캠벨의 신학은 그것 자체로써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글에서 그것을 충분히 다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로알 험버트(Royal Humbert)는 수많은 기사들, 논평들, 토론들, 강연들, 그밖에 다른 저술들로부터 캠벨의 사상을 수집하였고, 캠벨의 신학 내용을 두꺼운 책으로 제시하였다. 『알렉산더 캠벨 신학의 요약』<*A Compend of Alexander Campbell's Theology*(St. Louis: Bethany Press, 1961)>에서 우리는 캠벨의 믿음과 이성,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경, 계시, 교회, 종말론, 그밖에 많은 신학질문들에 관한 견해들을 발견하게 된다.

나오는 말

A Final Word

행동의 사람으로서 알렉산더 캠벨의 인상은 다 같은 하루 24시간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한다. 물론 대답은 철저한 시간 관리와 남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이다. 캠벨은 규칙적으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일했다. 그의 하루의 일과는 인쇄공들이 일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손님 접대하고, 책을 읽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언제나 아침과 저녁에 그는 자신과 가족과 자기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여행하고, 저술하고, 편집하는 것 이외에도, 캠벨은 여전히 농장과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알렉산더 캠벨의 두 번째 부인 세리나 캠벨(Selina Campbell)은 그녀가 쓴 책, 『부인이 쓴 알렉산더 캠벨의 가정생활과 회고록』<*Home Life and Reminiscences of Alexander Campbell by His Wife*(St. Louis: John Burns, 1882)>에서 자기 남편의 폭넓은 관심사들에 관해서 말하였다. 그녀는 캠벨이 공공복지, 도로개선, 농업경작에 관심을 보였다고 적었다. 그녀는 캠벨이 웰스버그(Wellsburg)에 이르는 도로건설과 지역

에서 가장 우수했던 양떼의 품질개선에 보인 노력들을 예로 들었다.

알렉산더의 관심들은 실로 끝이 없었다. 캠벨은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을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에 관계없이 언제나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캠벨의 집은, 나이에 관계없이, 멀고 가까운 곳에 관계없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휴양지가 되었다. 한번은 캠벨이 아이오와(Iowa) 부족의 인디언 소년을 8~9년 동안이나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킨 일도 있었다. 그 후 소년은 고향에 돌아가 그의 부족을 도왔다. 또 다른 경우에는 꽤 중요한 인물인 어느 멕시코 장군이 캠벨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 갔는데, 후에 그는 자기의 두 아들들을 베다니 대학에 입학시켰다.⁶⁾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생애를 자기 아버지 토마스의 생각들을 실행하고 확대시키는데 헌신하였다. 그 생각들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 종교독립선언문이었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었다. 마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몇 년 전에 새 공화국의 국민들에게 자치에 모험을 하도록 도전했던 것처럼, 캠벨 부자는 그들에게 기독교 발전에 모험을 하도록 도전하였다.

기독교인들은 과거 유럽의 해묵은 다툼의 장애물들을 던져버리고, 사도교회의 일치, 자유, 단순성 그리고 순수성으로 옮겨가야 했다. 알렉산더 캠벨은 강단과 편집책상에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관심사를 심사숙고하였다.

비록 캠벨이 우리 사회의 끝없는 복잡성을 관망했더라도, 그는 실망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쉬운 낙관주의를 포기하거나 사회가 교육, 기술, 경제경영과 정부의 힘에 의해서 그 자체를 완전히 재생시킬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때에도, 알렉산더는 우리들을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캠벨은 우리의 유

6) 역자 주: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알렉산더 캠벨의 저택에 잠시 머물렀다. 지금도 캠벨의 저택에는 가필드 대통령이 머물렀던 침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일한 안전이 우리의 죄 많은 본성의 정복과 우리의 영적 삶의 발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었다. 신약성경 약속들에 확고하게 기초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목적들 속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 목적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행동의 사람이었다.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은 많다.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책들 가운데는 로버트 리차드슨(Robert Richardson)의 『알렉산더 캠벨의 회고록』(*Memoirs of Alexander Campbell*(Philadelphia: J. Lippincott, 1868, 1870)>, D. 레이 린드레이(D. Ray Lindley)의 『자유의 사도』(*Apostle of Freedom*(St. Louis: Bethany Press, 1958)>, 해롤드 L. 룡거(Harold L. Lungert)의 『알렉산더 캠벨의 정치윤리』(*The Political Ethics of Alexander Campbell*(St. Louis: Bethany Press, 1954)>> 그리고 편집자 페리 E. 그레삼(Perry E. Gresham)의 『베다니의 현자: 광복피륙 속의 개척자』(*The Sage of Bethany: A Pioneer in Broadcloth*(St. Louis: Bethany Press, 1960)>>가 있다. 또 다른 자료는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 『크리스천 스탠다드』(*The Christian Standard*), 『크리스천 에반젤리스트』(*The Christian-Evangelists*) 그리고 『제자들』(*The Disciple*)과 같은 잡지들에 가끔씩 실리는 캠벨에 관해 쓴 중요한 기사들 속에서 발견된다.

1810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서약

On Profane Swearing

해설

알렉산더 캠벨이 쓴 글 가운데 최초로 출판된 것은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군의 주간신문 『리포터』(*The Reporter*)에 실린 에세이였다. 1810년 6월 28일자에 실린 “에세이 7번”(Essay Number Seven)은, 캠벨이 22살 때에, 지방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맹세습관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었다(From Richardson’s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 Vol. 1, pp. 292-293).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맹세

On Profane Swearing

여러분에게 이 주제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에 한 가지 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악습에 관해서 몇 가지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젊은이들은(필자는 이 젊은이들을 신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가공할 악습 때문에 유죄합니다 - 제 뜻은 품행이 바른 숙녀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맹세를 말하며, 이 악습은 그분들에게 가장 모욕적이며 불쾌한 것입니다.

필자는 말합니다. 필자는 맹세하는 자들을 신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자격을 갖췄다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별력 있는 저자가 말하기를, 필자는 그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맹세에 중독되어 말할 때 맹세라는 단어를 섞어 사용

하는 자들은 결코 신사들로 간주될 수 없다. 그들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자들이며, 소위 좋은 친구사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습이며, 모든 면에서 악할 뿐 아니라, 저속한 것이다.”

일찍이 인간본성에 수치가 됐던 모든 악습들 가운데, 일찍이 인류가 도달했던 광기와 어리석음의 모든 극치들 가운데, 일찍이 인간개성을 검게 물들었던 모든 불손하고 비신앙적 행동들 가운데, 이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악명 높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고, 매우 주제넘고 오만하고 불손해서 조심성 없이 부주의하고 불경스럽게 천사들이 예배하고 성도들이 흠모하며 또 마귀들과 사악한 인간들조차 그 앞에서 공포와 번뇌와 낙담으로 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없고, 하늘의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하나님을 가볍고 하찮고 사악한 일에 불러들이는 것이 없고, 그들이 행하고 범하는 모든 음란하고 상스럽고 야비하고 천박한 행동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없고, 설상가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동료 피조물을 불변의 친구를 혹은 그럴지도 모르는 어떤 짐승이나 무생물을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고 별주시라고 비는 것도 없습니다.

이 악습이 그것에 분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쾌하게 하는 것은 품행이 못되고, 부도덕한 친구들이 그들 사이에 경건한 사람이나 숙녀들이 있으면, 전자에게는 굴욕감을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후자에게는 자신들의 용맹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면서, 더욱 굳게 맹세하는 버릇에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증하고 불쌍한 여러분이여, 이 악습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를 깎아 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미덕으로 번뜩이는 숙녀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의 동행을 피하고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자는 이 세상에 퍼져있는 모든 악행들보다 유독 이 악행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고, 왜 하필 이 유혹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맹세하느냐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그가 배운 나쁜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 그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험은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못된 악습을 버리고 못 버리는 것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렸으며, 결연한 의지로 조심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816

율법에 관한 설교

The Sermon on the Law

해설

이 유명한 설교는 1816년 9월 1일 캠벨이 27세 때에 베다니에서 멀지 아니한 크로스 크릭(Cross Creek)에서 모인 레드스톤 침례교회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 때에 행한 것이었다. 후에 캠벨은 자신을 “지금의 개혁운동”(the present reformation)에 뛰어들도록 힘을 실어준 것은 이 설교에 관해서 일어난 논쟁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실린 그의 설교는 크게 요약되기는 했으나 설교자의 핵심요점들을 제시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캠벨은 후에 이 설교를 팸플릿으로 출판하였고, 또 1846년 9월판 밀레니얼 하빙저<*The Millennial Harbinger*, Series III, Vol. III, September, 1846, 493쪽 이하>에도 실었다.)

율법에 관한 설교

The Sermon on the Law

본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롬 8:3).

어휘들은 개념들과 사상들의 표식들입니다. 어휘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개념들이나 감정들은 전달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쉽게 되는 어휘들은 다른 연관된 상황들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들 가운데 하나는 쉽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휘의 다양한 사용들과 형용어구들의 결과에서는 그 어휘에 따라붙는 개념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율법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성경말씀의 일반적인 지식을 적용하면, 이런 종류의 모든 어려움은 쉽게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구절에 들어있는 가르침을 밝혀내고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방법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1.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성경말씀에서 우리가 *율법(the law)*이란 말에 어떤 개념들을 첨부하고 싶어 하는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율법(the law)*이 성취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적해내야 합니다.

3. *율법(the law)*이 그 목적들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4. 하나님께서 *율법(the law)*의 상관적 결점들을 어떻게 제거하셨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제들에서 분명하고 절실하게 또 전적으로 공평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그와 같은 결론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포함된 교리를 의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첫째로, 본문의 말씀과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성경말씀에서 우리가 *율법(the law)*이란 말에 어떤 개념들을 첨부하고 싶어 하는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율법*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행위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의 때까지 족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전체 계시를 랍비들 혹은 율법사들의 전통들과 계명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정관사를 붙이면 의미를 바꾸거나 혹은 적어도 그 의미를 결정짓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the law)*이란 말들은 어느 정도

설명 없이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저술들을 “율법서”라고 불렀으나, 율법이란 말이 갖는 본래의 뜻으로 그 단어를 결코 쓰지 않습니다. 아비아의 통치 때(역대기 하 14:4)에 이르러서 비로소 율법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모든 법(the whole legal dispensation)이란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때까지는 율법이란 말이 어느 정도 한정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를 입증할만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한정된 정의 없이 구약성경에서 약 30회 가량 사용되었고,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을 지시하는 형용어구들에 있어서조차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하늘 통치의 교리들이 전파되고 신약성경에서 모세가 제정한 법과 비교되기 시작할 때에 율법(the law)이란 말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어떤 구별된 형용어구나 한정된 정의 없이 사용될 때에는 그 말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한 율법(Mosaic dispensation)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통의 의미에서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대략 150회 정도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한 모든 법을 두고 말합니다. 오늘날 모세의 법은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지거나 구분됩니다. 율법을 이렇게 나누는 일은 사도시대에는 없었던 일이고, 물론 사도들에 의해서 결코 사용되지도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 관하여 사도들이 전한 정확한 교리지식을 얻는데 전혀 무가치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을 당황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게 한 것은 율법을 쇠신하려 한 오늘의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몇몇 십계명의 교훈들이 재천명되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진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부분의 주제를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원리들 즉 모세의 율법에 관한 우리의 관찰 속에 결코 포함시키지 아니한 계명들(commandments)과 법들(laws)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것들은 모세의 율법이라 불리는 성경 속에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

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기초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 속에서 이 교훈들은 모든 법과 예언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이들 예수의 계명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반면, 때때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법(the legal dispensation)과 수정된 모든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the law)이 성취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적해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의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의와 영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전자가 없으면, 후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것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율법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갈 3:21).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밝힌 사도의 이 증거들은 어떠한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의와 영생은 율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둘째로, 율법은 죄의 악성과 결점을 들춰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것 아래 있는 것들 즉 어떤 행위들은 죄가 많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죄 많은 행위들에 율법은 해설적인 이름을 붙었는데, 첫째는 도둑질이라 불렀고, 둘째는 살인이라고 불렀으며, 셋째는 간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은 이 행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해롭고, 죽음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악성이 얼마나 넓고, 그것들의 결점이 얼마나 큰지를 율법은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후대를 위해 남겨졌고, 다른 수단이 개발되었습니다.

셋째로, 율법은 이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적절한 법칙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법칙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단지 일부분에게 주어졌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유대나라에 주어졌고, 다른 아무 나라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율법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에게조차도 율법은 생명을 주는 가장 적절한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의 법칙으로써 모범적 행동이 훈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우주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은 완전한 산 모델이나 모범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아래서 가장 모범적인 특성들은 그것들의 뚜렷한 불완전성이었습니다.

일부다처, 이혼, 노예, 보복 등이 그 율법아래서 눈감아지는 만큼 오랫동안 율법에 가장 잘 따르는 자들의 삶이 빠른 불완전성들로 얼룩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에 제안한 세 번째 주제로 바빠 옮기려합니다. 그것은 율법(the law)이 이들 목적들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는 율법이 이들 목적들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인간의 약함 때문이었다고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다.” 율법의 결함들은 하나의 상관적 종류(a relative kind)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약하거나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들에서는 기초적이고 그림자적인 다가올 선한 것들의 상징들이었습니다. 만일 율법이 결점을 갖지 않았다면, 복음이 설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두에서 제안한 네 번째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the law)의 상관적 결점들(relative defects)을 어떻게 제거하셨는가 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체의 형상으로 보내심으로 그 모든 결점들을 제거하시고, 죄를 위해서, 육체 가운데서 죄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는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 곧 아브라함의 모든 신령한 씨가 의와 영생을 발견합니다.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율법의 행위나 지킴에 의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남은 것은 ... 생명을 주기에 적절치 아니한 율법의 실패가 어떻게 구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범이 훈계보다 더 능력 있는 교사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까지 결코 목격되지 않았던 완전한 인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훈계에 그것들이 전에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형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솔직하고 반성하는 마음에 그들 자신들을 분명하고 절실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결론들을 위의 전제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첫째, 이제까지의 내용으로 봐서 율법과 복음 즉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essential difference)가 있다는 것이 뒤따릅니다.

율법과 복음보다 서로의 의미에 있어서 더 별개인 두 단어들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하에 서로 상반되게 구별됩니다.

둘째, 둘째로 우리는 이제까지의 내용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도께서 이 결론을 이끌어낸 전제들은 이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진술한 것들과 같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사도는 그들이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에서 해방되었고,” “법에 대하여 죽었고,” “법에서 구원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셋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

키기 위해서 율법을 설교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위임과 그 위임에 따라서 그들이 실천한 것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설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목회자들로 세워졌습니다.

...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설교준비나 혹은 복음을 영접케 할 목적으로 율법을 설교한 예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앞서 언급한 전제들로부터 연역해낼 수 있는 네 번째 결론은 율법이나 구약성경에서 나온 모든 논쟁들이나 동기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유아들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권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사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지키기 위한 준비로써 거룩한 날들이나 종교적인 금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 칠 일째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민법으로 어떤 종교형태를 세우기 위해서 -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유대관습들을 따르거나 모방하는 것에 신명나도록 유대법에서 빌려온 모든 이유들과 동기들이 기독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에 반대되며, 근본에 무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결합되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들은 것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로 경배하며, 그분을 위대한 예언자로 받아드리며, 율법에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분을 우리들의 의의 주님으로 받아드리고, 그분의 모든 훈계들과 그분이 제정하신 것들에 가장 성실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합시다. 그분에 합당하게 건도록 합시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역자로 그리스도를 대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육체

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적대자에게 책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여전히 반율법주의의 혼해빠진 권고를 해야 한다면, 혹은 은혜가 풍성키 위해서 우리가 죄에 살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선한 것이 찾아오도록 악을 행했다면, 혹은 믿음으로 율법을 무익하게 했다면, 책망 받을 것이 없는 행동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를 존중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침묵하게 합시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가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받아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 걷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모든 길들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1823

『크리스천 뱍티스트』지 머리말

Preface to The Christian Baptist

해설

1823년 7월 4일, 버지니아 주 버펄로(현재 웨스트버지니아 주 베다니)에서 알렉산더 캠벨은, 35세 때에,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기간행물 『크리스천 뱍티스트』지를 처음 출판하였다. 다음의 글들은 “머리말”에서 발췌한 것으로써 젊은 편집자의 출판정신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캠벨은, 침례교단을 떠나면서, 이 잡지의 발행을 1830년 7월 5일, 만 7년 만에 마감하였고, 새로운 잡지 『밀레니얼 하빈저』(*The Millennial Harbinger*)를 1830년 1월 4일 시작하였다(From *The Christian Baptist*, Vol. 1, No. 1, July 4, 1823).

『크리스천 뱍티스트』지 머리말

이제 우리는 정기간행물을 시작한다. 이 잡지는 기독교내의 어떤 특정 교파 즉 그것의 분명하고 공언한 목적이 진리를 몰아내고 과오를 들어내 보이는데 있는 특정 교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성경이외에 어떠한 지배도 받지 않는 잡지가 읽혀질 것인가 혹은 교파열정과 야심에 찬 사제직의 유해한 입김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것인가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자신에 관한 한, 우리는 제의를 받았거나 기대될 수 있었던 모든

금전적 유인을 언제나 거절해왔고, 진리를 전파하려는 우리의 노력들에 사심이 없었다는 증거 즉 그것이 주어진 이후 오랫동안 대부분의 케이스들에서 인정받을 그와 같은 증거를 갖고 있다.

.....

이 잡지는 주제들의 한 범위를 다룰 것이고, 우리가 보아왔던 다른 어느 정기간행물의 그것들과는 좀 다른 진로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 간행물 자체는 가장 평이하고 가장 뜻이 분명한 표현이 사용될 것이다. 주장이나 진술을 뒷받침할 사실들과 문서들을 소개할 때에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진실이나 진짜가 아닌 것들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진실로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감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드러났다면, 우리는 그같이 주장된 내용들을 반증하는 정중한 글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서약한다.

.....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자처하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정당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일찍이 그것을 설립한 자의 목숨과 그것의 친구들과 주창자들의 매우 많은 목숨들과 맞바꾸는 그런 믿음의 주창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몇몇 사람들의 감정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들에게 오로지 한 가지 요구 - 즉 공평하고 참을성 있게 청취해달라는 요구 - 만을 갖고 있다. 그 대신, 독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드릴 텐데, 우리는 이성과 계시에 비추어 가장 명백하고 가장 만족할만한 증거가 아니면 어떠한 것도 찬성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다.

헌정

신구약 성경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고, 신약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차별 없이, 모든 분들

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모든 가르침과 실천들을 기꺼이 알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모든 종교 문제들에 관해서 그들 스스로 성경말씀을 연구해야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시는 분들, 모든 인위적인 교리들과 명령들을 거부하려는 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믿음을 굳게 잡고, 진리에 복종하려는 분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애정을 담아 이 잡지를 내놓는다.

편집인

1823

근대 선교사 조직들에 관하여
Concerning Modern Missionary Schemes

해설

알렉산더 캠벨이 『크리스천 뱍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에 쓴 글 가운데 상당부분이 인습타파를 위한 것이었다. 신약성경의 빛에서 그는 교단기관들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 등 당대에 실행되고 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의 글은 초기 캠벨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전형적인 논평이다(From *The Christian Baptist*, Vol 1, No. 2, September 1, 1823, pp. 14-17).

근대 선교사 조직들에 관하여

그리스도가 보는 앞에서 떠나가 다가오는 통치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된 칠십인 문도는, 파송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기사(놀람)와 표적으로 능력을 부여받았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라. 사도들은 마지막 위임에서 전 세계로 파송되었다. 그러나 이어서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을 때까지 임무수행을 개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해서, 적대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가장 깊게 뿌리박은 선입관들을 고치고, 그들의 가르침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을 만족시킬 기사(놀람)와 표적으로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다.

.....

모든 근대 선교사들의 성공은 이러한 사실들과 일치한다.... 고대 국가들에서 다른 철학자들이 그들 각자의 체제, 즉 그들의 전임자들을 일부 침해하는 각각의 새로운 체제에 몇 명의 제자들을 얻는데 성공한 것처럼, 근대 선교사들도 다른 이교 신학체제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체제에 몇몇 개종자들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하나의 믿을만한 특성으로, 신약성경에 설명된,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 거둔 성공과 같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무엇도 불가능하다. 혹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이사라, 안디옥, 혹은 로마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의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어느 이교의 나라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면 근대 선교사들의 수단으로 이교인을 개종시키려는 시도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그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미얀마 선교사들

뉴욕 유티카(Utica)에서 6월 11일 수요일에, 조나단 웨이드 목사(the Rev. Jonathan Wade)와 그의 배우자가 침례교총회 관리이사회(a committee of the board of managers of the Baptist General Convention)로부터 미얀마 제국(Burmah empire)의 선교사들로 따로 세움을 받았다. 그 때 흥미로운 설교가 나다니엘 켄드릭 목사(the Rev. Nathaniel Kendrick)에 의해서 선포되었다.... 알프레드 베네트 목사(Rev. Alfred Bennett)가 성결(안수)기도를 인도하였고, 다니엘 하스칼 목사(Rev. Daniel Hascall)가 웨이드 목사에게 권면하였다. 그리고 조엘 클라크 목사(the Rev. Joel W. Clark)가 그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예배의식은 애트킨 목사의 교회(Rev. Mr. Atkin's meeting-house)에서 진행되었다....

편집인 노트 - 서부(개척)지역 침례교인들은 동부에서 매우 성스럽게 치른 이런 과시적인 허례의식의 전례들을 모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상당히 무시당한 작은 책 소위 신약성경의 정신

을 그들이 오히려 귀중히 여기고, 그 스타일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Rabbi, or Reverend)이라 불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높은 명성을 가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것이다.

1823

성경공회들에 관하여
Concerning Bible Societies

해설

알렉산더 캠벨은 독자들이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들”에 회신을 쓰면서 아이디어를 얻곤 하였다. 그 같은 회신 중의 하나가 성경공회들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캠벨은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 국내외 성경 공회(American and Foreign Bible Society)에서 활동하였고, 1850년부터는 미국 성경 연합(American Bible Union)에 가입하여, 1854년 겨울과 1855년 초까지 사도행전의 개역작업에 참여하였다. 그의 번역은 새 번역 성경에 포함되어 1855년에 출판되었다(From *The Christian Baptist*, Vol 1, No. 5, December 1, 1823).

성경공회들에 관하여

귀하께, 귀하의 6일자 서신은 틀림없이 도착하였습니다. 보내준 서신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성경공회들을 다른 알려진 조직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귀하께서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좀 더 깊이 아시게 되면, 이 주제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시게 되리라 봅니다. 우리는 머리 전체가 병들었고, 가슴 전체도 근대 기독교 모습에 허약해 있다는 것을 - 잘 알려진 조직들의 많은 수가 일시적 정신착란 즉 열 있는 사람의 거친 몽상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온전히 확신합니다.... 열이 나는 몽상

중에 있는 사람은 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확신시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만큼 알려진 조직들에게 그들 사업들의 어리석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공회들에 관해서 그들은 이 시대의 모든 기관들 가운데 가장 걸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성경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리는 기관의 성격과 목적, 탁월성과 영광을 이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영광이 인간의 단체에 빼앗긴 것을 보면 슬퍼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기관, 즉 교회의 탁월성을 흉내 내고, 교회의 자리를 대신할, 단지 인위적인, 기관에 의해서 교회의 특성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일 년에 20권의 성경전서나 20권의 신약 성경을 단지 보급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많이 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것의 혜택이 어떤 통로로 흐르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록 서기도 필요 없고, 회장도 필요 없고, 그것의 혜택을 관리하는 자들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걸치레와 이 종교의 쇼를, 그것들이 유래한, 자만심과 허영심의 종교들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교회의 왕은 모든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
편집인

1824

사례비를 받는 성직자들에 관하여
Concerning a Paid Clergy

해설

캠벨은 거만하고 자만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성직자들을 책망하는 글을 『크리스천 뱍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지에 꽤 많이 실었다. 이 글에서도 캠벨은 문제의 상당부분이 성직자들이 물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있음을 말한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로지 설교하고, 생활비를 다른 곳에서 마련한다면, “더욱 순결한” 교회가 등장할 것이다. 나중에 캠벨은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수정하였다(From *The Christian Baptist*, Vol. 1, No. 7, February 2, 1824).

사례비를 받는 성직자들에 관하여

돈은 대중의 기관들에서 연합의 끈(bond)으로써 뿐 아니라 대중의 교회들이 서 있는 참으로 반석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회 연합이 제안되기 전, 확인할 주된 요점은 우리가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가 소집을 알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make up) 있는가를 알아보자고 신중한 성도는 말한다. 모임이 소집되고 질문을 받는다. “당신은 얼마를 내겠습니까?” 설문지가 돌려진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표시를 한다. 상당한 금액이 약정된다. 때때로 청원서가 그들 연합을 확정짓고, 그들이 약정된 금액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을 민법이나 혹은 권력의 힘으로 부여받

을 법인의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부에 제출된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것은 실시된다. 교역자가 온다. 그들의 사교적 기도들, 찬양들, 성례들, 설교들과 금식들은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은 답례를 받는다. 그러나 무엇이 주동력(主動力, *primum mobile*)이었는가? 무엇이 동인(動因, moving cause)이었는가? 돈(Money)이다. 이것의 입증으로써, 만일 이주나 사망으로 회중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 돈은 실패한다. 교역자는 선교여행을 한다. 그는 더 큰 소리의 부름을 얻는다. 그는 이동한다. 실패한 돈이 원인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동결될 때, 모든 사교적 기도들, 찬양들, “성례들”, 설교들과 회중의 금식들이 멈춘다. 돈 즉 기초가 무너진다. 그것 위에 세워졌던 상부 구조물이 내려앉는다. 독자여,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그대는 돈이 근대 종교기관들의 기초가 아니라고 감히 말하는가? 그것은 돈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돈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실패할 때 끝난다. 돈은 운명적인 사제를 위해 이솝의 우화집을 산다. 돈은 그를 사제직에 성별 되게 구별한다. 돈으로 체결된 계약이 그와 교구를 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근거 위에 세워지고, 다른 수단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그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용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페루의 모든 광산들보다, 오피르(Ophir)의 모든 금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근대 성직자들은 그들이 돈 때문에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매우 훌륭하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해왔던 만큼의 설교를 하고, 게다가, 그들의 진실성에 어떠한 혐의도 없을 것이라면 말이다.

1826

새 번역 성경에 대한 변호
An Apology for a New Translation

해설

다음의 글은 알렉산더 캠벨이 1826년 1월 말에 캠벨(Campbell), 맥 나이트(MacKnight), 닷드릿지(Doddridge)가 번역한 신약성경을 수정판으로 출판하면서 쓴 총론 서문에서 발췌한 것이다(From *The Sacred Writings of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Commonly Styled the New Testament*, Bethany, Brooke Co., Va.: A. Campbell, 1826, pp. iii-xi).

새 번역에 대한 변호

살아있는 언어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복장에서 유행들이나 관습들처럼, 한 때 최신으로 유행했던 어휘들과 어구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색하게 되고 잊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다. 그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1-2세기 내에 한 때 그것들에 두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기에 이른다. 아니, 어떤 것들은 그것들이 가졌던 최초의 의미와 다를 뿐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만일 죽은 언어를 세대를 거쳐 보존하고 있고, 과거시대의 어휘들과 문장들을 아버지 대에서 아들 대에로 전달하는 책들과 양피지들이 없다면, 한 세대의 살아있는 언어는 그것이 2-3백년 후에 겪는 것만큼 많은 변형을 겪게 될 것이고, 많은 쇠신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확하고 우아하다는 평을 듣는 스타일로 쓰인 책들은 언어에 안정성을 기여한다. 그것들이 언

어에 기여하는 바는 마치 성채들이나 요새들이 시골에 기여하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식시키는 시간의 손에서 부식되어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들은 침략이나 혁명에 대항하여 방어하기를 그친다. 그리고 책들은, 아무리 살아있는 방언의 표준이라는 평을 듣고, 아무리 많이 읽히고 찬사를 받더라도, 변덕과 참신함에 대한 갈망, 즉 사람의 마음의 특성에 대항하여 오랫동안 논쟁을 지속하지 못한다.

.....

그러나 살아있는 언어에서 이 꾸준한 변화는 23백년마다 새로운 번역들, 혹은 기존 번역들의 수정들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영어 방언이 지난 2백 년 동안 그것이 동일기간동안 전에 겪었던 변화보다는 덜 변했을지라도, 제임스 1세의 통치이후 일어났던 변화들은 새로운 번역을 정말 지금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비록 왕의 부름을 받은 번역가들이 당시 영국에서 쓰인 언어로 충실하고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할지라도, 이후 영어 언어에 지금까지 유입된 변화들은 많은 경우들에서 그 번역을 부정확하게 만들 것이다.

.....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성경이 처음 출판될 때에는 원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져왔다. 그러나 기독교의 어떤 교파에서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모든 교파들이 종종 오류를 발견하고 있다. 아무도 모든 문장에서 기꺼이 그것 곁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성경은 신앙논쟁이 정점에 있을 때에 만들어졌고, 번역가들의 교리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많은 경우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교리들을 담고 있는 어휘들과 문장들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

단체나 파당에 휘둘리지 않고 번역을 시도하고 성취하는 개인들한테서 충실하고 명쾌한 번역을 얻게 될 것은, 그들이 국가 혹은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임스 왕과 왕실이 소집하고 공공 재

정에서 비용을 지불 받은 학자들, 즉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뒤흔
들어 놓은 불협화음의 요소들의 한 부분(*one part*) 때문에 소집된 사
람들한테서 기대하는 번역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

.....

그러나 새 번역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정확한 번역에 필요한
도구들이 킹 제임스 성경이 처음 나타날 당시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에 기인된다. 원본에 대한 이해가 그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낫다. 매우 많은 비평가들의 상충된 의견들이 상당히 건전
한 비평적 지식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지난 세기 이전에 활동했던
어떤 번역가도 갖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매우 잘 다
루어져왔고, 또 뛰어난 저자들에 의해서 매우 자주 논의되었기 때문
에 우리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

피상적인 독자들에게는 이 개역성경에 들어있는 개선된 많은 내용
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일 것이지만, 좀더 깊이 생각하는 분
들에게는 가장 미미한 수정들 가운데 몇 개만으로도 많은 구절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빛과 광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개역
에 대해서 모든 독자는 각자 자신의 척도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
리스도인들의 덕 세움과 위안이 이 개역성경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또 이 개역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과의 부지런한 비교에 의해서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우리는 다만 말하길 원할 뿐이다.

.....

만일 영감으로 된 말씀들에 대한 개역성경의 출판이 교과목적의
관점을 갖지 아니한 출판인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
각한다, 우리가 행한 모든 대중연설들과 우리가 신앙의 주제로 저술
한 모든 글에서 공정했다는 것을 호소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목
적의 관점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기쁘다. 우리는 하늘 아래 있는 어떤 인위적 조직, 신조,
혹은 예식서에 대한 모든 애착 혹은 편파성을 포기하였고, 또 다시
포기한다. 우리가 하는 노력의 모든 범위, 목적, 그리고 취지는 그리
스도인들이 이성적으로 깨닫고, 연합되고, 행복한 것을 보는 것이다.

모든 교파들은 사도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며, 모든 교파는 그 벗어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왜냐하면, 기독교는 본질상 교파와 모든 교파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교파를 세우거나 인위적으로 첨가된 것들 속에 현존하는 그 어떤 것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도 감히 하지 않으며, 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다. 현존하는 교파에 대한 어떤 편애나 선호에 관한한, 우리는 그들이 사도들의 전통들을 갖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이것들을 신속하게 취하는 한, 우리도 취하고, 그들이 이것들을 버리는 곳에, 우리도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그들을 대부분 반대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성을 반대하고 있고, 또 그것에서 떠나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인간으로서 자기감정들, 편파성, 명성 그리고 세상적인 이해를 생각하는 한, 만약 사도들의 저술들이 필자의 판단에서 그렇게 하도록 인정한다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필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웨이커교도, 만인구원론자, 소시니아파인, 혹은 다른 어떤 교파교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세상 어느 교파의 목적을 돕기 위해서 부사, 전치사, 혹은 감탄사의 의미에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을 것을 가장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독자가 필자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도록 인정을 해 줄지는 필자는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자기 마음의 진실 되고 변함없는 느낌들을 표현하는 것이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 개역성경을 정직하게 검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의 저자들을 인도하시고 페이지마다 영감하신 성령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나누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한다.

1827

여행에서 느낀 점

Remarks on a Tour

해설

캠벨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여러 여행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기를 원했다. 1827년 이른 봄 캠벨은 여행에서 돌아왔고, 독자들을 위해서 여행에서 받았던 인상을 장황하게 서술하였다. 그가 발톤 W. 스톤을 처음 만났던 것도 1824년에 있었던 유사한 여행에서였고, 발톤 W. 스톤의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 Movement)을 접하게 되었다(From *The Christian Baptist*, Vol. IV, No. 9, April 2, 1827, pp. 62-64).

여행에서 느낀 점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시는 관심과 도움의 손을 통하여, 4개월 동안에 걸쳐 오하이오(Ohio)주, 켄터키(Kentucky)주, 인디애나(Indiana)주, 그리고 테네시(Tennessee)주들을 순회하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귀가하였다. 이 여행 중에 필자는 옛 친구들과 지인(知人)들을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수의 새로운 동지들을 얻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쁨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아픔도 겪었다.

.....

우리는 사람들과 신앙에 관한 지식을 크게 늘렸고, 대중에게 덕을 끼칠 많은 자료들을 듬뿍 안고 귀가하였다. 이 자료들은 신앙세계의

실제적 상황에서 수집되었고, 그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데는 큰 재주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 본다.... 필자는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전부터 주의를 환기시켜왔던 주제들에 관해서 신앙세계에 더 잘 피력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수많은 주제들에 관해서 다양한 질문을 받았고, 신앙체험, 신앙에 관한 회의(懷疑), 회심과 타락의 역사들에 관해서 들었다. 가족 신앙, 가족징계, 기독교회들, 평의회들, 회의들, 그리고 노회들, 토론과 투쟁들, 부흥과 쇠퇴들, 박해와 승리들, 종교전쟁과 소동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매우 평범하고 독특한 것까지 너무 많고 다양해서 지금 필자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신앙세계에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첨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신앙(종교)이라 불리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관해서 우리는 매우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있어 왔다. 아가서의 모든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해서 설교하는 알레고리 해석가로부터 바울의 파선과 말타에서의 구사일생을 놓고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을 설명하려드는 신비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또 매일 꿈과 환상 그리고 황홀경과 계시들에 대해서 말하는 영감 받은 열광주의자로부터 헛소리 지껄이는 의역가(意譯家)와 말 많고 지루한 주석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완전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우리는 성서비평에 관해 아는 체하는 박사들, 율법과 증거에 관한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비평가들, 신학학문의 심오한 해석가들, 악덕과 부도덕에 대항해서 열변을 토하는 자들, 침착하고 냉담한 형이상학자, 경험이 풍부한 설교가, 그리고 박식한 감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

침례교단의 가장 일반적으로 참되고 정당한 보고는,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네 개의 회중 또는 교회들이 한 명의 목자의 목양 아래 있다. 그는 매월 네 번째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그 교회들을 방문한다. 교회의 능력에 따라 그들은 매월 한번 만난다. 그들은 토요일 12시 만난다. 기도로 모임을 개최하여 사회자를 임명한 후에 업무처

리에 들어간다. 만약 예정된 업무가 없으면, 게으름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 업무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발의로 침례 후보자들의 경험을 청문한다. 각 교인은 침례 후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에 배심원이 된다. 그리고 사례의 성격에 따라서 평결이 이루어진다. 만약 그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면, 그는 침례를 받아도 좋다는 지시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처리가 끝난 게 되고, 설교를 듣거나 어떤 정계의 사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을 인용하기만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그 주간 첫날은 찬송가로 알려진 무언가의 몇 소절들을 노래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곡을 붙인 교회의 신조들이다. 그 다음은 기도 또는 산문으로 바뀐 찬송이 이어지는데, 이것들은, 바꿔 말하자면, 기도의 모양으로 옷을 입힌 형제들의 견해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가 이어진다. 그 설교가운데서 한 방울의 포도주가 1갤런(3.8리터)의 물에 떨어져 번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배불리고 나면, 형제들은 한 달 동안 집에 돌아가 이 마음의 양식을 반추하고 소화시킨다.

.....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로 보아도 현 교회전통(present order of things)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 수많은 개인과 몇몇 교회들이 있다는 알고 기뻐한다.

.....

이들 의견들은 선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법자들에 아첨하려는 것이 아니며, 무혐의자들을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수치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며, 의로운 자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며, 고집불통인 자들을 달래려는 것이 아니며, 자유주의자들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며, 정통과 사람에게 아첨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마땅히 그래야 할 때에, 경고하고, 타이르고, 책망하고, 논박하고, 칭찬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인정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그분을 칭찬한 자이다.

편집인.

1827

연약한 반대への 유력한 대답
Potent Reply to a Weak Objection

해설

『크리스천 뱁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에서 발췌한 이 짧은 글은 알렉산더 캠벨이 "무엇에든 항상 반기를 든다"는 문제 제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좀더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대목이다(From *The Christian Baptist*, Vol. IV, No. 12, July 2, 1827, p. 14).

연약한 반대への 유력한 대답

"모든 것을 끌어만 내리고, 어떤 것도 바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크리스천 뱁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지를 향해 자주 거론된 비판이다. 그 부분에 대한 한 영국신문의 다음의 답변은 그 문제에 관한 우리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 같은 것들은 전에도 이런 일에 실질적으로 나타났었다.

『크리스천 뱁티스트』지 편집인

"그러나 모든 것을 끌어내리기만 하고, 어떤 것도 바로 세우지 않는다는 비난은,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찬사이다...."

"우리는 바로 세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기독교의 그 훌륭한 구조물은, 여전히 전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신약성서에서 확고하고 눈에 잘 보이게 여전히 서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장벽들과 거꾸집들과 잠동사니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것

들은 그 구조물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구조물의 타고난 정결함, 화려함, 그리고 사랑스러움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건축물이 스스로를 제시하여 우주적인 찬사를 받아 마땅한 대상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신약성서에 공정하고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1829

폐간 소감, 편집자 역사의 일부
Concluding Remarks, Part of the Editor's
History

해설

『크리스천 뱀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지를 여섯 권 만들어냈고, 제자들이 침례교회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징후가 증대하는 것을 안 후, 캠벨은 『크리스천 뱀티스트』지의 폐간과 이보다 적극적인 입장의 새로운 간행물의 시작을 결심하였다. 아래의 글은 『크리스천 뱀티스트』지 마지막 호에 실은 캠벨의 “폐간 소감”이다. 새 간행물, 『밀레니얼 하빈저』(*The Millennial Harbinger*)의 첫 호들은 이미 발간되고 있었다(From *the Christian Baptist*, Vol. VII, No. 12, July 5, 1830, pp. 96-97).

폐간(廢刊) 소감, 편집자 역사의 일부

신앙의 문제들에서 인위적인 권위의 지배로부터 양심을 해방시키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의 연합과 세계 전역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들이 협력하도록, 한 기초, 즉 불멸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수한 설교(speech)를 회복하고, 기독교 세계에서 사도들의 전통(the ancient order of thing)을 회복하려는, 이 최초의 노력을 수반한 성공이 하나님의 인도와 몇몇 친구들의 협력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필자가 독자들 앞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참을성 있게 경청하는 일에 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매우 겸손한 희망들과 이 간행물의 첫 글과 머리글을 썼던 그 날을 간직하고 있었을 뿐이다....

장로교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필자도 교육을 받았고, 존경할 만하고 유용한 천직으로써 목회사역에 기대를 걸었으며, 미래의 삶에 거는 나의 모든 기대들과 전망들이, 나이 21세 때에,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설교를 시작한 거의 시작단계부터 신약성경의 기독교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파의 기독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계속할 수가 없었다. 소속 장로회와 노회(synod)를 개혁시키려다 실패한 부친의 노력은 필자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대한 좌절을 겪게 하였다. 필자는 그것이 소용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알고 포기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믿음과 실천에 관한 규범들(great articles)에 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대중 집회에서 말하였다. 희망 때문에, 사회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겸손한 희망 때문에 필자는 힘썼다. 필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동떨어진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러므로 필자는 농부로서 직업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생존 수단으로 수년 간 이 직종에 종사하였고, 매주일 인위적인 전통들에서 진리를 떼어내고,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우화들을 버리도록 설득하는 일에 힘썼다 - 비록 필자가 힘썼던 것보다는 작은 성공일지라도.

.....

1820년 침례를 주제로 워커(Walker) 목사를 만나라는 간청을 받았을 때, 필자는 그런 식으로 진리를 방어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대략 6개월 동안을 주저하였다. 필자는 자기 자신의 동의를 얻기까지 세 번이나 편지를 받았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 필자가 논쟁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논쟁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필자는 그것이 사회에 미칠지도 모를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곤란들은 극복되었고, 우리들은 만났다. 그것은 필자가 이 세대를 무관심과 영적 무기력함에서 깨우기 위해서 수행되기를 바라기 시작한 그 토론의 효과들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대략 2년 후에 필자는 이 일에 대

한 계획을 생각하였다. 필자는 그렇게 하였고, 그 효과들은 지금 대중에게 미치고 있다.

.....

이 일이 각본대로 실행에 옮겨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변명을 늘어 나야 한다. 일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많이 변해서 우리도 그것들과 더불어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많은 주제들에 관한 우리들의 일련의 글들은 생각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았고, 도중에 더 길어졌다. 두 차례의 토론과 두 차례의 개역신약성경의 출판은 우리가 제안들을 발표했을 때만해도 예기치 못했던 일였고, 우리들의 관심밖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필자의 업무가 과중해져 잘 수행될 수 있었던 일보다는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

필자는 새로운 일을 착수하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필자는 종파들과 분파의 이름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침례인(Christian Baptists)이 우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고정되고, 그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막기로 결심하였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허들은 갖고 있고, 그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사도전승(the ancient order of things)의 회복을 주창하는 환원운동의 별명으로 불릴 빌미를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결심이 선다. 지면 관계상 이 글을 끝맺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경우 늘 그랬던 것처럼, 이 간행물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후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돌린다. 이 일을 통해서 필자는 복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의 마음이 커졌고, 『크리스천 뱅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지의 어떤 독자도 필자가 집필하고 편집하면서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그것에서 끄집어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편집인.

1830.7.4

독립기념일 연설

A Fourth of July Oration

해설

1830년 7월 5일 월요일, 피츠버그(Pittsburgh)에 그리스도의 교회성도 120명 이상이 국가의 민간정부설립을 축하하는 알렉산더 캠벨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도시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숲에서 모였다. 이 연설에서 캠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시민의 자유와 성령의 열매들을 자라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필요를 대조시킨다(From *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 pp. 367-378).

독립기념일 연설(1830.7.4)

그분의 통치에서 기본원칙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왕들은 사람들의 개성들을 굴복시키며, 그들의 토지에 대해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적들을 정복하는 것은 그분의 원대한 사업입니다. 종교뿐 아니라 철학은 우리들에게 적들을 정복하는 것이 총칼이나 무력의 힘에 의해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개선 퍼레이드 자동차에 많은 사람들을 묶지 않는 것이고, 성채들에 그들을 감금하지 않는 것이며, 월등한 용기와 용맹 또는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적을 정복하는 것은 그를 친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의 고귀하고, 자애롭고, 하늘을 품은 사업입니다. 영구한 사랑의 무기와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무기와 전쟁의 양태들은 무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생생하게 펼쳐 보이시면서 당신의 적들에게 접근하시며, 이 넘치는 사랑의 웅변으로 반역한 세계에 말씀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전쟁방식이며, 하늘에 장착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수단처럼, 제시된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 완전하게 채택되었습니다.

.....

1776년 7월 4일(미국 독립 기념일)은 기념할만한 날이었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그렇듯이, 기억되어야 할 날이었으며, 모든 미국인들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박애주의자들이 인정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치기관들에서 나온 빛은 유럽의 폭군들의 지하감옥들을 관통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신(genius)이 보편적인 해방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가 위대한 정치적 유익들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러한 혜택을 베푸는 위대한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에 아무 것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

더 영광스러운 사역, 즉 미신의 족쇄에서 인간의 정신을 해방시키고, 하늘 통치의 충만한 결실제로 인간들을 끌어들이는 사역이, 1776년 혁명(독립전쟁)에 비교해서, 불멸이 현재의 인간수명(壽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더 위대한 순간의 사역은 금세기를 위해서 유보되어 있습니다. 교파(敎派)의 폭정에서 사람들의 정신을 해방시키는 것, 즉 무자비한 체제의 우울한 노예신분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는 것은 절대적이거나 제한적인 군주제 자리에 대표민주주의를 대체시키는 것보다 더 큰 축복들로 채워진 사역입니다. 이 혁명은, 그것의 모든 영향들을 볼 때, 사람들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정치적 혁명은 사람들을 단지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그들 자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 야만적인 지방의 소수 군주들이 그들의 더할 나위 없는 노예들에 부과한 봉사를 그들 자신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더 훌륭한 노예들로 만드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옛 세계의 군주국들 아래서 사람들은 이 미국의 자유로운

정부 아래에서보다 그들 자신들로부터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그들의 모든 힘을 쏟을 그 정도에까지 그들의 상황들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기회와 자유를 갖는 이 자유로운 정부아래서는, 그들의 모든 능력을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임무를 부과하며, 동방의 군주국들 중 몇몇 나라들이 너무 잔인해서 그들의 국민들에게 가한 것과 같은 수고와 궁핍을 감수합니다. 여기 이 자유의 나라에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나 더 많은 프로젝트의 성취는 그들의 노동이나 그들의 사업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더 많이 성공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정말 얼마나 자주, 우리들은, 죽음이 친절하게 찾아와 그들의 상처투성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고, 수의를 입히기 위해서 그들을 별거벗길 때까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욕망의 언덕으로 혼신의 힘으로 마구를 끌어올리면서 그들 자신의 탐욕의 채찍 아래서 죽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롭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유! 그렇습니다. 자유는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심장의 고동이 멈출 때까지 수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양심도 자유함을 자랑하는 겁쟁이 대중을 노예로 삼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음의 결과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생애를 속박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은 인간이 가장 위대한 투쟁을 벌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의 영향력 아래에 그들 자신들을 내맡긴 모든 자들에게 기독교가 베푸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영혼들에게 회년을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옥문들을 열고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부패한 반기독교 체제들이 이 두려움을 키우고 소중히 간직하려는 노력은 경탄할 정도이며, 사람들을 속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꺼안고,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구원과 이 가혹한 영혼들의 속박에서 은혜로운 해방이 주어집니다.

1836

가르침과 도덕에 관하여
On Teaching and Morals

해설

다음의 글은 캠벨이, 1836년 10월,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소재(所在) 사범대학에서 행한 가르침의 중요성에 관한 연설에서 뽑은 것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교, 존 B. 퍼셀이 청중 가운데 있었고, 캠벨의 연설내용에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였다. 캠벨이 감독 퍼셀과 토론을 벌리게 된 것이 이 연설 때문이었다(From *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 pp. 481-483).

가르침과 도덕에 관하여

유럽과 미주에서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고를 겪었고, 여러분의 책임들을 느껴왔으며, 여러분이 가진 천직의 기쁨을 나누었던 사람이 여러분이 현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있고, 미래의 운명이, 상당 부분,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하는 점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의 이 새싹(germ)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을 갖추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들의 운명을 어느 정도 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영향력은, 우리 존재의 일시적인 제한들 너머에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세대들의 영구적인 운명이 여러분이 진리와 도덕 원리라는 이름으로 심고자 하는 편견에 좌우될지도 모릅니다. 여

러분은 여러분의 학생들의 학부모들 다음으로 전 지역사회의 어떤 공무원들보다 더 우선하는 힘, 즉 인간 특성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그것을 적절하게 설명(qualify)할 시간이 있다면, 심지어 목사들보다 더 우선하는 힘을 갖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 지역의 행복과 번영을 개개인 시혜자의 양심적 행위와 자비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연관된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채널에로 인간행동의 흐름을 바꿔놓았고, 수세대동안 사회의 외형을 크게 바꿔놓았던 제일 큰 자극이 탁아소와 학교의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더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 인간의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좀더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자 여러분이 힘쓰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협력하는 -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존경할만하고 세계에는 유익이 됨은 물론 미래시대에 나타날 하나의 특징을 새겨놓을 힘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신사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현 세대가 달성한 것보다 더 나은 성격의 형성을 떠맡은 모든 분들에게 다음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대중의 마음이 그것의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에 폭 젖어있어서, 모든 무지하고 사악한 부모들이 존재할 수 없게 하고, 혹 존재하더라도, 그들의 자식을 타락시킬 수 없도록 하며 견고하고 실질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며, 자연이 그것의 달성에 필요한 능력들과 감수성들을 억누르지 않았던 모든 사례들에서 피할 수 없게 만들, 모든 법령의 방법과 수단을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숙고하는 것을 모든 주(洲)의 전체 정부가 가장 중요한 의무로 삼기까지, 이 목적은 반드시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쫓겨올 수 없습니다.

지성과 미덕이 상태의 중요한 기둥들인 행동원리가 대중의 마음속 깊이 관통하게 되고, 나쁜 사람들의 처벌을 위한 법보다 아이들의 훈련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합리적이고 칭찬할 만한 것과 참된 과학과 도덕적 탁월함의 길들에서 젊은이를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갱생원들을 세

우고, 강탈을 막고, 폭력과 살인,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동들과 반란들을 진압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것, 젊은이의 합리적인 교육이 전 지역사회 - 애국자와 박애주의자와 기독교인에게 가장 높은 목적인 것, 그리고 그것의 특성을 개선하여 높이고, 그것의 운영들을 촉진하는 자들이 가장 유용한 시민들과 인류 최고의 시혜자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랭킹에 오르기로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그 자체를 지울 수 없도록 새기게 될 때에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사여러분, 여러분은 옳은 장소에서 시작한 것과 좋은 일을 하는 여러분의 능력들을 그것 위에 집중할 생존에서 최고의 주제를 선택 하였던 점에 대해서 명예를 갖습니다. 한편 인류의 다른 친구들, 즉 애국자, 정치가와 경제가가 그들의 친절한 비호아래에서 나라, 즉 그것의 편리함, 그것의 무역, 그것의 상업, 그것의 자원들을 취하는 동안, 여러분은 현명하게도 좋은 일을 하는 여러분의 능력들을 그것 위에 행사할 인종들, 즉 인간의 영혼 그 자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가 과학과 국가이익에 바치는 자신의 헌신으로 이전에 자연에서 단지 한 잎만 자랐던 곳에서 두 개의 풀잎이 자라게 만들었고, 국가의 시혜자들 사이에 오를 가치가 있다면, 그의 명성의 범위가 얼마나 크며, 그 크리스천의 영광의 면적이 얼마나 넓으며, 누가 선을 알고, 행하고, 즐기기 위해서 그의 종족의 권능들과 능력들을 2배, 3배 그리고 아마 4배 이상으로 갖겠는가!

1838

과학과 신앙에 관하여
On Science and Religion

해설

아래의 글은 1838년 뉴 아테네 대학에서(현재 오하이오 대학교) 학생들에게 행한 "문학, 과학, 기술에 관한 연설"(Address on Literature, Science and Art)로 제목이 붙여진 긴 강연에서 선별된 것이다. 이 강연이 행하여진 때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기 10-12년 전쯤이었다. 그러나 다윈의 책이 제기할 몇 가지 문제들을 예기하고 있고, 진리에 대한 이들 두 가지 측면, 즉 과학과 신앙사이에서 일치를 유지할 것을 고집한다(From *Popular Addresses and Lectures*, pp. 136-141).

과학과 신앙에 관하여

우리들의 계획, 즉 과학(혹은 학문), 모든 참된 과학을 신앙과 연결하는 일을 성취하려는 단 한 가지 점만이 남아있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만든 분에 대한 어떠한 지식 없이 우주과학의 어떠한 부분을 이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원인에 대한 어떠한 지식 없이 효과를 알아내려고 합리적으로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들은 세계 속의 모든 과학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우주 없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과학도 물리이든 윤리이든 하나님의 계시된 지식 없이는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업적과 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의 매개

체를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은 태초에 하나님 당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보이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을 읽고 배우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면,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통하는데 있어서, 이 놀랍고 변화무쌍한 대자연이외에 다른 어떤 매개체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존재하는 그대로, 지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연과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다른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해석하는 식으로, 그 둘을 피차에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가장 큰 진보를 이룹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두 가지 음성들, 즉 하나님의 실존성과 완전성의 두 가지 증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다른 것 없이는 인간상황의 다양한 모든 요구를 채우기에 충분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위대한 모든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었고 성경이 영감하는 희망들을 귀히 여겼던 확고부동한 사실이외에 과학과 성경사이의 근접한 관계에 어떤 더 뚜렷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귀납적 철학의 창설자인 베이컨, 위대한 정신과 도덕의 철학자인 로크, 그리고 자연의 신비들의 통역관이자 계시자인 뉴턴은 과학세계에서는 물론 신앙세계에서도 성경을 믿는 신앙인들이요, 성경의 교리, 교훈들, 형태들, 그리고 약속들의 해설자들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연구에 바친 헌신에 대해서만큼 성경에 바친 경의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철학과 기독교는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조, 섭리, 구속에 관한 책들의 모든 페이지마다 명백하고 대담하게 기록된 유일하고 동일한 최고 지성의 변경할 수 없고 흉내 낼 수 없는 자국들과 특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별과 모든 꽃 속에서 속삭이는 세미한 음성이 율법과 복음의 모든 교훈들과 약속들 속에서 권위와 사랑의 언어 속에서 크게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날의 지배적인 철학과 과학의 위대한 창설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단지 최고의 지성들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빛들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존재와

완전성들을 인정했던 자들에게는 모든 유용한 과학들(학문들)과 발견들과 예술들을 허락하셨던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학의 창설자나 어떤 유용한 기술의 발명가나 인간사상의 어느 부문에서 어떤 위대한 큰 진리를 발견한 자로서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의 삶의 희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의 이름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모습은 보편적이 아닐지 몰라도 매우 일반적입니다.

.....

과학과 인간지식의 적절한 분류에 있어서 주요한 난관들 중의 한 가지가 모든 과학들이 피차 교감하며, 경계 설정의 분명하고 두드러진 선들에 의해서보다는 차라리 단계적 변화들에 의해서 분리되어진다는 사실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자, 만약 이것이 물리학과 윤리학에서 사실이라면, 그것은 신앙과 그것들의 관련성과 근접성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연과학들에서 우리들은 적응과 고안의 인식 없이는 단 일보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태양계는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지구는 그것의 식물과 동물의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이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구는 우주가 그것에 적응되는 것처럼 우주에 적응되어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체 우주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 사이에서, 참된 철학자에게 한 개의 위대한 제일 원인과 한 개의 웅대한 궁극의 목적을 제안하면서, 그것의 일반적인 법칙들과 특별한 배열들 모두에서, 목적과 수단의 한 거대한 조직입니다.

.....

본인에게에는 어느 누가 어떻게 자연에 연회를 베풀 수 있으며, 과학이 계시하는 비밀의 높은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가 - 어느 누가 어떻게 피조물의 천상과 지상의 경이들을 황홀과 환희 속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그 자신이 그들보다 무한히 더 놀랍고 영광스런 하나님의 특성과 의지에 무관심할 수 있는가 - 어느 누가 어떻게 창조주의 개발들을 경탄할 수 있으며, 숭배하기를 마다할

수 있는가가 언제나 역설과 신비였습니다. 이 문제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며, 어떤 최상의 모순과 잘못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에서 기뻐하고 일군을 소홀히 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육이 인간의 헌법에 채택되고, 인간의 지위와 품위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실시되어질 때, 그러면 과학과 신앙의 연관성, 자연과 하나님의 연관성이 이따금 하는 강의의 주제로써뿐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최고 지성에 관한 한 가지 논평에 불과할 것이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존재와 완전성과 섭리와 의지는 언제나 본분이 될 것이며, 모든 과학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그분과 존재 속에서 우리가 즐기고 이길 수 있도록 이 고귀한 재능들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책임들과 의무들에 관한 한 가지 실제적 관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편.... 본인은 여러분에게 그것으로부터 샘솟는 한 가지 과학과 한 가지 기술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들 넓은 하늘아래 존재하는 모든 학교들에서 교수되는 모든 과학들(학문들)과 모든 교양과목들(arts)의 으뜸입니다. 그 과학은, 위대한 교사가 정의한 대로, 그가 위임하였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분에 말에 의하면, 이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샘솟는 그 기술은 우주에서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것이며 정당하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걷는 기술입니다.

1839
우리들의 이름
Our Name

해설

알렉산더 캠벨은 『밀레니얼 하벤저』 1839년 8월과 9월호 두 번의 사설에서 이름의 문제: ‘제자들(Disciples)-그리스도인들(Christians)-개혁가들(Reformers)-캠벨주의자들(Campbellites)?’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름의 문제는 발톤 W. 스톤과는 물론 다른 이들과도 이미 1830년에 토의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듯이,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From *The Millennial Harbinger*, Vol. III, No. VIII, August, 1839, pp. 337-339 and Vol. III, No. IX, September, 1839, pp. 401-403).

우리들의 이름,
첫 번째 사실-1839년 8월호.

‘우리들은 무엇으로 불려야 할 것인가?’가 한 가지 질문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가 또 하나의 질문이다. 우리들은 첫 번째 질문에 책임이 있고, 우리의 이웃들은 두 번째 질문에 책임이 있다. 미덕과 악덕, 도덕적인 선과 악이 양면에 다 있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잘못 부르면, 그 죄는 우리들의 것이고, 만약 그들이 잘못 부르면, 그 죄는 그들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세계는 선과 악 모든 의미에서 이름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우

리가 형성하는 성격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듯이, 우리는 좋은 나쁜든 우리가 부르는 이름에 의해서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로 불리어지는 것이 *우리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로 *불리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루터교도들, 칼뱅주의자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그들의 표준에 따라서 우리들을 판가름하고, 그들의 평형저울로 우리들을 저울질하면서 우리들을 *캠벨주의자들(Campbellites)*로 잘못 불러왔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보다 월등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들이 착용한 제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들을 그들 자신들처럼, 즉 오류에 빠지기 쉬운 속세의 지도자의 추종자들처럼 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그분에게나 우리들에게 경멸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와 같은 어떤 호칭도 취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개혁가들(Reformers)*이라는 말이 어떤 것에 대해 특정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개혁가들로 부르기를 원한다. *개신교(Protestant)*라는 말처럼, 그 말은 원리나 실천 모두에 있어서 긍정적이거나 한정적인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성경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 그리스도인들(Bible Christians)*이란 이름을 좋아한다....

다음의 어휘들이 본뜻 그대로 특정 교파에 상관없이 쓰인다면, 나는 침례인(Baptist)이며, 장로교인(Presbyterian)이며, 성공회교인(Episcopalian)이며, 회중교인(Congregationalist)이며, 감리교인(Methodist)이며, 천주교인(Catholic)이다. 그러나 그것들 중의 어느 것 하나도 그리스도의 한 제자로써 필자가 갖고 있는 견해, 필자의 직업 또는 필자의 실천을 표현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필자는 침수세례자이며, 모든 교회(회중)에 장로회와 장로직과 양떼의 감독자들이 필요함을 믿는다. 필자는 모든 공동체를 그 공동체가 관심 하는바 내규들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필자는 교리와 도덕성과 복음의 경건 속에 머물면서, 배열들과 절차들에서 *조직적(methodical)*이며, 모든 구체들에 있어서 *우주적(Catholic)*이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이 필자의 종교적인 전문직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필자의 직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필자는 한 사

람의 종교인으로서 속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두 개의 성경적인 제목들, 즉 제자들(*Disciples*)과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을 놓고 단지 선택해야만 한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더 다루도록 하겠다.

우리들의 이름,

두 번째 사실 - 1839년 9월호,

무엇에로 또는 누구에게로 우리들은 침수세례를 받았는가? 칼뱅에게로, 루터에게로, 웨슬리에게로, 캠벨에게로, 또는 개혁에로 침수세례를 받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호칭들을 취하거나 선택할 때, 왜 우리들에게 별명을 붙이며,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에게 별명을 붙이는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릴 것인가? 우리들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가? 우리가 그리스도이외에 또 다른 지도자를 갖기 때문에 안 된다. 그분은 우리들의 선생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그분을 믿는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침수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를 받아왔다. 뉴잉글랜드와 이 나라의 몇몇 다른 지역들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들이 유니테리언교도들(*Unitarians*)인 것을 자랑하는 한 파에 의해서 채택되고 사용된 하나의 이름이다. 그들은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믿지 않으며, 그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 밖의 것들을 기념하는 것만큼 자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않는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사용되지 아니한 하나의 이름을 더 선호하며, 그 이름은 진실로 더도 덜도 아닌 그리스도인과 성경적으로 동등한 것이다. 누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된 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이라고 불리었다. 누구의 제자들인가? 그리스도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은, 그것이 전체적인 개념을 충분히 함축하면서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된 하나의 이름

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큼 신성하고, 권위가 있으며, 더 오래된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더 설명적이고, 아직 아무도 사용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다. 우리가 그 이름을 선호해야 할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그것은 더 역사가 깊다(It is more ancient).

둘째, 그것은 더 설명적이다(It is more descriptive).

셋째, 그것은 더 성경적이다(It is more scriptural).

넷째, 그것은 더 참신하다(It is more unappropriated).

1. 우리들의 첫 번째 이유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었기 때문이다. 주후 30년 오순절 날로부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알려졌던 자들이, 여러 해 후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다.

2. 그것은 더 설명적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나 정치지도자들, 때때는 그들이 붙인 이름의 생도들로 혹은 제자들로 불리는 것을 모욕으로 느끼곤 하는 그들의 종교지도자들을 따라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이다.

3. 그것은 더 성경적이다.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대략 30년 후에 그의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 이제 적어도 초대교회의 30년 역사를 적고 있는 그의 저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단지 두 차례 나오는데, 안디옥 사람들과 아그립바 왕에 의해서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다. 그러나 어느 제자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호칭아래서 자기 자신이나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30번 이상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고 불린다. 누가와 다른 지식인들은 자주 그들을 '형제들과' 제자들로 부르나,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4. 그것은 현재까지 더 참신하다. 유니테리언교도들, 아리우스파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다른 최근에 일어난 해외의 교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사용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

자들이란 이름을 공정하고 명백하게 사용하는 지상에서 유일한 백성이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필자는 제안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호칭을 더 좋아한다. 어느 누가 더 좋은 이름을 위해서 더 좋은 이유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A.C.

1839

크리스천 시스템
Christian System

해설

캠벨이 저술한 모든 글 가운데 어느 것도 『크리스천 시스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초대 기독교에로의 환원에 관해서, 현대개혁을 변호하면서』<*The Christian System, in Reference to the Union of Christians and a Restoration of Primitive Christianity, as Plead in the Current Reformation*(Bethany, Va.: printed by A. Campbell, 1839)>보다 더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은 아직도 출판되고 있다. 이 책은 이보다 몇 년 앞선 1835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석될 수 있는 원리들과 법칙들의 한 연관된 견해』<*A Connected View of the Principles and Rules by Which the Living Oracles May Be Intelligibly and Certainly Interpreted*(Bethany, Va.: M'Vay and Ewing, 1835)>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아래의 글은 제1판과 제2판의 서문, 그리고 책의 여러 부분에서 선별되었다.

크리스천 시스템

(제1판 서문에서)

우리 미국인들이 누리는 국가의 특권들과 시민의 자유들은 종교개혁가들의 덕택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 불멸의 명성을 쌓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위해 부유한 유산을 남겼다. 우리들이

이 미합중국의 현재의 상태를 라틴아메리카에 대조하고, 영국의 상태를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의 상태와 대조할 때, 우리들은 마르틴 루터와 그 영광스런 개혁에 동참했던 그의 영웅적인 동료들의 지성과 믿음과 용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루터는 주후 1534에 성경을 세상에 되돌려 주었고, 오만하고 포악한 로마교황청의 불경하고 방자한 거짓들에 대항하여 성경의 주장들을 대담하게 변호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루터가 죽었을 당시, 그를 이어 백성을 그가 죽은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성경의 깃발들 아래 규합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그의 신념들은 하나의 새로운 국가종교로 바로 바뀌었고, 그가 신명나게 활력을 불어넣었던 개혁의 정신은 유럽대륙과 섬나라들 모두에서 벌어진 개신교 왕들의 반목과 불화 그리고 경쟁자들간의 정치적인 야심에서 비롯된 충돌들 때문에 곧바로 식어버렸다.

.....

그때이후로,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신조들과 개혁들에 관한 모든 논쟁을 버리고, 초대 기독교를 회복하며,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만 세우려는 첫 번째 노력이 있어왔다.

새로운 신조들과 새로운 교파들에 질리고, 개혁을 고치려는 수많은 실패로 끝난 노력들에 지치고, 성경말씀과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연합은 세상의 회심에 본질적이며, 어떤 신조의 수정과 개선 혹은 기독교세계 안에 당파설립은, 스스로를 대항해서 싸우는 교회에 평화와 일반구원으로 승리를 회복시킬, 그와 같은 연합과 교제와 협력의 기초가 결코 될 수 없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금세기가 시작할 무렵에 몇몇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를 회복할 방법들과 수단을 숙고하기 시작하였다.

성경은 홀로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또 전문직과 실천에 있어서 유일한 성경이며, 이것만이 홀로 세계를 고칠 수 있고 교회를 구할 수 있다. 한때 우리가 우리자신들을 비판하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면,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들 자신들의 견해

들을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견해들에 적용하기 전에, 또는 우리의 견해들과 종교적인 실천들을 성경에 가져오기 전에, 우리들은 "성경은 홀로 개신교도들의 종교이다."라는 오래된 테마를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말투를 정정하고 오직 성경에 따라 우리의 스피치를 정화하는 것이 몹시 힘든 임무이며 20년 노동의 하나라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아직 우리들조차 아쉬도드(Ashdod)의 언어를 전면적이고 실제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의 힘과 위로들 그리고 기쁨, 즉 거룩과 행복이 형식들과 의식들 속에서, 생각들과 추측들 속에서, 교파들과 분열들의 불화와 언쟁들 가운데서 상실되었다는 깊고 내재하는 느낌은 **교파들 혹은 모든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분명하고 성경적인 연합의 결속위에서 - "*예수께서 이와 같이 가라사대*"(*thus saith the Lord*)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의 모든 조항과 신앙실천의 항목을 위해"(for every article of faith, and item of religious practice), 명백한 말이나 승인된 전례 속에서 취하는 것 위에서 - 연합시키기 위해서 여러 해 전에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하였다. 이것은 1809년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군(郡) 협의회(會)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에서 제안되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였던 교파들에게 처음 제출되었으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특성의 유일한 **시금석(test)**으로 삼고 교회연합과 친교 그리고 협력의 유일한 **결속(bond)**으로 삼는 모든 이름의 개신교도들에게 동등하게 제출되었다. 그것은 진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정을 받았으나 미래를 만든 소수 혹은 소수 가운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에 의해서도 채택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

1) 역자 주: 강조는 역자의 것임. 이 부분, "교파들 혹은 모든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필자가 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서진출판사, 1994.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의 93-118쪽에 실린 제4장 '루넨버그 서신'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제2편 서문에서)

우리들은 오직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천 시스템의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항상 기꺼이 선포하려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해들, 혹은 잘못을 범하기 쉬운 유한한 인간의 견해들을, 교회 연합과 협력의 한 가지 조건이나 기초로써 교리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필설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세상 끝까지 선포하려하는 동안, 우리는 성경과 전체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만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교제의 기초로써 취한다(*we take the Bible, the whole Bible, and nothing but the Bible as the foundation of all Christian union and communion*).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더 우수한 방법을 부디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성경

(제2장)

1. 한 분 하나님, 한 도덕체계, 한 권 성경. 만약 자연이 한 체계(조직)라면, 종교 또한 그렇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체계의 하나님이란 말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높은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과 종교는 한 분 아버지의 형상 곧 동일한 신성의 혈통을 받은 쌍둥이 자매이다. 물질세계의 체계만큼 분명한 체계를 가진 지적이고 도덕적인 세계가 있다. 인간은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인간은 동물이자, 지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이다. 감성은 자연에서 인간의 안내자이며, 믿음은 종교에서, 이성(이성)은 자연과 종교 모두에서 인간의 안내자이다. 성경은 인간의 영적이고 영원한 관계에서 인간을 우선적으로 깊이 다룬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보여줘야 할 만큼 자연의 역사이다. 성경은 인간의 몸과 혼과 영혼에 관련해서만 자연 곧 우주를 깊이 다루기 때문이다.

2.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이 위성들에게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지적 도덕적 세계에서 빛과 생명,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의 원천이다. 전 인류에게 있어 성경에서 기인되지 아니한 영적 개념은 없다. 신학자가 유일무이한 최고의 책인 성경을 떠나서 인간에게서 영적 개념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철학자가 자연에서 독자적인 광선 하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나 오래 걸릴 것이다.

3. 성경 혹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인 신구약 책은 실존상태 그대로 인간에게 채택된 충만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담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인간의 *현존* (*as he is*)과 *의무* (*as he ought to be*) 그리고 그것에 관한 중요하고 적절한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룬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인간의 과거에 관한 글이 아니며, 미래에 관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현재에 관한 글이며, 의무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신체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글이다.

4. 성경의 어휘들은 그 안에 모든 생각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어휘들은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 안에 든 생각들도 명백하게 인지되어진다. 성경의 어휘들과 문장들은 다른 고대 문서들이 번역되어지고 이해되어진 동일한 해석법과 원리들에 따라서 번역되어져야 하고, 해석되어져야 하며, 이해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어로 인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처럼 즉 말의 올바르고, 규칙적이고, 잘 성립된 의미들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일종으로써 언어의 특성에 본질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시일리가 없고, 또 인류에게 그것의 참 뜻을 풀어주고 해석해줄 특정계급을 언제나 요구하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해석의 원리들과 법칙들에 관해서 자주 그리고 크게 언급하여왔다. 그것들은 신비적이고 우화적인 해석경향이 남아있는 이 시대에 본질적인 중요성과 유용성을 갖는 것들이다. 우리는 여기에 선임자들의 글들에서 뽑아낸 필수적인 해석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들은 강도 있고 잘 요약된 전제들에서 얻어낸 것들이며, 과거와 현재의 세기들을 통틀어 유력한 번역가들과 가장 뛰어난 비평가들과 주석가들이 완벽하게 지켜왔던 것들이다.

6. 원칙1: 성경의 어느 곳을 펼치든지 *제일 먼저 책의 역사적 정황들을 고려하라. 이들 정황들이란 배열순서, 책의 제목, 저자, 기록연대, 기록장소, 기록동기를 말한다.*

역사적인 구성물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나 다른 여러 권으로 된 이야기들, 심지어 서신들과 통신문들의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와 같은 배열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제목 역시 중요하다. 제목은 때때로 책의 기록목적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을 의미하는 *출애굽기*나 *사도행전* 등이 그렇다.

*저자*의 특이성, 그가 살았던 시대, 그의 스타일, 표현방법은 그의 저술을 설명한다. 기록연대, 기록장소, 기록동기는 책에서 어떤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다.

원칙2: 어떤 책의 내용들, 예를 들면, 관련사항들, 인식의 결과들, 약속들, 권면들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것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어떤 신의(神意)를 따라 저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라.* 저자는 족장인가, 유대인인가 혹은 그리스도인인가? *대상자들의 선입관, 특성, 종교관계 등도 고려하라.* 그들이 유대인들인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인가, 신자들인가 혹은 비신자들인가, 인정받은 자들인가 혹은 비난받은 자들인가? 이 원칙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 약속, 경고, 훈계, 혹은 권면을 적절하게 적용하는데 필수적이다.

원칙3: 명령된 것, 약속된 것, 교육된 것 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언어학의 원리들, 언어의 본성에서 연역된 것, 다른 책들의 언어에 적용된 동일한 해석법이 성경언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4. 증거로만 확인될 수 있는 공통사용은 한 가지 의미만을 갖는 어휘의 뜻을 항상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휘들이 증거(사건)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질 때, 문자적인지 혹은 상징적인지, 만

일에 공통사용, 저자의 목적, 배경 그리고 평행구들이 결정하지 못한 다면, 언어해석에 있어서 확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배경 혹은 평행구들은 그 뜻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5: 모든 수사적 언어에서 유사점을 확인하고, 유사점으로부터 문체의 본질과 종류를 판단하라.

원칙6: 상징들, 유형들, 은유들과 비유들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설명되어진 요점을 확인하라. 왜냐하면, 비교는 상징, 유형, 은유 혹은 비유의 모든 속성들, 특성들, 혹은 상황들에 대한 그 요점이상으로 결코 확대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7: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하고 성화시키는 지력(智力) 때문에 다음의 원칙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는 거리 혹은 듣는 거리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거리가 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리도 있고, 귀가 들을 수 없는 거리도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소리가 충분히 전달되는 원안으로 다가서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그 거리를 벗어나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 거리 안에 있는 모든 곳에서는 경건과 도덕에 관한 제반 문제들에 있어서 쉽게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은 그 원의 중심이며, 겸손은 그 원의 둘레이다.

침례

(제16장)

1. 침례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시행되도록 명령된 행위; 둘째, 명시된 대상; 셋째, 그 행위의 의미나 목적. 예수는 어떤 인물(character)을, 어떤 행위(action)의 대상으로, 어떤 특별 목적이나 설계(design)를 위해 명령하셨다.

2. 아담의 수많은 방언을 가진 후손들을 통해서 일찍이 사용된바

있는 무슨 언어가 되었든 그 중의 한 단어만큼이나 행위(the action)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결정적인 한 단어에 의해서 지적되어진다.

3. 오늘날의 논쟁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명확하고 명백한 단어는 영어로 번역되지 않고, *뱃티즘(baptism)*으로 음역된 *뱃티스마(baptisma)* 또는 *뱃티스모스(baptismos)*이다. 고대의 사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단어의 자연스런 보통의 일차적인 의미로 *침수(immersion)*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보아왔던 라틴어, 영어, 독일어, 불어로 번역된 모든 성경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믿는 한, 우리가 보지 못한 모든 것들도, 종종 이들 단어들, 혹은 그것들의 파생어들, 혹은 복합어들을 *침수(immersion)*와 동일한 단어들로 번역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no occasion)* 그것들을 뿌림, 혹은 부음, 혹은 이물어휘들과 동일한 말로 번역하지 않는다. 고대 교회가 침수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믿을만한 로마와 헬라 그리고 영국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4. 그와 같이 *일반인들(persons)*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characters)*이 침례의 대상들이다. *회개하는 신자들(penitent believers)*, 어린아이들이나 성인들이 아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참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예전의 적절한 대상들이다.

5. 그렇다면, 침례는 그것의 대상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축복들에 참여하도록 이끌도록 설계되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사셨다"....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형식적이고 독특하며 분명한 사죄를 받거나 유죄가 면제되는 *수단(means)*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를 처음 믿었던 자들과 그들의 죄를 회개했던 자들 그리고 총명하게도 그의 죽으심으로 침례를 받았던 자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죄 용서를 확신시키는 충분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몸

(제24장)

1. 세상에서 분리시켜 일종의 독특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기관은 *회중(congregation)* 또는 주님의 *교회(church)*라 불리며, 교회는 자체의 법규와 제도와 관례와 관습들을 즉각적으로 세상의 구세주로부터 이끌어내게 한다. 이것은 때때로 기술적으로 그리스도의 문자적이고 자연적인 몸과 대비하여 구별된 그리스도의 *신비한(mystical)* 몸이라 불린다. 이 영적인 몸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입법자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시와 관리 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2. *참(true)*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집은 나사렛 예수를 참 메시아와 인간들의 유일한 구세주로 공개적으로 진정 인정하는 모든 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또 그들 자신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움으로써 그리스도 당신께서 신약성경에서 허락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헌법아래 모이며 다른 아무 것 안에서 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식들과 명령들 안에서만 견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3. *하나님의 회중(the congregation)*이라 불리는 이 기관은 공동체들 중의 큰 공동체이다. 이 기관은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한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가 동일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동일한 법칙들을 따라 걸으며 동일한 현장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어떤 공동체의 사법권 아래 있지 않고 개개인 제자가 어떤 주어진 장소에서 모이는 어떤 한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개개인 제자에게 소속되듯이 다른 모든 공동체들에게 소속하고 있는 많은 개별 공동체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4. 여전히 주님의 이 모든 개별 회중들은 그것들이 로마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혹은 에베소에 있든지 간에 그들 자신의 독특한 업무관리에 있어서 서로 간에 동등하게 독립적이지만, 한 공동의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그리고 한 공동의 구원이라는 이유로 존재하고 있

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왕국 또는 교회 그리고 그와 같은 기관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목적들을 최대한 진작시키기 위해서 피차에 긴밀하게 협력해야할 의무들 가운데 있다.

5. 그러나 이 거룩한 단체와 교회들의 협력을 위해서 그들이 피차에 친밀하고 인정하는 지식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지방들 안에서(in the form of districts)만 가능하며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형제들이 피차에 알게 되고, 다른 지방들의 교회들과도 피차에 알게 된다면, 그들은 지상의 과제를 이루는데 피차 협력할 수게 될 것이다.

6. 이들 지방들은 그들 사이에서의 통신과 협력을 유지하며, 일치와 연대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들이나 행사들을 지속하는 *방법(manner)*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변상황(circumstances)*의 일부분이다. 어느 개별 공동체의 주변상황은 물론 이들 지방들을 위해서 사도들은 어떤 특별한 지시들을 내리지 않았다.

7. 그러나 성도들의 공동체들에게 무엇이 합당하고, 질서 있고, 온당한가와 기독교의 정황들 속에서 공적이고 실천적인 유용성을 확정할 이 필요한 자격을 수여함에 있어서, 기독교 기관(=교회)은 단 한 가지 일에서도 간섭 당할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질들과 비본질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기독교 안에서서는 비본질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과 그것의 상황들 사이에서, 기독교 기관과 그것의 사건들 사이에서의 매우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다.²⁾

8. 기독교 기관은 그것의 사실들, 훈계들, 약속들, 제정들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 혹은 교리를 갖는다. 이것들은 정책과 배치와 편리성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불변의 제정과 지속성의 문제들

2) But in granting to the communities of the saints this necessary license of deciding what is expedient, orderly, decent, and of public and practical utility in the circumstantial of Christianity, no allowance is implied authorizing any interference with a single item of the Christian institution. Hence the necessity of a very clear discrimination, not between "the essentials and the non-essentials," for in Divine Christianity there are no non-essentials, but between the family of God and its circumstances, between the Christian institution and its accidents.

이다. 그러므로 복음 기관의 믿음과 예배 그리고 의로움, 혹은 교리와 경건 그리고 도덕성은 인간의 법률과 변경 혹은 배치의 합법적인 문제들이 아니다.

9. 그러나 우리가 한 소속 지방의 교회들을 등록할 것인가 혹은 개별 교회의 교인들을 등록할 것인가, 우리가 주의 날에 한번 이상 모일 것인가, 혹은 몇 시에, 어떤 종류의 집에서 모일 것인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오전에 혹은 오후에 기념할 것인가, 새벽에 혹은 밤에 할 것인가... 우리가 책을 보고 찬송 부를 것인가 혹은 기억에 의존해서 부를 것인가, 산문으로 할 것인가 혹은 시로 할 것인가, 등등은 우리가 편리성과 격조 그리고 정연한 질서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생각해도 좋을 문제들이다. 또한 한 소속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로, 전달자들로, 혹은 정기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일 년에 한두 번 혹은 더 자주 서로 왕래할 것인가, 그들이 한두 사람 혹은 스무 사람 혹은 모든 교인들이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할 것인가, 혹은 편지를 보낼 것인가, 그들이 매년 그들의 통계를 인쇄하고 기록하고 혹은 출판할 것인가 등은 전적으로 기독교 기관의 상황들일 뿐이다.

10. 그러나 협력 그 자체는 한 가지 일이요, 협력의 방법은 또 다른 일이다. 협력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호교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기관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더불어 힘써야"한다. 그리고 만약 그 주제에 관한 성경에서의 어떤 예문이나 훈계가 없다면,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개인들 혹은 공동체들로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피차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를 모든 면에서 돕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들과 감사들은 단지 위선일 뿐이다.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진리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단 일 불이라도 그 목적에 바치는 것을 그의 권세 속에서 갖는 것이며, 아직도 그것을 보류하고 있는 자는 그 자신의 기도들 위에 세운 가치가 얼마나 작은가와 그의 돈 위에 세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준다.

11.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협력하는 교회들의 협의회들은 지상

의 정치적인 분할구역들에 따라 한결같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필요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편리성의 문제이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등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어떤 구획들이나 분할지구들에 의한 협력보다 주(洲)들과 영토들에 의한 협력이 일반적으로 더 편리하고 성공적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필자는 이것을 필요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편리성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필요성의 문제이지만, 한 군(郡)과 주(洲) 혹은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협력을 위한 정규적인 방법들과 수단들을 형성하는 것은 편리성의 문제이다.

12. 협력의 필요성은 모든 곳과 인간의 모든 협의회들에서 느껴진다. 그것은 하늘의 섭리의 일부분이다. 질서가 잘 잡히고, 합심하여 행동하며, 시온성 건설을 위해서 방법과 수단들을 도모하는 위원회들로 자주 함께 모이고, 사막마다 울타리를 치고, 울안의 논밭들을 경작하기 위해서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물을 주고, 권세 있는 기도와 말씀전파와 성도들의 필요들을 공급함과 무지를 일깨움과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안하는 일에 함께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열심과 경건과 인간성으로 뭉친 일백 개 교회들은 주어진 기간 안에 합심하지 아니하고 협력 없이 그들 각자의 능력에 따라 행동하는 같은 수의 교회들이 하는 것보다 배나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연합된 힘은 지성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난 결합의 효과를 언제나 거둘 수 있다.

13.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 비록 많은 작은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공동체가 이 큰 국가조직의 조직된 회원이고, 유일무이한 머리와 왕과 주(主)와 입법자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공동체의 기도들과 구제와 계획들과 노력들 안에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몸을 한 공동체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들 개별 회중들 사이에 그들의 몇 가지 행동들에 대한 인정과 승인에 족할 만큼의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회원들 또는 한 공동체의 조례가, 어떤 공동체내에서 그것들이 제안되게 될지라도, 국내에서 그들 때문에 존경받게 될 것이다.

14. 누구든 이들 협력에 관한 견해들에 대해서 사도의 승인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들에서 풍부한 권위를 발견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일반적이고 우주적인 서신들의 바로 그 기초는 그리스도의 모든 공동체들이 단지 한 몸을 구성하며, 일반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상호간에 협력하도록 매어있다는 사실이다

1842

협력에 관하여
On Co-operation

해설

회중들 사이의 협력이 한 신약성경 교회 내에서 가능했는가와 무슨 종류의 교회조직이 성경적인가에 관한 질문들이 일어났다. 캠벨은 이들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일련의 기사들을 『밀레니얼 하빈저』(*The Millennial Harbinger*)에 실었다. 이 잡지 1842년 판에는 “기독교 조직의 성격”(The Nature of Christian Organization)에 관한 긴 기사들이 8개나 실려 있고, “교회 조직을 위한 다섯 가지 논쟁들”(Five Arguments for Church Organization)이란 제목의 아래에 소개된 짧은 기사가 하나 실려 있다(From *The Millennial Harbinger*, Vol. VI, Number XI, November, 1842, p. 523).

협력에 관하여

좀더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조직의 큰 필요.

1. 협력 없이는 해외에 하는 성경배부를 비교적 적게 할 수밖에 없다.
2. 협력 없이는 국내나 해외에 있는 세계의 드넓은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다.
3. 협력 없이는 기독교 사역을 개선하거나 끌어올리는 일을 거의 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4. 협력 없이는 무책임하고 그럴싸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에 의

한 형제들의 인정을 악용하는 사기와 협잡의 홍수를 점검하고 억제하고 제거하는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5. 어떤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으로도 이스라엘의 수만 번의 행동에 전념할 수 없다. 그러나 협력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좀더 넉넉하고 광범위하고 철저한 교회조직이 없이는 철저한 협력을 가질 수 없다.

이들 다섯 가지 요점들은 한 번의 학습을 위해 충분하다.

1845

미국 노예제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Our Position to American Slavery

해설

노예제도의 문제는 기독교 공동체를 점증적으로 혼란시켰다. 1845년에는 침례교회들과 감리교회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는 분열을 보게 되었다. 캠벨은 그리스도의 교회들(Disciples)을 위해서 그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우려야 할 필요를 느꼈다. 노예제도에 관한 14개나 되는 기사들이 그 해 한 해 동안 『밀레니얼 하빙저』(*The Millennial Harbinger*)에 실렸다. 이곳에 소개된 글들은 캠벨이 첫 번째와 열 번째 사설에 실었던 것들이다. 그것들은 이 논쟁의 무대에서 캠벨의 판단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다(From *The Millennial Harbinger*, Third Series, Vol. II, No. 11, February, 1845, pp. 49-53 and Third Series, Vol. II, No. VI, June, 1845, pp. 257-264).

미국 노예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845년 2월 사설)

어떠한 국가 혹은 국민이 자유롭기를 결정할 때, 그들이 어떠한 외국의 왕이나 권력자에게 바치는 모든 충성과 모든 정치적인 종속을 공개적으로 거부할 때, 그들은 의심스럽고 위험한 경향의 본보기를 만든다. 그들은 그들의 당면한 비전 외에 다른 많은 상세한 사항

들에서 사회에 미치는 그것의 영향과 결과들을 계산해 낼 수 없다. 엄숙한 집회에서 소집된 국가의 대표자들이 높은 곳에 계신 신(High Heaven) 앞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하고 동등하다"고 단언할 때, 그들은 그 특별한 때에 그들을 한 곳에 소집했던 특별한 대상들에 의해서 제한 받지 않기로 한 견해들과 결심들을 공포 한다. 한 국가가 단지 몇 가지 헌법상의 억제들과 제한들의 범위에서 모든 시민에게 "생각의 자유, 말의 자유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때, 그것은 선행의 능력들을 수여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을 세우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것이 파괴하는 일을 할지도 모를 악행의 능력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또한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 매우 분명한 것은, 만일 국민들에게 지성과 도덕이 없다면, 그와 같은 공인된 권리들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슬기롭고 애국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문화를 마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충분한 자유들을 허용해도 좋을지 그 타당성을 의문시해 왔다. 매우 잘 규제된 공동체내에서의 참정권은, 그들의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서, 언제나 도덕적인 자격에 따라 주어져야지, 결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는 안 된다.

.....

상당히 총명한 사람은 누구나 북부와 남부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도 로마에 살면서 교황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는 것만큼이나 또한 분명하게 모든 북부와 남부의 제도들은 전 미국의 가족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 미국교회의 법정 안에 이미 들어섰으며, 우리 개신교 내에서 가장 훌륭한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의 회의들을 분열시켰다. 이런 상태의 일들은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파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배타적으로 거론되어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교파들도 그들 협의회의 정치-종교적인 성격 때문에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문명화된 세계에 유일한 신앙 공동체이며, 우리의 원칙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불행한 곤경에서 우

리들을 지킬 수 있다. 필자는 남부와 북부에 사는 모든 지적인 형제와 솔직한 시민의 완전한 만족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을 느낀다. 필자에게 적절한 기회를 주고, 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필자의 진술과 논의들이 다가올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핵심 문제는, 성경이 이 주제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있지, 무슨 자연적인 이유나 자연적인 양심 또는 사람들의 견해들을 받아쓰게 하거나 무슨 인간의 조심성과 편의를 허락하는가에 있지 않다.

알렉산더 캠벨(A.C.)

(1845년 6월 사실)

이 시간까지 노예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은, 만약 매우 특별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정확성으로 확인되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우리가 의심스런 추론과 보장할 수 없는 위험에다 무엇인가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므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결론들을 연역하고 매우 분명하고 명확한 말로 우리의 입장을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우리들은 이미 설정한 전제들, 즉 좀더 긴 설명을 붙인 전제들로부터 얻은 추론들이나 결론들의 형태에서 시도할 것이다.

첫 번째로 족장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율법과 법령들 그리고 관습법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볼 때, 모세와 사도들의 저술들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많은 법령들과 법규들에 의해서 재가 받은 대로,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경말씀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어느 곳에서도 단죄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어떤 사례들과 어떤 법규들 아래에서는 그것이 심지어 지금도 전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결론짓는다.

만약 그것이 필자의 독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어떤 만족이 될 수 있다면, 필자는 비록 수년간 미국의 노예제도를 이 시대의 정신

과 풍조에 조화되지 않으며, 미국 국민과 정치제도들의 독특한 풍조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것에 반대하는 강한 편견을 가진 필자의 교육에 의해서, 여전히 지난 수년간 이 주제에 관해서 성경말씀들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은 그 사이에서 짧지도 길지도 않았지만, 필자는 언제나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부언코자 한다.

그리고 필자가 수년간 가장 신실하고 양심적으로 이들 견해들을 견지했고, 표명하는 한편, *악용과 악용될 소지들 때문에, 또한 이들 악용으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풍기 문란한 영향 때문에, 또 그것의 지속을 묵인하는 주(州)들과 공동체들의 운영들을 쇠퇴시키기 때문에*, 필자는 미국의 노예제도를 매우 강하게 반대하였고, 그래서 필자는 필자의 정치적 관계들에서, 주인과 노예 모두가 그 날을 준비하고 있을 때인 어떤 궁극적인 날을 예정하면서... 점차적인 접근으로 주(州)헌법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담하게 주창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바울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계급에 대해서 한번 단언했던 것과 같이 필자도 오늘날 노예제도에 대해서 단언하는 바이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법에 의해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어떤 사례들과 조건들에서는 도덕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단언하는 한편, 필자는 또한 *이 시대와 이 나라에서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확신을 단언하는 바이다. 이 확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필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그 후 수년 동안, 필자는 재산상속에 의해서 필자에게 속할 많은 노예들의 해방을 권하였고, 그 결과 그들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필자는 어떤 방법으로 필자의 영향아래 왔거나 또는 필자의 소유였던 모든 사람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하였던 것이다.

.....

세 번째로 또한 우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주인과 종의 단순한 관계를 징계의 대상이나 친교의 조건으로 신앙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바꿔 말하면, 어떠한 사람도 단순히 주인

이 된 것 때문에 혹은 그가 태어난 주(州)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섬리로 노예 신분이 된 사람을 단순히 데리고 있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 없다.

.....

이 결론을 보장시키는 것은 이 일련의 글들의 유일한 목적이다. 처음에 우리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원칙들에 진실하다면,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어떤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두 과로 갈라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다른 주제들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견디며, 그리스도인의 평화의 연대 속에서 정신의 일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남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북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역별 이탈과 편견들은 형제의 친절과 사랑의 마찰로 닳아 없어질 것이다

.....

우리들의 글에서 그것들을 수반하는 문서증거를 가진 이들 제안들을,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가장 애정이 넘치는 관심과 그들이 정신의 일치와 그리스도인의 평화와 사랑의 연대 속에서 거룩한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를 우리의 열렬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사랑하는 모든 거룩한 형제들의 신앙적인 고려들과 검토에 붙이는 바이다.

알렉산더 캠벨(A.C.)

1846

공립학교 후원에 관하여
On Support for Public Schools

해설

1836년과 1846년 사이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이 공립학교들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때에 알렉산더 캠벨은 그 대의명분의 지도적인 후원자가 되었다. 아래의 글은 알렉산더 캠벨이 1846년 7월 4일 졸업식 때에 베다니 대학의 학생들에게 행한 "보편적인 공립학교 교육"(Universal Common School Education)에 관한 연설문에서 발췌한 것이다(From *The Millennial Harbinger*, Series III, Vol. III, July, 1846, pp. 400-411).

공립학교 지원에 관하여

무슨 교육인가, 누가 그것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것이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부분적이어야 하는가가 참으로 금세기의 특별한 테마들입니다. 그리고 제군들, 이것이 바로 본인을 이끌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미결의 논쟁에서 행동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와 그것의 전 재산과 개인의 참된 번영이 오로지 과학과 공업과 도덕... 그리고 사회상태와 사회생활의 실현을 지속하는데 본질적인 모든 비품들과 도구들을 인간에게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매일의 안위들을 섬기는 그 기술들의 구현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인간은 학교들과 대학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세우고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공급 없이는 소유할 수도 즐길 수도 없다는 것을 본인은 확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공립학교들과 대학들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후원을 받아야하는가에 대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州)의 안전입니다. 그것의 적절한 취지에 있어서, 교육은 이해를 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양심을 만들고 마음을 인간화합니다. 전쟁들이나 죄수 선박들도 구치소들이나 감화원들도 법률이나 시정행정관들조차도 개인이나 가족 혹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공격들로부터 선량한 사람의 재산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영역입니다.

보편적인 공립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모든 효력 있는 호소 중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논쟁의 세 번째 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문자통신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지기 위해서 읽혀져야 합니다. 독서기술이 없다면, 집필기술 또는 인쇄기술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재산과 안전 그리고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이 교육에 좌우된다면..., 보편적 교육의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고, 가능한 한 능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든 개별 회원의 주요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 비용으로 공립학교 교육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이 개화된 정부의 첫 번째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매번 적당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국가 부(富)의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와 국가 안전의 유일한 무적의 수호신 그리고 국가 독립과 번영 그리고 행복의 유일하고 영속적인 현장으로써의 보편적인 공립학교 교육의 편에 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며 후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1848

전쟁에 관한 연설

Address on War

해설

알렉산더 캠벨의 “전쟁에 관한 연설”은 실제로 있어서는 웅장한 “평화에 관한 연설”이다.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던 멕시코 전쟁¹⁾이 끝나고 3개월가량 지난 1848년 버지니아 주 휠링(Wheeling, 현재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회관에서 행하여진 이 연설은 교회 안팎에서 전쟁에 관한 광범위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州)들의 권리와 노예문제 그리고 경제개발의 국가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한 수단으로써 무력군대를 주창하고 있었던 때에 행하여진 이 연설은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남북 전쟁이 발발하였고, 캠벨이 우려했던 대로 전쟁의 사악함이 드러났다(From *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 pp. 342-366).

전쟁에 관한 연설

한 기독교 국가가 다른 기독교 국가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를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또 한층 더 여러분, 곧 나의 존경받는 청중 여러분에게 물은 이 자리에서의 물음은 우리 자신의 나라와 기독교 세계의 명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운명에 관련된 것이어서 본인은 만족할

1) 역사 주: 1846-48. 1845년 미국이 텍사스를 병합하면서 발생한 전쟁으로 미국이 승리함.

만한 결정에 매우 필수적인 그 지성과 평정을 가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의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의 조사로부터 움츠려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그 문제를 결정하려 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나 자신과 같이 강렬한 관심으로 전쟁이 있거나 있었던 곳에 언제나 따르는 인명의 희생과 유족들의 고통, 엄청난 국민재산의 손실, 그리고 공공도덕의 불가피한 붕괴가 지적된 대로, 전쟁의 황폐함과 공포들에 관해서 가끔씩 성찰해 오신 분들을 협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

이들 서두에 꺼낸 내용들을 오늘 저녁 제기한 물음에 적용하려면, 본인이 표명한 유명한 말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주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즉: -

“한 기독교 국가가 다른 기독교 국가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를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국가라는 말에 형용어구를 붙였지만, 전쟁이나 권리에는 어떤 형용어구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전쟁을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것으로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권리를 인간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관례를 따라 국가에 기독교(*Christian*)란 말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국가 앞에 붙인 말 기독교(*Christian*)의 적합함을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를 그렇게 나란히 사용하는 것이 대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명되었든, 암시되었든, 요즘 이 나라에서 때때로 행해진 것으로써 그 논쟁은 한 기독교 국가가 또 다른 기독교 국가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를 권리를 갖고 있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으므로, 중요하고 다소 깜짝 놀라게 할 물음, 즉 세상에 기독교 국가가 있는가? 혹은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라고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일개의 국가로써 미국 국가가 정신에 있어서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은, 마치 사도가 고린도와 아테네 또는 황실 가족을 포함한 로마 제국의 수도에 교회들을 세웠을 때에 그리스나 로마가 기독교 국가들이 아니었던 것과 같습니다. 로마제국의 정책, 용맹, 용기, 용감, 기사도가, 그것들이 율리우스와 아우구스투스 시저 시대에 이방세계의 바로 그 중심에서 찬양과 흠모와 영광을 받을만했던 것만큼이나 워싱턴과 런던에서도 그렇습니다.

.....

그러면, 어떤 기독교(Christian) 국가도 또 다른 기독교 국가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문제는 좀더 이성적이고 단순한 형식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것을 일개 국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 혹은 교회가 또 다른 국가 속에 있는 그의 왕국 혹은 교회에 대항해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형식 속에서 여전히 좀더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그 물음에 대한 이 형식이 매우 많은 선량한 사람의 양심을 지금 울릴 만큼 그 사례의 상태에 정확하게 부응하지 않는다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급된 대로, 그들은 그 물음에 강한 어조로 *아니오* 하고 반박하는 한편, 그들은 그들의 독특한 어려움을 또 다른 형식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를 대항해서 전쟁을 선포하거나 우리나라가 영국을 대항해서 전쟁을 선포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은 지원하거나 입대하거나 또는 징집된다면, 영국에 대항해서 싸울 권리를 갖습니까? 우리의 모토는 ‘우리의 국가가 옳은가 나쁜가?’ 혹은 “우리들의 정부는 우리에게 강제로 무장하게 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

이것은 그 물음을 단순화하고 모두의 판단에 맞춰 그것을 평평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를 세운 설립자께서 전쟁을 법령화하셨습니까? 또는 그분이 그분의 정부의 국민이 서로를 대

항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을 합법적이고 정당화시키셨습니까? 또는 그분이 그들이 어떤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어떤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세계에 있는 어떤 국가의 현재 실재한 정치당국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정당화시키셨습니까?

그 물음은, 우주의 새로운 관리아래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다른 공동체들을 대항해서, 전쟁의 혼한 기술적 의미에서, 다른 공동체에 대항해서 전쟁을 수행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한 기독교 공동체 또는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어떤 국가전투에서, 그들 개별 능력에 따라서,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결국 무장을 해도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들은 호전적이든 방어적이든 말없이 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문법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법적인 궤변은, 마치 개인취향의 일시적 기분과 변덕 또는 흥미처럼, 호전적이든 방어적이든 어떤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큰 물음은, 공무원인 아닌 한 개인이 그가 그 자신의 경우에서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의 정부에 복종해서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정부와 우리와의 정치적 관계들에서, 한 얽매인 종이 그의 주인을 향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적어도 열등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위대한 왕, 우리의 군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문법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떤 것 속에 있는 권세들(POWERS THAT BE)에 정당하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은 매우 안전하게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한 그리스도인이 주(州)정부를 위해서, 주(州)정부의 권리들을 지킴에서, 그가 자기 개인의 권리들을 지킴에서 혼자 힘으로 정당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정당하게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해도 좋을 것입니다.

.....

위대한 교사요 최고의 박애주의자의 말씀들은 이 큰 물음에 대한 최종적인 것이요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입법자께서 두 가지 매우 분명한 측면, 첫째, 그분에 대

한 그들의 의무들과 그들 자신의 직업에 관련해서, 그리고 둘째, 그들 시민의 권리들과 의무들과 책임들에 관련해서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수행자들로서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경멸을 받거나 어떤 처벌을 당한다 해도, 그들은 결코 그것을 원망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시민의 권리들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민법보호의 이점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그들의 정치적 세금들의 지불과 그분에게 그들의 책무들로 방해가 되지 않게, 순수한 민간 성격의 다수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

그러나 한 군인의 독특한 생명이나 한 정치전쟁의 실행에 관해서는 그들이 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그들은 그들의 힘이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들의 왕이신 그들의 통치자 주님은 “평화의 왕”(PRINCE OF PEACE)으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그리스도인 군사가, 그의 “방패”가 믿음이었고, 그의 “투구”가 구원의 희망이었고, 그의 “흉배”가 의(義)였고, 그의 “허리띠”가 진리였고, 그의 “발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겼고,” 그리고 그의 “검은 성령”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군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이 시저와 한니발과 티무르(타메를랑)와 나폴레옹 또는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의 전쟁들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입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종교를 지지하기 위해서 검을 가지는 모든 자는 그것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단순히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편적인 역사서적들에 묻지 않아도 되지 않았으며, 모든 국가들이 그것에 의해서 결국 망할 검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어느 누가 “그들 가운데 몇몇 나라들은 아직도 서 있습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대답합니다. 이미 망한 모든

나라들 역시 한동안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저들 나라들은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무모한 짓 때문에(to their over throw)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칼에 의해 세워진 국가와 주(州)들은 칼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 중국에 가서는 입증될 것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

기독교의 정신과 기풍이, 그것의 서신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을 모든 방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을 일찍이 읽었던 사람에게 는 증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쟁의 기풍을 대조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큰 전투를 앞둔 군인들에게 전날 밤에 그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성경말씀들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군목이라고 가정하게 해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우리 시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말씀들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군목이라고 가정하게 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가 그와 같은 때에 적절한 본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령관은 그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어떤 정신으로 그의 설교를 들은 군인들은 전투에 즉시 투입했겠습니까?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대답해야 문제들이요, 모든 사람이 표명보다는 훨씬 더 좋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

아무 것도, 전쟁들이 비롯된 원인들과 수행되어야 할 목적들에 관하여 상기시키기보다는, 더 양심적인 군인의 용기를 약화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것들은 언제나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수행되어져 왔고, 몇몇 전쟁들은 길고 오랜 노력 끝에 양군의 군인 대다수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전에 종전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국가에서조차도 이런 종류의 사례가 매우 최근에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전쟁의 참되고 적절한 원인들이 명확히 이해되어지고, 그 전쟁들이 수행되어진 참 목적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해도, 그 전쟁들은, 대개의 경우,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의 결핍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

전쟁은 지금도 과거에도 정의를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진리의 시금석, 즉 옳음의 판단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회를 노리는 게임이거나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폭력적 침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정들의 개선과 정의의 결정 또는 국가 사이의 논쟁들을 수습하는 적절한 수단으로써의 전쟁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할 수 없다는 더 이상의 다른 증거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나 본인에게 그럴싸하게 생각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쟁의 원인이 심사숙고되어지는 한, 그가 무죄한 사람 - 무죄한 사람 말입니다 - 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사실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가들과 상인들과 기사들 그리고 왕들이 전쟁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개인과 가족 강화의 계획들을 좌절시키려고 상대방에 고용되었을 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양군대의 군인들은 피차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군인들에게 적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시민복 차림으로 전장이 아닌 다른 어떤 들에서 만났다면 그들은 심중판

구 서로의 행복을 문었을 것이고, 요청을 받는다면, 그들의 도움을 피차에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

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닙니다, 본인은 전쟁의 도덕적인 황폐함이 전쟁의 공포들을 심지어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본인은 상스런 신성 모독과 야만적 행위 그리고 단순한 군인, 즉 직업으로 승인된 인류의 백정의 방탕함을 가장 높은 위치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론의 심취와 인기 많은 박수갈채가 없다면, 그가 왕좌에 뜻을 품은 사람을 도와주었거나 천하고 낮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 자신의 피선의 길을 닦아왔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위해 “옳거나 그릇되거나” 영광으로 자기 자신을 덮어줄 준비를 갖춘 칭송하는 대중의 어리석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서둘러 전쟁의 극장으로 달려가는 허영심이 강하고 거만한 지원자에 못지않게 저주받을 자로 본인은 그를 배정할 것입니다.

.....

그 설교강단은 망상을 소중히 하는 데에 그것의 원조를 또한 제공하여야 합니다. 죽은 영웅들을 위한 몇 번의 교회예배에서 몇몇 타락한 영웅들의 찬사가 자주 들립니다. 따라서 교회예배를 전쟁의 하녀로 섬기도록 함으로써 평화의 왕의 종교를 속되게 만듭니다. 양군 모두의 전장에서 급여를 받는 군목들의 기도들이 심지어 무기들의 소음 속에서조차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해들이 거듭되는 동안 연이은 안식일마다 바다나 강가와 적군 군대들의 성공을 비는 기도들로 메아리치는 반대편에서도 강단들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마치 하나님 이 그들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며, 검들과 총알들을 그들의 상대편 적들의 머리와 심장으로 이끌어 명중하도록 위임하여 각각의 군이 적군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

그러나 모든 국가의 논쟁들이 어떻게 수습되어야 할까요? 철학, 역사, 성경은 모든 논쟁들, 오해들, 소원감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소리내야하고, 시도되고, 이해관계가 없는 중재자들에 의해서 공평하

게 판결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중재자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는 적당한 재판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쟁들은 결코 우호적인 화해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만약 있었다면, 문제를 보는 관점들의 공정한 결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마침내 평화를 위한 사전준비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들의 대표자들은 만나야 하고, 규정하고, 재규정하고, 듣고, 답하고, 비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현대시대에서 우리들은 평화조약으로 적대감들을 끝냅니다. 우리들은 화약과 총알로 화평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성과 반성과 협상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왜, 이것들을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은 오랫동안 있어왔고, 언제나... 무력으로 그것들의 마지막 주장이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수세대 동안 한 아버지 조사관은 정통교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빛은 해외로 가버렸고, 그는 권세를 잃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인간의 마음을 또한 밝게 하고, 좀더 이성적이고 인정 있는 여론을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전쟁들은 그칠 것입니다.

.....

그러나 모두가 이성과 정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유일하게 강제적인 척도가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인 강요는 없을까요? 모든 사적인 오해들이 칼에 의해서 해결되어져야 합니까?

.....

합법적인(by-law established) 조정관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연방법원만큼 편리하고, 실천 가능한 국제연합법원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요? 평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제안되고, 응변적으로 능숙하고 자비롭게 논의된 것처럼, 모든 부정들과 불만들을 판결하고, 가식을 끝내고, 고치기 위해서 나라들의 국회와 나라들의 최고법원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

우리가 주장한 전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는 권리가 그 경우에서 유죄한 자들 이외에 아무도 고통 받지 않은 한 스스로 전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전쟁에서는 무죄한 사람들이 유죄한 자들과 함께는 물론 종종 유죄한 자들 없이도 고통을 받습니다. 유죄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며 무죄한 자들은 그 전쟁의 결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2.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전쟁을 수행할 권리는 다른 어떤 국가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정통치 아래 있었고, 국가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안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정당하게 혹은 기독교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의 정상을 참작해서 유대인들의 전쟁들로부터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훈계와 권위를 가졌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국가도 그러한 보증서를 내보일 수 없습니다.

3. 예언들은 메시아 그분이 “평화의 왕”일 것과 그분의 통치아래서 “전쟁이 그칠 것”과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4. 천사들에 의해서 처음 선포된 대로, 복음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만드는 결과를 낳는 메시지입니다.

5. 싸움과 다툼이 사람들의 정욕과 사악한 열정으로 좇아 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명령함으로써, 기독교의 훈계들은 적극적으로 전쟁을 금합니다.

6. 그리스도의 팔복은 애국자들과 영웅들 그리고 정복자들에 관하여 선포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S)에 대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계급과 지위가 주어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THE SONS OF GOD)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7. 전쟁의 어리석음은 다음의 독특한 내용들에서 표명됩니다.

첫째, 그것은 결코 정의나 옳음의 입증을 위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그것은 결코 논쟁의 만족스러운 끝일 수 없습니다.

셋째, 평화는 항상 협상의 결과이며, 협약들은 그것의 보증과 서약입니다.

8. 전쟁의 사악함은 다음의 독특한 내용들에서 설명됩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형제들을 살해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군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도발의 이유를 갖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좀처럼 혹은 결코 전쟁의 옳고 그름됨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양심의 허가 없이 행동합니다.

셋째, 모든 전쟁에서 무죄한 자들은 유죄한 자들과 함께 화를 당합니다.

넷째, 그것들은 군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서, 그가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국가법에 의해서 그의 생명을 빼앗길 일을 하도록 억지로 시킵니다.

다섯째, 그것들은 사회에, 도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른 모든 악행들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좋은 전쟁이나 나쁜 평화는 없었습니다."고 말한 프랭클린 1세의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주후 2-3세기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 드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 저스틴, 타키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등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모든 고려들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본인은 이 근거를 내세울 것입니다. 인간성의 단순한 요구들을 떠나서 건전한 국가 정책의 근거에서 그것을 재촉할 것이다.

전쟁들에서 낭비한 돈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본인은 세계에 있는 매 에이커의 개간되어야 땅을 개간할 것입니다. 습지를 배수하고, 모든 사막을 정복하며, 모든 산과 언덕을 비옥하게 하며, 전 지구를 일련의 지속적인 작업으로 기름진 들판들, 푸른 잎이 무성한 초원들, 아름다운 저택들, 촌락들, 읍들, 도시들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본인은 전 인류를 교육할 만큼의 많은 학교들과 아카데미들과 대학들을 세우고 설비하고 기부할 것입니다. 또 교회들, 공개홀들, 문화회관들을 짓고, 그것들에 수십 억 인류의 필요를 채우는 도서관들로 설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러분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며, 여러분의 군함들을 개조하여 선교사들의 짐을 운반할 배들로 만들고, 여러분의 병기고들과 전쟁의 군수품들을 성경들과 문학과 과학 그리고 예술의 모든 설비들로 바꾸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인은 남은 돈을 몇몇 새로운 기획들을 위해서 의심할 바 없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우리 모두는 그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우리들은 이 주제에 관한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평화주의자 정신을 고취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쟁에 반대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손을 일하는데 쓰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때가 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군대가 군대와 더불어 마주치지 아니하며, 살해된 자들의 군중이 애도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회관에 나팔을 매달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1849

총회 소집에 관하여

On Calling a General Convention

해설

책임 있는 총회 구성의 문제는 1849년 초봄에 수면에 떠올랐다. 1843년에 열린 캠벨-라이스 목사 토론대회 때에 켄터키 렉싱턴에서 개최된 한 모임과 1845년 D. S. 버넬(Burnet)이 발족한 미국 기독교 성경 공회(American Christian Bible Society)의 구성이 문제를 압박하였다. 인디애나와 켄터키 같은 몇몇 주(州)들은 이미 발 빠르게 지역 협의회들을 구성하였다. 캠벨은 결국 총회를 위한 신호를 보냈다. 다음의 글들은 칠 년간의 토의가 있고 난 후에 나온 것들이다(From *The Millennial Harbinger*, Series III, Vol. VI, No. V, May, 1849, pp. 271-273 and Series III, Vol. VI, No. VIII, August, 1849, pp. 475-476).

총회 소집에 관하여

교회조직 4번(1849년 5월)

우리는 기독교 믿음과 예배 그리고 훈련, 또는 우리가 믿음과 경건 그리고 도덕성의 큰 범주들 아래서 지정한 것들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폭넓은 인침아래서 이미 제정되고 승인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들로 간주하며, 어느 노회나 총회 또는 대집회 그 무엇도 그것들에 어느 것을 더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어느 것을 제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는 동등하게

성경적이면서 좀더 생생한 큰 조목들 가운데 하나를 지정하여 수정 동의를 할 것이며, 그것을 믿음과 경건과 인간성으로 읽을 것이다. 이것들은 교회적이든 정치적이든지 간에 지상의 법정들을 뛰어넘는 주제들이다.

침례교인 협의회들, 특정 지역들에 퍼져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의 장로들과 대표들의 기독교 회담들은, 다양한 형태들(modifications) 아래서, 우리 시대와 나라에 화합하였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채택되었다. 그것들 전체의 도덕적 혹은 교회적 권위는 순수하게 협정적이며, 해당 지방 교회들 사이에 엄숙히 합의되고 승인 받은 계약조항들에 좌우된다. 이들 계약들과 교회법들은, 물론, 그것들에 입문하는 교파들이나 교회들의 자발적인 합의 이상의 다른 권위를 갖지 아니하나 다른 모든 계약들처럼 그것들 각각의 조목들이나 합의조항들의 분명한 문구에 도덕적으로 묶여 있다.

.....

개정과 폐지는, 지금 필자에게 있어서 이전처럼 개정할 수 있거나 동일한 용어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는 사회집단의 변영(fortune)과 지위(character)를 채택함에 있어서 편의성의 문제들에 관하여, 만약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임시심의집회들이 열리기를 바란다.

.....

만약 우리가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 그와 같은 모임들과 회담들에 앞서 합법적으로 유리하게 다가올지도 모를 모든 목적들을 상술하는 것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다. 공공출판사,... 작은 신앙책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변영과 세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회심에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종류의 도덕적 기관들은 목적을 위해 또는 이들 지방 혹은 주(州) 협의회들의 연차총회들에서 제기된 위원회들에 의해 총감독권을 유리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목적들이다.

.....

만약 우리들의 형제들이, 온건한 범위에서, 편지로 그들의 반대 의견들과 승인 또는 수정내용들을 보내온다면, 우리들은 신속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겠고, 신시내티, 렉싱턴, 루이빌 또는 피츠버그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일에 그들과 의견을 일치할 것이다.

알렉산더 캠벨(A.C.).

총회

(1849년 8월)

필자는 그리스도의(Reformation) 교회들의 대집회 혹은 총회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필자는 그것이 개혁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려 한다. 필자는 신시내티가 그 같은 대집회를 열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또한 생각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 같은 집회장소가 얻어질 것인가, 언제 그 집회가 열릴 것인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열 것인가가* 남아 있는 과제들이다. 필자는 기껏해야 이것들을 제기하거나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집회가 큰 서적재단(concern)을 만들기 위한 출판인들이나 편집자들의 대집회이어서는 안되고, 가능하다면, 모든 교회마다 한 사람씩, 또는 불가능하다면, 한 지방에 한 사람, 또는 일정한 교회수마다 몇 사람씩 교회들에 의해서 선별되고 구성된 교회들의 대표자들의 대집회이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몇몇 개인 자격의 대표들이나 하나나 둘 또는 서너 지방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이어야 한다. 필자는 지해도 경건도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도 상담자들의 다수 속에는 몇몇 소수보다 더 많은 총체적 안전과 더 많은 확신이 있다.

그와 같은 우선적인 대집회의 목적은 더 효율적이고 성경적인 조직과 성경목적과 선교목적과 교육목적에서 더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총체적 요구에 의해서 이미 지적되었다.

알렉산더 캠벨(A.C.)

1849

여성의 권리에 관하여
On Women's Rights

해설

1849년 말, 캠벨은 켄터키 루이빌에서 열린 한 연구과정에서 “사회상태의 개선에 관하여”란 제목의 공개강연을 하였다. 우리는 그 연설문을 읽으면서 캠벨의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동등하다는 인식을 호소하고 있고, 여성들이 충분히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된다(From *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 pp. 47-72).

여성의 권리에 관하여

이것들은 상태개선에 있어서 두 가지 최상급의 매개체(agency)입니다. 그것들은 여성과 성경입니다. 또는 만약 둘 중에 하나만 만들기를 기뻐한다면, 그것은 손과 여성의 마음에 있는 성경입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여성은, 영혼이 몸에 관계하는 것처럼, 사회에 관계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여성 없는 사회 또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사회를 활기차게 하고 움직이게 하며 보수하는 요소입니다.

이제 여성의 지성과 도덕적 문화 그리고 한 남성의 발 옆에 앉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는, 그들 자신에게 적당한 위상에서의 상승은 국가와 교회 그리고 세계와 사회체제개선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그것의 중요성에서 볼 때, 아직도 사람의 머

리와 마음 혹은 손으로도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선악과 행복행에 대한 여성들의 힘이 심지어 현자들과 우리들 개인 민족의 정신적 비전에서조차도 충분한 분량에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고상한 행동들, 그들의 찬란한 풍자들, 그들의 영웅적 업적들, 그들의 강력한 재능 또는 공중 미덕들이 거의 모든 유럽의 중요 왕국들에 빛을 비췄던 근대 유럽세계의 뛰어난 여성들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으로는 덴마크의 여왕 마가렛(Margaret)... 여류작가이자 시인인 헨리 4세의 어머니, 발로이스(Valois)의 마가렛, 비록 삼십 명의 왕들 그리고 여왕들과 동급이고 친 인척간이었지만, 여가시간들을 궁정식으로 여흥을 즐기는데 보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같은 불어로 쓰인 신앙서적들을 번역하는데 보낸 교육의 후원자이자, 두 개의 대학 설립자인 헨리 7세의 어머니인 또 다른 마가렛, 찬란한 업적들과 여러 종류의 큰 재산들로 40년 간 유럽을 놀라게 한 헝가리의 여황제이자, 찰스(Charles) 6세의 딸인 마리아 테레사(Maria Theresa), 그녀의 딸, 마리아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오스트리아의 대공비(Archduchess), 그리고 불행한 루이스(Louis)의 아내인 프랑스 여왕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으로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캐서린(Catherine)들, 영국의 엘리자베스(Elizabeth)들, 메리(Mary)들 그리고 앤(Anne)들과 천명의 다른 귀족들과 뛰어난 이름들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왜 여성들의 힘을 예증함에 있어서, 고상한 품위와 높고 높아진 위상과 뛰어난 행운의 여성들을 그렇게 많이 열거하는가라고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성들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고, 여성 특유의 탁월한 속성들을 십분 활용하여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훈련된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행동들이 인류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대답합니다. 조세핀(Josephine), 마리아 루이사(Maria Louisa), 앤 블레인(Anne Boleyn), 잔 다르크, 제인 그레이(Lady Jane Grey) 그리고 지금의 빅토리아(Victoria)는 눈에 덜 띄는 평범한 여성

들보다 대중에게 얼마나 더 많이 알려져 있는가!

미신과 허구(romance)의 시대들에서 한결같이 떠나있는 우리들의 시대는, 탁월함에 이르는 여성의 능력에서 뿐 아니라, 일반 문학과 과학 그리고 시, 음악, 회화의 예술분야에서 여성의 성공적인 경쟁과 훌륭한 생활에서도 더 분명하고, 더 인상적이고,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한 본보기들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도덕적인 이야기들의 작가로서 에찌워스(Miss Edgeworth) 양, 비극 작가로써 베일레(Miss Baille) 양, 재치 많고 쾌활하고 잡다한 글의 작가로서 드스타엘(Madame de Stael) 부인, 여행가로서 마르티뉴(Miss Martineau) 양, 도덕가로서 보우들러(Mrs. Bowdler) 부인, 그리고 도덕 교사로서 세찌위크(Miss Sedgwick)와 같은 저명한 사들에 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교훈적인 예술에서조차도 여성의 탁월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최고 모델들은 아닙니다. 본인은 영문학에 지금 어울리는 헤르만스(Hermans) 부인과 우리들 자신에 어울리는 시저니(Sigourney) 부인과 같은 저명인사들에 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고, 한나 모어(Mrs. Hannah More) 부인과 비처(Miss Beecher) 양의 동일 장르에서 뛰어난 잡다하고 도덕적인 작품들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매주 찾아오는 방문객들만큼이나 혹은 그들의 작품들은 일상 쓰는 어휘들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여성이 더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체제 아래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모든 존경할만한 증인들이며, 동등한 명성을 가진 천명의 여류명사들과 더불어, 여성의 지성이, 수세대동안 우리가 바라기는 영원한 과거인 여성의 광채를 위해서 고정시켰던 비천한 표준들을 훨씬 능가하는 총체적인 규모 위에서 그것을 빛낼 좋은 교육을 받을 적당한 장치들을 오로지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회는 아직 충분히 문명화되지 있지 않습니다. 문명화되어지는 초기일뿐입니다. 일들은 진행과정에 있고, 또 다른 세대, 즉 인간역사의 황금기로, 천년기로, 행복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폭력, 과도한 야심, 복수, 결투, 심지어 전제정치, 압박과 잔학함은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아직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류의

행복, 즉 진심 어린 박애를 바라는 큰 목소리의 요구를 정말 휘방하는 것들입니다. 여성은, 본인이 믿는 바로는, 지상에서 사회를 가장 영광스러운 운명의 정점에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운명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깊고 더 철저한 대중의 태도들과 관습들의 개혁을 원하는 자이며, 누가 가장 높은 지상 질서의 사회적 쾌락들을 추구하며, 이성적인 기대나 종교적인 기대를 붙잡고서 가장 높은 지점에까지 사회 상태의 개선을 촉진시킬 자인가?

그로 하여금 여성의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대범하고 도덕적인 교육에 주목하게 하십시오. 그로 하여금 그녀가 사회의 도덕적 개혁의 모든 작업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주권적인 권세뿐 아니라, 신성한 모델을 따라 인간본성을 주조할 즐거운 임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씨를 뿌립니다. 그녀는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위대함의 싹들을 심습니다. 그녀는 미래시기에 관대한 목적과 이롭고 고상한 원칙들을 만들고, 제3, 제4, 종종 제10 세대에 이르는 변영의 특징과 운명들을 다듬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군대들을 모을 땅에 사는 모든 애국자, 모든 박애가, 모든 선량한 시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모든 에너지들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여성 교육의 큰 목적에 협력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또는 주로, 유복하고 존경할 만한 딸들만의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는 모두의 교육이며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여성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고 적절한 사회상태개선에 필수적인 그 여성 교육을 탄원할 때, 우리가 말하는 바는, 지금까지 상상되었던 것보다 더 대범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족 또는 국가의 부는 결코 미국의 모든 아들과 딸들의 정신적 도덕적 교육에서 보다 더 이롭게 전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에, 세계에, 이 가장 유용하고 존경할만하고 이익이 되는 유한한 일들에서 우리 자신들이 분발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책임들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

받을 우리의 능력에 깨어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력과 우리의 영향을, 우리의 다른 수단과 더불어, 모든 문학과 과학의 길들에서 여성의 높은 발전의 편에 놓으며, 종교와 도덕성의 편에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가정과 사회의 건강, 즉 국가사회의 도시와 교회 그리고 세계의 매력들을 크게 향상할 시킬 것이고 달콤하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1850

사형제도에 관하여
On Capital Punishment

해설

사형에 관한 캠벨의 견해들은 5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것들은 1845년 9월 『밀레니얼 하빈저』(*Millennial Harbinger*)에 짧은 글들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850년 10월에 마지막 글을 싣고 끝을 냈다. 그것들은, 연속성의 목적을 위해, "사형은 하나님의 권위로 승인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함께 드러난다. 다음의 글은 이 제목의 글에서 발췌되어진 것이다(From *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 pp. 311-341).

사형에 관하여

우리들은 위대한 도덕 혁명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존중했던 견해들과 수세대의 헌신으로 신성하게 된 관례들 그리고 가장 존경받을만한 분들이 존중했던 제도들은 동일하고 냉정하게 엄격한 분석을 지금 받고 있고,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과오들과 가장 무자비한 혁신자들의 가장 근거 없는 가설들이 지금 너무 무자비하게 운명 지어진 것에 동일하게 가차 없이 호된 시련을 겪게 한다. 인간의 사회적 도덕적 관계들의 위대한 주제에 관한 이교도 학교들의 가장 인기 있는 이론들의 거의가 참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때 거의 상처 없이 나오지 못한다.

.....

플라톤 시절 이후부터 사람들은 공화국들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질서들과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명칭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인간의 나약함과 회의론의 과시들일 뿐이다. 성경은 공화국들과 국가들 그리고 왕국들을, 어떤 독특한 이름을 그것들에 붙이지 않은 채, 재가하고 있고, 인간 정부의 어떤 형태도 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의 형태도 지상의 모든 나라들과 지방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그것들이 모두에게... 정의를 베푸는 권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토론의 자유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혁신의 정신과 일치해서, 한 질문이 토의되었고, 매우 중대한 토의의 문제가 미국의 대중 앞에 지금 있다. 또한 한 질문이 있지만, 본인의 비천한 판단으로는, 이 목숨에 관해서 어느 것도 이보다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할 가치가 없고, 그것의 결정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정부와 사회의 모든 정착물들과 지상의 모든 주권의 범위 그리고 국제법과 상업과 책임의 모든 원칙들의 토대에 관여하는 이 보다 더 두렵고 중요한 결과들이 따르는 것은 없다. 그 질문은 엄숙한 의문으로 묻게 된다. *사형은 하나님의 권위로 승인되는가? 혹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설명으로든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취할 권리가 있는가?*

만약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본인은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갖지 않으며, 인간에게서 유래하고, 그와 같이 엄숙하고 무서운 행위에 권한을 부여할 보장이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직접적인 권위가 그 문제를 놓고 따지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지만, 세계의 관심들을 그렇게 깊숙이 연루시키는 결론들이 제시되어질 그 전제들을 조용히 사려 깊게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하는데 필요한 논쟁들과 자극들으로써 그것들을 얼마간 존중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만약 사람이 죽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국가들은 어떤 경우 어떤 목적으로도 전쟁에 나갈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선 먼저 백성 가운데서 발견되어진다는 것과 인간들은 그들이 그들 각자의 능력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인습적으로 또는 그런 상태 속에서 결백하게 또는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진실로 정부가 조직될 때, 정부의 시민들이나 국민은, 법률을 제정하고 재판하고 징계하는 권력, 즉 사회계약에 의해서 또 분별 있는 목적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부에 넘겨주고 이양했던 권력들을 사용하거나 행사하지 못한다. 여전히 국가들은 모든 개인이 사회의 국가형태 이전에 행할 권리를 가졌던 바로 그것들을 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근본적인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죽일 권리를 원래 갖지 않았다면, 사회는 창조주의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권리를 결단코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보일 그와 같은 것은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었다. 인간의 자연스런 이성 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 피살자의 피는 살인자의 피로 보복 받아야 한다는 것과 피살자의 형제가 그의 피를 보복할 권리를 가졌던 제일순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법령화하였다.

전쟁들은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다. 그러나 어느 관점에서든지 전쟁들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가정 아래 시작되어지고 수행되어진다. 왜냐하면, 아무리 둔감하더라도, 사람이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다면, 그는 천명이나 백만 명을 정당하게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군가에게 납득시킬 어떤 주장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이지는 않더라도, 사형의 완전폐지에 찬성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새로운 철학 학파들의 가장 교리적인 몇몇 분들은 처벌의 유일한 끝이 범죄자의 교정이며, 살인자는 회개학교에 보내져서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하고 적절하게 교육받고 명예롭게 수료하게 되면, 사회가 확신해도 좋을 신분증을 쥐서 더 유리한 정황들 속에서 그 자신을 발전시켜가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것은 사형을

대신할 가장 인기 있는 대안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처벌이 법으로 시행되어야하고, 범법자들의 교정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으로 시행되어야한다고 단언하는 자들에게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베타적* 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 *베타적*이 아닌, 뚜렷하고 특별한 관심은 범죄자의 교정에서 나타나야 한다. 또한 국가안전과 선량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자들의 보호에 특별한 최상의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 모든 문명공동체의 법률은, 가능하다면, 범법자의 교정을 국가의 안전에 결합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지켜질 것인가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문제이다. 종신형 언도가 국가에 대한 보호나 안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 판정은, 첫째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처럼 집행되지 않는다. 통치자들은 때때로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 번의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극악무도한 사람이 탈출에의 희망으로 교도관들이나 동료 죄수들 가운데 몇몇을 살해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고, 감옥에 불을 지르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도주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데 있다. 그는 평생 감금당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일한 더러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지 모른다.

이런 종류의 전례들이 수도 없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죽음이야말로 모든 전제들에 입각해서 교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확신을 주장한다. *악의에 차고 사악한 살인자*가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어 여러 날 또는 수주 후에 처형시키는 사형을 언도 받을 때, 사면의 모든 희망은 영원히 사라져버릴 때, 그때에 복음교육은 갱생원의 담 안에서 길고 짧은 삶의 변화들에 미칠 효과보다 비할 데 없이 변화에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우리가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든,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든지 간에, 사형언도가 신속하고도 확고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자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우리는 살인이외의 어떤 다른 범죄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매우 진정으로 동감할 수 있다. 진실로 사형제도에 대항하는 흥분과 분노의 상당수가 두 가지 근원, 즉 죽음에 합당하다고 판결되었던 수많은 범죄들과 종종 유죄자가 도피하는 동안 무죄자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이 목숨을 목숨으로 요구하는 정의에 반대되는 논리를 펴는 다양한 주제들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이들 논리와 논쟁의 근거들에서 주장될지도 모를 모든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기보다는, 이 주제에 관한 모든 단순한 인간의 논리들과 법령들이 얼마나 의심스럽고 설득력이 없는가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형법이 시대정신이나 유럽과 미주 문명의 주도적인 분위기에 끌려가고 있지 않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기독교의 정의와 인간성 그리고 자비는, 진실로,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 자신의 것에서보다 하나 더 많은 것에서, 정치적인 법률과 정치적인 정의를 크게 개정하였고 개선하였다.

.....

우리는 세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죄와 미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벌과 처벌에 차별을 두는 징계제도를 주창한다. 우리는 한 가지 동일한 처벌을 백가지 범죄들 개개에 또는 모두에 내리는 수평적 징계의 정의나 편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일 실링을 훔친 사람을 목매달지는 않을 것이며, 반역죄와 신성 모독 또는 강간과 살인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체찍을 맞아 마땅한,”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죽음에 합당한”과 같은 성경의 구절들을 믿는다. 이들 어법형식들이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쓰인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보다는 신약성경에서 더 자주 쓰인다. 그것들은 사형을 지지하는 건전하고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이 연역될 수 있는 어구들이며, 그것에 반대했던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서도 감히 사용하지 못할 어구들이다.

.....

모든 공동체의 형법은 그것의 도덕적 의미와 그것의 도덕적 특성의 목록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 시민들의 삶과 자유와 특성 또는 번영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의 비교 범죄성과 악성에 따른 그 견해

의 허가된 해설, 즉 큰 국가의 지성과 도덕적 미각과 도덕적 탁월성에서 그 자체의 시민들과 세계에 비쳐질 광택을 낸 거울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범죄성에서 그것들의 등급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수많은 경범들에 동일한 처벌을 부가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도덕적 지각들을 혼동시킬 것이고 당황하게 할 것이며, 인간 행동들의 비교 잔인성과 악성의 매우 거짓된 잣대를 세상에 들어내 보일 것이다.

.....

이들과 같은 고려할 사항들과 논리들로부터, 우리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에서만 사형에 처하고, 감정이나 무절제 또는 어떤 유혹과 그밖에 것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되지 않는 인간 행동들의 범죄성과 사악함의 가장 정확한 견해들에 맞춰서 처벌들의 규모를 주창할 것이다. 죄 있는 자들이 도망하는 동안에 가끔 죄 없는 자들이 고난을 겪게 될 근거 위에서 가끔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 예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심의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을 그와 같은 증언의 힘과 유죄의 입증 없이 유죄 선고를 받은 어느 누군가의 가능성을 방지할 그와 같은 법률적인 준비들은 없었는가? 우리는 그러한 준비의 실행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

그리고 구약성경에나 신약성경에 사형을 금지하는 말이 없고, 그것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단 한 번의 암시도 없다. 오히려 논리들은 결코 간과될 수 없고, 그것들이 가인과 노아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절에 그랬던 것만큼, 이 시간에서도 강제적인 목숨에 대한 목숨의 요구의 기초로써 주어진다. 우리는 그것이 설립된 넓고 깊고 견고하고 영속적인 전제들의 모든 고려에 그것의 의무와 효용의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진 법령을 되풀이한다.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 행정관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미 고려한 전제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한, 사형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중요성을 명료하고 확실히 확립된 것으로써 간주해야한다.

1852

우리나라의 운명에 관하여
On the Destiny of Our Country

해설

이 연설은 캠벨이 펜실베이니아 주 케논즈부르그에 위치한 제퍼슨 대학(현재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군에 위치한 워싱턴과 제퍼슨 대학)의 한 문학협회에서 1852년 8월 3일 대학설립 50주년 기념으로 행한 것이었다. 다음의 글은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다(From *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 pp. 175-185).

우리나라의 운명에 관하여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하여금 모든 국가들과 우리나라에게 의롭고 진실하고 자애롭게 합시다. 그러면 국가는 세상 끝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시간과 인간의 삶의 맥박은 마음의 행동을 나타낼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우주는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자선의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선은 국가의 자매 나라들을 위해서 의로움과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의 도덕적인 특징인 이 존재는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이 원칙들 위에서만, 우리나라는 국가의 소원들과 행복뿐 아니라, 모든 위대하고 현명하고 착한 인류의 기대들과 기도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세계에 세워지고 알려지게 해서, 우리가 엄격하고 타협하지 않는 인권옹호자들이 되게 하며, 미국은 “용감한 자들

의 고향'일뿐 아니라, "자유인들의 땅"이 되게 하며, 우리는 동등한 권리들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도덕적 감정들 이외에 어떠한 주권에도 굴하지 아니하며, 열린 팔과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나라들과 방언들의 억압받고 짓밟힌 자들이 이 나라에 오는 것을 환영하며, 옛 세계가 우리의 항구들과 집들에 무지하고, 미신을 믿고, 억압에 짓눌린 농노들과 대중을 쏘아 붓는 동안, 우리들은 공립학교들과 공공자선봉사로 마귀 같은 왕과 제사장의 술수로부터 그들을 빼앗으며, 우리의 공립학교들과 우리의 일반 교회들과 우리의 일반 대학들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존경, 즉 기독교 신앙과 국가의 신성하고 거룩한 창설자이신 최고의 박애주의자를 가리킴으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이게 함시다.

.....

애국심은 기독교 신앙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됩니다. 국가의 창설자는 국가에 대해서 결코 한 문장의 칭찬도 말 씀하지 않았습시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세계가 그분의 땅이었고, 애국심은 오로지 이기주의 원리의 연장이므로, 그분은 그것에 관심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는 지금 인류의 크고 파멸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도덕성에 대한 바로 그 시금석은 자기사랑입니다. 우리는 더도 덜도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확대된 정신과 마음에서 볼 때, 우리의 이웃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랑은 국내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해외로 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에 따라서 사랑의 축복들은 인간의 거주지 끝까지 발산시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들의 사랑을, 그것의 특별한 통용으로, 그들의 마을과 그들의 교구 또는 그들의 교회를 넘어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동상 입은 아이슬란드인(Icelander)이나 햇볕에 화상을 입은 무어인(Moor)¹⁾이

1) 역자 주: 무어인이란 용어는 이슬람계인으로서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여 왔으며, 그들은 아랍계나 베르베르족의 후손들이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무어인이 차지하는 의미란 이슬람계의 공화국(마우

선을 베푸는 우리지역으로 올 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때, 그의 상처와 멍든 곳에 그것을 달래고 누그러뜨릴 기독교인의 자선 연고를 듬뿍 바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여 선을 베푸는 데 우리의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도덕적 탁월함과 그것의 부와 그것의 명예와 그것의 특성을 진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의 힘을 증대시키고, 그것 없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인류에게 베풀 수 없는 축복들을 통용할 그것의 수단을 확대시킵니다.

미합중국은, 배움과 예술과 과학 그리고 인간의 부와 권력의 모든 요소들에서 성장함으로써, 진실로 온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까지 축복들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의 건강과 부와 위대함과 특별히 외국 나라들의 복음화는 물론 자유와 개선과 문명을 위한 가장 큰 배려의 그 자연스런 특징을 진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가장 튼튼하고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그리고 또 인간의 대가족의 문명과 진보를 잉태한 기초를 놓습니다. 이런 방식에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유한한 인간들이 하늘이나 지상에서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유산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나라와 백성으로써 우리가 관대하고 도량이 크고 자애로운 나라로써 시대의 배경에 우뚝 선다면, 우리는, 태양이 빛을 발하고 끌어들이는 만큼 분명하게 국가들을 축복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받을 것이며, 위대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행복한 백성의 모든 요소와 특징 가운데서 성장할 것입니다.

레타니아, 모로코, 서사하라, 알제리, 말리 등)에 사는 특정 인종을 지칭한다.

1853

선교의 필요성에 관하여
On the Necessity for Missions

해설

1853년 10월, 캠벨은 창설이후 줄곧 대표로 있었던 미국 크리스천 선교사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의 총회에서 연설하였다. 선교사회는 창설이후 4년 동안에 한 명의 선교사, 제임스 T. 바클레이(James T. Barclay)를 예루살렘에 파송하고 있었다. 그의 연설은 선교사회의 사역의 범위를 넓히려는 호소에 집중되어있다(From *Popular Lectures and Address*, pp. 518-530).

선교의 필요성에 관하여

기독교 선교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선교와 천사들은 메시지와 메신저가 서로 연관 있는 것만큼이나 동시대의 것입니다. 그 하나는 다른 것을 암시합니다. 메시지가 메신저를 암시하듯이, 두 가지 모두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암시합니다.

.....

기독교 정신은 본질적으로 매우 전파가 쉽고 선교 지향적이어서, 그것의 모든 형태들은 그것의 제국을 확장하고, 모든 땅과 모든 백성사이에서 그것을 전파할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도들과 모든 이름의 신교도들은 국내의 선교를 제정하여 유지하여왔고, 생명과 평강의 왕(Prince of Life and Peace)의 홀과 통치 아래로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세계 복음화에 그들이 힘쓰면서 상

당부분의 재산과 삶을 바쳤습니다.

.....

육신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명예들과 보상들을 보장받으려고 평생 동안 몸과 혼과 영혼을 다해 힘쓸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했을 때도 강렬하고 죽지 않는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약간의 가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인간의 마음에 소중한 모든 것을 위협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와 축복과 그 자신의 퇴화하는 인종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과 비참함과 오명과 파멸로부터 영광과 명예와 불멸에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진실한 마음과 계몽된 열심과 지치지 않는 노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고귀한 지배자를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기독교 전령 혹은 선교사는 지구가 제공할만하거나 천사들이 이편에서 하늘 예루살렘의 문들을 보았던 가장 고결한 장관입니다.

.....

이 크리스천 선교사회(Christian Missionary Society)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이와 같은 개념들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분 자신의 교회와 이름과 장소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심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과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이 타락하고 황당한 세계의 모든 직업들(callings), 추구들과 사업들을 훨씬 능가하고 중한 것을 체험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사도들에게 주어진 위임은 하나의 선교지로서 전 세계를 포함하였습니다. “너희는 모든 세계로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성만큼 넓고, 시간만큼 영속적인, 혹은 아담의 모든 아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까지, 이 위임은 그것의 문자와 정신과 의무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참으로 사도들은 그들의 저술들을 통해서 아직도 지상에 계십니다.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여전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

이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의 웅장한 사역, 즉 19세기 교회의 장엄한 의무와 특권과 명예에 의한 것은 물론 우주적인 승인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세계의 조건, 즉 이교도 국가들, 그들의 언어들, 관습들, 의식들, 그리고 관례들의 조건의 학습, 과학, 재산, 그리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지구와 함께 그것의 모든 바다들, 호수들, 강들, 그리고 항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시대의 예술과 개선들에서, 그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를 끌었고 모든 이방 나라들과 모든 신조들과 모든 관례들을 존경하도록 명령한 우리의 무역과 상업으로 거리와 시간을 거의 소멸시켰습니다.

우리의 국기는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휘날립니다.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언어는 존경과 지상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의 경의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길, 즉 어떤 사람이나 국가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으로써, 그 사역, 그 위대한 사역, 곧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사역, 곧 죽은, 불법과 범죄로 영적으로 죽은 세계에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시려고, 특별한 부름, 큰 소리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의 부름에 냉랭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한 개의 선교센터, 즉 한 센터, 참으로,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의 직업에 가장 잘 들어맞고, 위대한 왕의 옛 도시, 다윗의 도성, “거룩한 언덕”의 정상에 있는, 한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왕실 거주지, 즉 성스런 솔리마(Solyma), 곧 평화의 거처였던 곳에 한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성막이 오랜 유랑생활을 끝내고 서있었습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곧 황금 궁전이 서있었습니다.

.....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평판과 감탄에서 볼 때, 모든 기독교계의 눈에 대단한 매력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

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곳을 방문하고, 머무르고, 흥미를 갖는 수많은 여행가들, 즉 유대인들, 터키인들, 무신론자들, 가톨릭교도들, 신교도들은 그곳에 최우선의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앙을 저버린 기독교계의 거짓 철학들과는 거리가 먼 최초의 복음과 사도전승의 전령을 주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노련한 선교사는, 심지어 사적이고 일상적인 산보에서조차, 낯선 사람들과 거주자들과의 그의 매일의 교제에서, 선교를 처음 시작하였고, 그것을 지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안식을 취하게 될 때, 많은 나라에서 솟아오르고, 하나님에게는 영광, 사람에게는 행복의 큰 수확을 가져올 값진 씨앗을 많은 심령에 뿌릴는지 모릅니다.

.....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리의 열정과 능력과 너그러움의 배타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세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선교는 우리의 선교 의무와 사업과 자선을 배타적으로 베풀어야 할 모든 세계가 아닙니다. 국내외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짓밟힌 아프리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성과 동정심을 취할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의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나 이것들은, 또 하나의 대륙에 위치한, 해외 선교사역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국내 선교센터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메리카 시온의 영역들을 넘어 갈아야 할 아무런 논밭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외 선교사역들뿐 아니라 국내 선교사역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주장할 요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들을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습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심사숙고를 요청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회로써가 아니면, 한 형제사이로써, 그들에게 약간의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합니까?

.....

켄터키에 있는 형제들의 자비심을 통해서 한 유색인 형제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 그는 천부적 재능을 가진 복음 설교가이자 사역자이며, 그와 같은 사역지에 훌륭한 자격을 갖춘자입니다.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에브라임 A. 스미스(Ephraim A. Smith) 형제가 자진하여 자신의 비용을 들여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라이베리아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돌아와 그곳의 상황들을 보고하기로 자원하였습니다. 그는 재정원조의 형태로 이 선교사회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또 이 경우에 특별히 알아야 할 바램을, 적어도 본인에게, 전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본인이 하고 있는 것만큼 매우 잘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있으므로, 앞기 전에, 다음의 결의, 이를테면, *에브라임 A. 스미스(Ephraim A. Smith) 형제에게 적당한 간격으로, 특별히 라이베리아와 일반적인 아프리카의 상황과 전망들에 관해서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센터의 위치를 포함한 정보와 함께, 이 이사회의 연락비서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과 이 기관뿐 아니라 모든 장소의 모든 형제들은 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은혜의 보좌에 기도들을 올릴 것을 제안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러운” 인간성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에게는 복됨의 부요한 수확을 낳게 할 것입니다.

1854

대학들에 관한 연설

Address on Colleges

해설

버지니아 주 휠링(Wheeling, Virginia, 현재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1854년 새 예배당 헌당식 때에 캠벨은 대학들의 필요와 지원에 관한 감동적인 연설을 하였다(From *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 pp. 291-307).

대학들에 관한 연설

모든 등급의 대학들과 학교들은 인간본성과 인간사회에 있는 약간의 위대한 원칙 위에서 설립되어지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것들은 모든 인간의 대사회(對社會)와 대우주(對宇宙) 관계들에서 인간의 건전한 철학위에 설립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교육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요소들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는 “사람들이 예술과 과학과 언어에서 혹은 어떤 학습 종류에서 가르침을 받는 어떤 제도”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따금 학문을 위해 모인 학생들을 단순히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족학교, 유아학교, 보통학교, 아카데미, 대학 또는 종합대학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주제들이나 목적들의 성격이 무엇이

든지 간에, 그것의 목표는 신체와 지성과 도덕과 그것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신앙발달과 문화이어야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한 이 견해에 두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달*이고, 두 번째가 *문화*입니다. 첫 번째는 한 인간 안에는 어떤 최대점이나 범위에까지 확장되고 발달되고 강화되고 그 주제에 그 자신과 그의 종류에 관해서 그 자신을 완전히 사용하게 할 어떤 신체기관들(organs), 힘들(powers) 혹은 능력들(capacities)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체육은 신체를, 그것의 특별한 감시와 교육아래, 그것의 모든 특성들 속에 둥니다. 또 힘찬 활동과 좋은 건강과 성장에 본질적인 그것의 모든 신체기관들, 특히 머리, 심장, 폐, 위 그리고 내장의 과학적 발달과 강화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음식과 의복에 필요한 관심으로 이들 목적들에 본질적인 특성과 자기 부정의 범위와 체련을 지시합니다.

2. 지성교육은, 지적 능력들, 즉 인식, 기억, 반사, 이성, 상상, 추상을 분석한 후에, 문법, 논리학, 수사학, 웅변, 미각, 토의 그리고 토론을 포함하여, 지식의 습득과 전달에서, 그것들을 훈련하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갑니다.

3. 도덕 문화는 도덕과학(윤리학)의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능력들의 분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도덕적 능력이란 양심, 애정, 열정, 그리고 삶과 관련된 모든 것, 즉 정직함, 정의, 명예, 자선, 인간성과 자비심에서 행하는 지속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4. 신앙 발달.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은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그가 진행하는 모든 발걸음에서, 이들 책임들을 감지하고, 깨닫고, 인정하도록 만들어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학문을 위한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학습하는 모든 학교에서 다소간에 매일의 연구과제이며,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 즉 삶과 관련된 모든 학문들과 연구들을 위한 유일하고 적절한 교과서입니다.

.....

사람들이 대학들을 만들지, 벽돌과 모르타르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대학들은 사람들을 만듭니다. 이들 사람들은 책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 책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고, 기동하고, 또 우리의 존재를 갖는 살아 숨 쉬는 세계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들이 참된 인간 철학을 이해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얼마나 긴요한 일입니까! 대학들은 사람들, 즉 지상의 강단과 입법회관들을 채우는 사람들, 상원의원들, 재판관들과 지사들의 교사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 중의 급진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써, 우리가 인간성의 특질과 사회의 요구들에 발맞춰서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어떤 체제를 고안해 낼 수 있기 전에, 우리들은 참된 교육이론, 즉 참된 인간 철학에 근거한 한 이론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리가 개인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체제를 고안해 낼 수 있기 전에 사람의 참된 과학이나 이론을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전인, 즉 육과 혼과 영은 인간 본질의 전체 능력에까지, 또 인간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운명에 관한 특별한 고려로, 개발되어지고, 교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흔해빠진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보의 시대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와 현시대의 분석적이고 종합적 과학으로부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적당한 인격에서 순수하게 육체적이고 순수하게 지성적이며 순수하게 도덕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에 관한 한 우리가 진보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교육의 주제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모든 문명 공동체들의 학식 있는 전문직들은 우리 대학들의 선행들입니다. 그것들의 기여와 지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익의 항목들로써 입법회관들과 정의의 재판정들과 종교와 미덕의 회당들과 성전들을 채우는 모든 지혜들과 수사법을 그 대가로 받으며, 문학에서 과학에서 물리와 형이상학에서 우리 시대와 나라의 우아하고 유용한

예술들에서 우리의 욕구들과 소원들에 박식하게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그 대가로 받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변호사들과 의사들과 종교의 목회자들과 살아 숨 쉬는 시대의 모든 과학과 예술 교사들을 공급해 줄뿐 아니라, 직간접으로 그것들은 우리나라와 현존하는 문명세계에서 모든 발견들과 개선들의 분수들입니다.

본인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인류에게 이들 문명과 축복의 대 분수들처럼 그렇게 수사법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논쟁에서 풍성하고, 또 시대와 문명화된 국민의 후원과 지지와 너그러움에 대한 그것의 요구들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어떤 세속적인 주제나 어떤 정치적인 질문도 모릅니다. 야만과 가장 높은 문명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것, 거친 미국 인디언과 가장 세련된 시민, 야만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모든 것은 대학들이 육성했고, 소중히 했고, 세계에 베풀었던 학습, 과학, 예술, 종교와 도덕들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1854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에 관하여
On Samuel Taylor Coleridge

해설

알렉산더 캠벨의 제자들은 그의 깊고 넓은 독서량에 끊임없이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는 월간지 편집과 순회와 강연으로 스케줄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우수한 문학작품들 가운데 상당수를 소화시키고 있었다. 다음의 글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 대한 증거이다 (From *The Millennial Harbinger*, Fourth Series, Vol. IV, No. V, May, 1854, pp. 241-254).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에 관하여

필자는 최근에 쉘드(Shedd) 교수가 편집한 7권으로 된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 전집』(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53)을 서재에 사들였다. 물론 그것들 모두를 읽지 않았고, 그 7권의 책들 가운데 어느 것도 완독하지 않았다. 요즈음 우리는 소수의 책들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책 전체를 이해하는 경우는 몇 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불투명해서 뉴턴조차도 그의 모든 광학과 광굴절학 그리고 반사광학을 가지고서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책들이 몇 권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이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요, 형이상학자요, 비평가요, 강연자요, 시인인 사무엘 콜리지가 쓴 책들의 특징은 아니다. 열거한 이들 전문직들 가운데 어느 것에서도 그에게 필적될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어느 누구도 그보다 뛰어나지 못했

다. 아마 어느 누구도 그것들 모두에서 그에게 필적되지 못했다.

확실히 그는 어떤 주인의 단언에 맹세하려는 중독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독자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보통의 사람처럼 느꼈을 동안에도 현자로서 생각하였다. 그의 전문직이 신학은 아니었지만, 영국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의 천재성에 경의를 표하였고, 어느 누구도 감히 일대일 논쟁에서 그와 맞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영국 성직계급제의 건전한 교리를 크게 지지하였고, 그것의 잘못들과 성직계급제의 자만들을 가차 없이 공개 버렸다. 그는, 아브넬이 아사헬을 찌른 것 같이, 또는 에훤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른 것 같이, 제5 번째 갈비뼈 아래로 유니테리언주의를 찢었다.

그러나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한 모든 두드러진 입장에 대해서, 또 교파 신문이 우리를 비방했던 내용에 관해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주된 입장들을 지지할 뿐 아니라 확증한다.

.....

대영제국과 그 나라의 주교들과 위엄 있는 고위 성직자들과 대주교들의 귀에 쏟아지고 있는 매우 큰 목소리와 정직한 진리와 또한 그것, 즉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의 책에 있는 주교의 자비와 품위에 관한 그 나라의 멋진 이상을 듣는 것이 필자에게 기쁨을 준다. 그것은 그 나라의 멋진 이상은 서부 전역에 있는 우리의 감독들(Bishops), 말하자면, 우리 교회들의 장로들(elders) 혹은 사제들(presbyters), 좀더 학식 있는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위 직원들이 그렸고,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가 그렸고, 요크(York)와 캔터베리 대주교들이 그런 것처럼, 각자나 단체나 천국에 속한 단체(Heaven's own institution)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체는 대략 30년 전에 '캠벨주의'(Campbellism)로 불리곤 했으나 그것은 대영제국에서 콜리지주의(Coleridgism)이며, 또 그것은, 여전히 더 좋은 바울주의(Paulism)이다. 아니,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단체이다. 교사로부터 감독 애스베리(Asbury)에 이르기까지, 조금 위대한 척하는 교회의 고위 성직자로나 국내외 개신교의 다른 어떤 고위 성직자들이 보기에 매우 불량하고 비난받을 만한 이 견해는 유일한 성서적 견해이

다. 그것은 그렇고, 어떤 근거 위에 로마 가톨릭과 영국과 미국의 감독들이 서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현자나 철학자 또는 진실로 앵글로색슨 피를 갖고 태어난 그밖에 누구도 콜리지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 그가, 바라기는, 그들 지성들의 일부를 열광시켰고 개신교에 아직도 남아 있는 로마 가톨릭의 모든 잔재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나 계속하자면, 콜리지의 이 입장들과 동일한 입장의 다른 많은 것들이 『크리스천 뱀티스트』지가 발행되던 때인 30여 년 전 이 땅에서는 이단들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장미는, 다른 어떤 이름아래서도, 달콤한 향기를 낼뿐이다. 그것들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큼 확실히 기독교 사회에 널리 번질 것이다.

.....

필자는 성경과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양떼의 모든 교회들에 속한 훌륭한 인물들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필자의 영혼은 확대되고 높아지며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들을 굶주리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홀로 내버려둠으로써, 그리고 사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서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모든 거짓 철학들과 거짓 신학들의 파멸을 간청하는 모든 우리의 주된 요점들은 루터와 콜리지와 같은 사람들, 셸록(Sherlock)와 후커(Hooker), 풀러(Fuller)와 홀(Hall)과 번연(Bunyan)과 같은 사람들, 심지어 다소 열광적인 에드워드 어빙(Edward Irving)과 조지 휘필드(George Whitfield) 그리고 존 웨슬리(John Wesley)와 같은 사람들의 문서와 정신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듣는다. 진실로 이들 가운데 어떤 두 세 사람들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쳤다. 여전히 그들은 교황들이 뒤죽박죽 된 감정들과 교란된 상상들로 우리의 주님을 장사지내어 안치했던 굴무덤의 돌문을 굴러내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은 당분간 펜을 내려놓고 다른 임무들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A.C.

1858

서문, 『밀레니얼 하빈저』

**Preface, *The Millennial Harbinger*,
January, 1858**

해설

캠벨은 1858년 1월자 『밀레니얼 하빈저』(*Millennial Harbinger*)의 발행으로 편집인과 발행인으로서의 35년째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월간지 서문에서 캠벨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였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였다(From *The Millennial Harbinger*, Fifth Series, Vol. I, No. 1, January, 1858, pp. 3-8).

서문, 『밀레니얼 하빈저』 1858년 1월

현재 쓰이고 있는 *서문*과 *서론*은, 정확하게 말해서 동의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하게 쓰는 문장들에서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작가나 연사가 계획하고 의도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잣대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시대와 주변 환경, 특별 소명과 일반 소명, 지시들, 그리고 한 세대나 한 백성의 필요들을 채워 보려고 쓴 우리의 다양한 저술들에서, 우리가 인간의 예지 그 이상으로 미래를 예견할 수 있거나 기대할 수 있지 않는 한, 우리들은 책 전체 내용을 실제로 알기까지 서문을 쓰지 말아야 한다. - 이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고, 심지어 상상할 수도 없다. 교회와 세계는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다. 그것들은 언제나 앞과 뒤로, 위와 아래로 끊임없

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생명의 맥박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의 매 순간을 올라가고 있거나 내려가고 있다. 그는 하나님에게나 또는 사단에게 부합하여 매일 선악간에 성장하고 있다.

.....

지금까지 우리들은 편집인으로서 공동체를 35년간이나 섬겼고,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지면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실한 독자들을 찾아뵈었다. 이것은 우리 생애의 절반이 넘는 기간이다. 이들 이외에 다른 많은 책들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손을 거쳐 배달되었다. 다소간에 이 모든 것들은 초대 기독교의 사도전통을 회복하려고 외친 호소였다. 우리들은 홀로 일하지 않았고, 헛되이 일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며,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몫이다. 우리들은, 지난 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주창하였고, 우리들의 신념에 따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들에 대립되고 반대되는 인위적인 교리들과 계명들만을 반대했다고 말할 수 있다.

.....

우리들은 1816년 율법에 관한 설교를 처음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 앞에서 발표한 이후, 1857년 12월 12일 이 시간까지, 교회헌법과 기독교 연합의 용어나 어휘들 그리고 친교와 협력으로써 신약성경을 대신할 단 한 가지도 결단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단언할 동안에, 우리들은, 개신교주의의 모든 교파 형성들로 구성된 한 기독교 공동체로써, 교회 협력에 관한 우리들의 견해들에서, 지금까지로 봐서, 완전히 도달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말하였고,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려는 특별한 관심으로 좀더 복음적인 조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

우리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또 계속 촉구하고 있는 좀더 효과적인

조직에 관한 요청(subject)이 있고, 과거에도 얼마 동안 있었다. 우리는 일리노이(Illinois)와 아이오와(Iowa) 주에서, 다소 요구가 있고, 또 참으로, 상당히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최근의 여행들에서 그것을 발견하였다. 모든 단체들(societies)이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얼마간 수련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몇몇 "필요한 일들"과 사도들과 동시대의 일군들이 세운 일부 교회들에 한동안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있었다. 거의 모든 정치 종교적인 경우들에 있어서, 필요의 경험은 그것들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그것들을 위한 적절한 구제책에 있어서 다소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기독교 왕국은, 사도들, 예언자들, 복음전도자들, 장로들(목사들), 그리고 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세워지지 않았다. 주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과 요구의 주창자로서 즉시 성령을 예루살렘에 보내셨다. 만주의 주로 왕관을 쓰셨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던 그분은 성령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분의 목적과 선교에 성공을 거두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독교 왕국의 기원연대를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때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만주의 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신 때로부터 시작한다. 그와 같은 것은 초대 기독교의 목적에서, 우리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에서, 그것이 취해진 견해였다. 만주의 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기적들, 교육들, 설교들, 고난들, 죽음, 장사, 부활, 승천, 그리고 대관은 모든 기독교 자료를 구성한다.

주님의 승천과 대관 이후, 예루살렘에서 경축된 첫 오순절 날에 천국의 열쇠를 위임받은 베드로에 의한 이러한 사실의 선포는 기독교 단체와 복음시대나 경륜의 자료들로 만들어졌다.

.....

구제하기 위한 은혜와 자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막설교는 베드로가 행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가족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동일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고, 우주의 절대 군주로 기름 부어 주로 명명하셨던, 자신의 주(Lord)와 주인(Master)의 일군과 직책과 사명

을 포함하는 말씀을, 과거의 주장과 진전된 일들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으로 세례 요한과 주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기간동안에 종종 “주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청원에 관하여 선포하셨던 모든 것의 완성일 뿐이었다.

사복음서에서 선포된 기독교 단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충분하고 만족스런 발전은 이 기도문에 있는 한 가지 청원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이해에 결정된다. 이것을 우리는 『밀레니얼 하빈저』지의 신간에 선행하는 준비로 삼을 뿐 아니라, 전체 기독교 계시와 기독교회의 명쾌하고 포괄적인 견해에 선행하는 본질적인 준비로 삼는다.

결어

Epilogue

1854년 1월 초순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이 사망한 후, 알렉산더의 건강은 결코 예전 같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매우 긴밀하게 동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한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캠벨의 주된 일은 미국성경연합(American Bible Union)을 위해 *사도행전*에 관한 그의 저술을 마치는 것이었다. 캠벨의 전기에서 로버트 리차드슨(Robert Richardson)은 캠벨이 이 저술에 쏟은 집중적인 노력과 1855년 거의 대부분을 오랜 시간동안 연구실에서 지냈던 것이 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술한다. 그의 친구들은 캠벨의 정신력의 쇠퇴와 과거 사건들에 관한 혼동 그리고 『밀레니얼 하빙저』(*Millennial Harbinger*)에 실은 그의 기사들에서 이상한 불일치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캠벨은 자신이 주로 쓰는 글의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비록 그가 『밀레니얼 하빙저』지의 관리를 계속했지만, 그 월간지에 관한 중요한 편집 작업은 점차 리차드슨과 그의 사위 윌리엄 K. 펜들톤(William K. Pendleton) 및 캠벨과 공동 편집자로 일했던 몇몇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캠벨은 베다니 대학의 본관건물 신축에 마지막 시간을 쏟으면서 활기찬 노력들을 보였다. 1857년 12월 10일 이른 아침에 발생한 처참한 화재로 본관건물과 도서관과 실험실들이 완전하게 소실되었다. 강의들은 단 하루만 휴강되었고, 신축계획들이 즉각 수립되었다. 캠벨과 펜들톤이 신축기금마련을 위한 책임자들로 이사회로부터 임명되었다. 그들은 곧바로 기금마련을 위해서 동부를 순회하였다. 동부 순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일 이내에 다시 남부와 서부로 순회하였다. 1858년 여름에 훌륭한 신축본관을 위한 초석이 놓였으나 앞선

수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모금 노력으로 캠벨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소진되고 말았다.

1860년 4월 22일, 남북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폴트 슈터(Fort Sumter)가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캠벨에게 도착하였다. 이 때 캠벨은 버지니아 주 샬로츠빌(Charlottesville)에서 일정기간 설교를 맡아 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베다니에 있는 집으로 향했고, 도처에서 전쟁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밀렌니얼 하빈저』에서 남북사이의 이슈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으로 중재방안을 촉구하였고, 냉정과 이성애 호소하였으나 달라지지 않았다. 1861년에 캠벨은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여 『제인 캠벨의 짧은 회고록이 담긴 토마스 캠벨 장로의 회고록』(*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 Together with a Brief Memoir of Mrs. Jane Campbell*(Cincinnati: H. S. Bosworth, 1861))이란 제목의 책을 편집하여 출판하였다.

전쟁 중에 캠벨은 불가불 베다니에 묶여 지냈으나 때때로 인근 마을들에 가서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공개강연을 하였다. 그는 건강악화로 윌리엄 K. 펜들튼(William K. Pendleton) 부학장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학생 수가 격감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학장직을 수행하였다. 1866년 3월 4일, 그는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섬긴 것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가 알고 있던 방법을 다해서 충실하게 사역했던 것을 만족해하면서 베다니에 있는 그의 집 침실에서 임종하였다.

역자후기

Translator's Postscript

1988년에 출판된 『알렉산더 캠벨 독본』은 캠벨이 직접 쓴 27개의 글과 편집인이 쓴 3개의 글을 포함해서 총 30개의 글을 실고 있다. 편집인 맥알리스터는 제자회 소속 '크리스천 신학대학원'(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Indianapolis, IN)의 역사학 교수를 지냈으며, 캘리포니아 주 클레어몬트(Claremont, California)에서 2008년 1월에 88세로 소천 하였다. 맥알리스터는 1941년에 출범한 '제자회 역사학회'(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의 창립멤버로서 이사직을 역임했고, 1975년에는 윌리엄 터커(William E. Tucker)와 공동저작으로 『믿음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Journey in Faith: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를 출판하였다.

『알렉산더 캠벨 독본』은 1810년부터 1858년까지 캠벨이 『크리스천 뱍티스트』지와 『밀레니얼 하빈저』지에 실었던 글들과 그의 설교문과 연설문 중에서 엄선하여 중요부분만 실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캠벨의 뛰어난 사상과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책이다. 여기에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사도전통회복의 중요성,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종교, 신학, 선교 전반에 걸친 알렉산더 캠벨의 철학과 전쟁, 사형, 노예, 여권(女權)과 같은 제반 윤리문제들에 대한 견해와 입장이 담겨 있다.

본서는 역자가 2000년에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을 이번에 보다 많은 이들이 제본하여 읽어 볼 수 있도록 책으로 편집하여 공개하게 된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캠벨의 글들이 150-200여 년 전에 쓰인 어려운 문장들인데다가 역자의 줄역까지 겹쳐서 독자들에게 해독(解讀)의 수고를 끼

치게 된 점이다. 이점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캠벨이 “새 번역 성경에 대한 변호” 마지막 부분, 분서 62쪽에서 적고 있는 대로, 이 책을 정직하게 검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의 저자를 인도하시고 페이지마다 영감하신 성령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나누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한다.

2009년 2월 2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서 조동호